

7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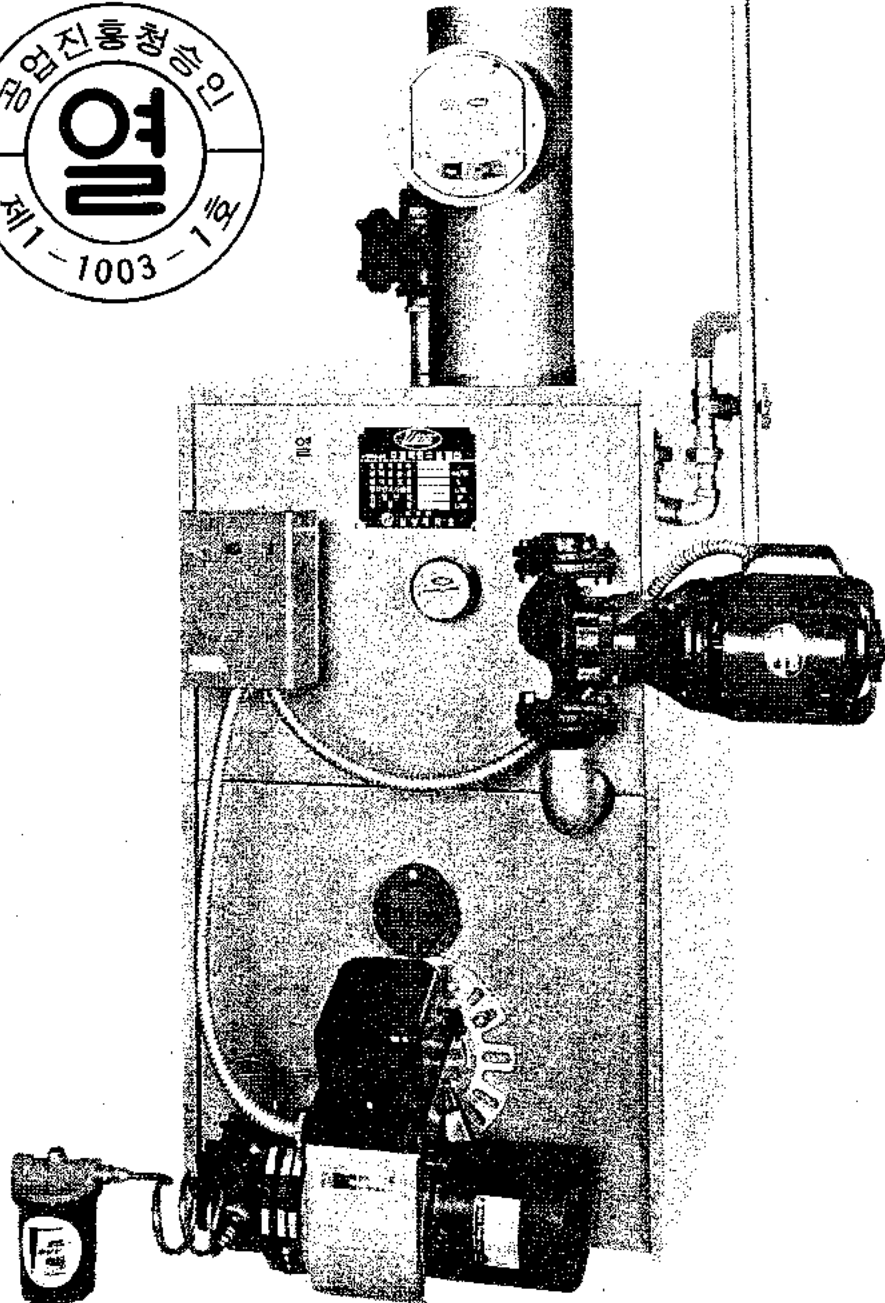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Utica **유티카** **신**
자동 보일러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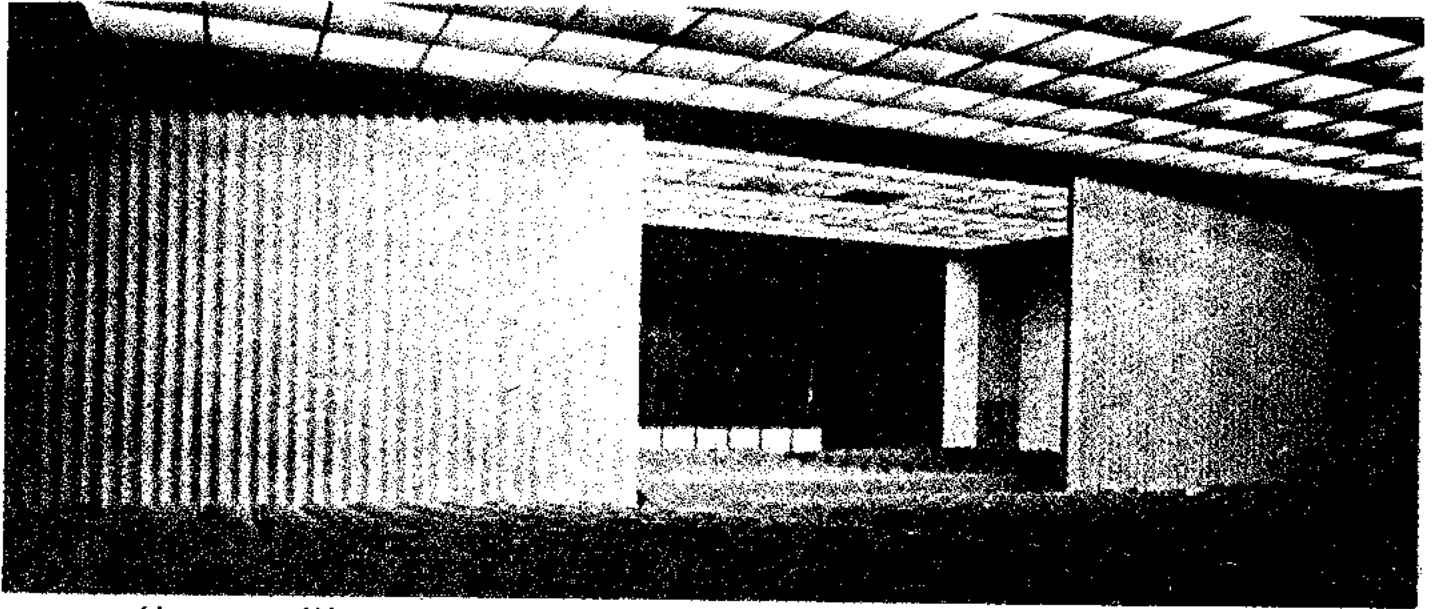
製造元：三成製作所
유티카商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4街 126의1號
進洋商街 라 102號

TEL. 26-2026, 2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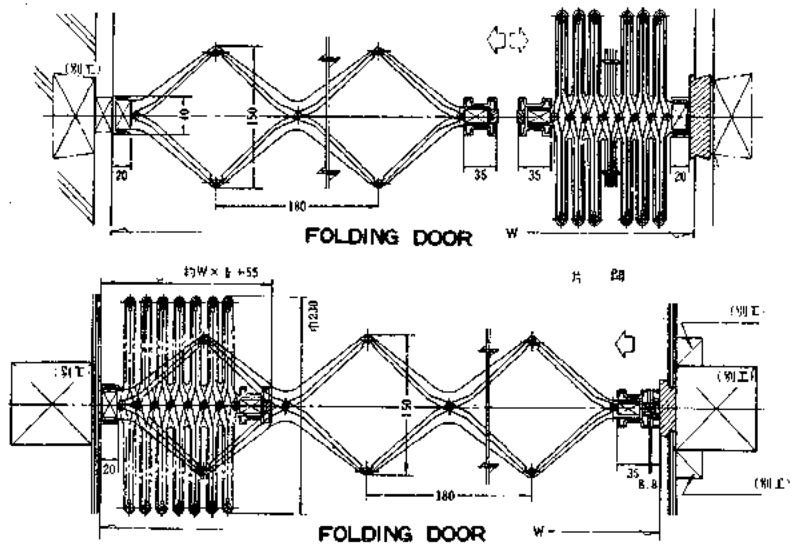
FOLDING DOOR

—하나를 둘로 쓰는 現代의 벽—
—스므—스하게 開閉되는 優雅한 벽—



仕 樣

名 稱 材 断
 항 가 레 일 硬質 알루미늄合金 押出型材
 린 나 特製 메리팅 로-라
 카 부 레 일 硬質 알루미늄合金 押出型材
 힌지부레이드 1.2mm 厚鋼版 유니크롬 메기
 후 레 임 硬質 알루미늄合金 押出型材
 사이드후레임
 張 布 地 人造皮革、人造실크, 레자
 織造地(特殊 難燃処理)
 開 閉 裝 置 強力 마구넬
 重 量 1m²에 約 5kg
 접혔을때의부피 W×1"/8+55mm
 積 算 W×H=面積(m²)
 面積×1m² 単価=1台價格
 1台 3m² 未満의 境遇는
 3m²로 計算합니다.
 最下 注文 単位 3m² 임.



輕快한 操作으로 조용히 開閉되는 칸막이용 홀딩
 하—모니 도아는 住宅、官廳、銀行、會社、學校、호텔
 病院、會議室、應接室、事務室、廳、食堂 等に 適合
 하며, 하—모니 도아는 美國·日本의 技術을 導入하여 製作한 堅固하고 美麗한 実用品입니다.

2 in 1 의 壁



황딩도아
 專門메이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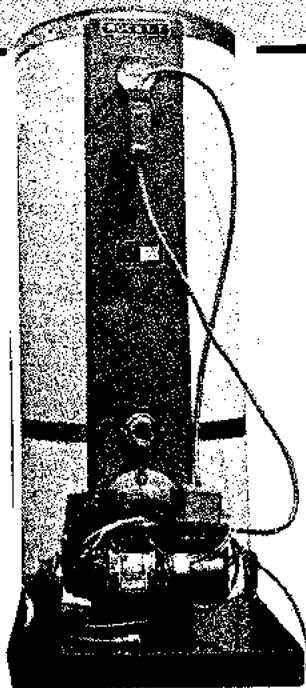
永一홀딩도아商社

技術 美國 페니會社
 指導 日本 아코디온 도아會社

事務室: 서울市中區亭洞2街46-8
 T. 場: 永登浦區新道林洞1103-6
 釜山支社: 釜山市東光洞2街4

電話: 26-0873-1658
 69-6110
 22-8640

Rocket Boiler 로켓보일러



* 로켓트 보일러

상공부 · 공업진흥청
제 조 허 가 제 2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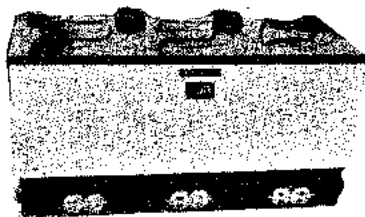
형식승인 제 1-1002-1 호부터
형식승인 제 1-1002-6 호까지

열 효율 87.2% (국립공업표준시험소 시험결과)

* 건축사를 위한 공업진흥청 형식승인 로켓트보일러 특성표 *

ITEM	TYPE	단 위	KR-40	KR-60	KR-80	KR-100	KR-150	KR-200	KR-300	KR-350	KR-400	KR-500
발 열 량	Kcal/hr		20,000	30,300	50,000	70,000	100,000	150,000	260,000	285,000	320,000	410,000
난방가능면적	Heating Area	㎡	23-30	30-50	60-90	100	100-150	150-260	260-300	300-350	350-400	430-500
관 수 용 량	ℓ		82.5	122.9	166.6	178	308	396	624	72.4	920.8	1,430
압력소모량	L/HR		3.9	3.4	8.8	10	18.4	21	35	38	44.8	56.2
수압시험압력	Kg/cm ²		5.25	5.25	5.25	5.25	5.25	3.5	3.5	3	3	3
배관구경	m/m		50	50	65	65	75	75	100	100	100	103
연통구경	m/m		150	150	200	200	200	250	300	300	350	400
바 나	HP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외형치수			A 470	A 540	A 610	A 610	A 610	A 730	A 1,000	A 1,200	A 1,400	A 1,600
외형치수			B 800	B 1,150	B 1,280	B 1,450	B 1,600	B 1,750	B 1,850	B 1,850	B 2,000	B 2,250
중 량	kg		300	340	420	440	480	520	620	680	720	900
제 작 방 법			OIL PROCESS 선형제작									
로켓트보일러 이 단 기 격	공장도		151,800	189,200	245,150	279,000	391,200	458,900	636,000	781,200	952,900	1,051,000

* 로켓트 연탄보일러



* 특 징

- 운수사용
- 난방급탕취사겸용
- 긴 수명 (13년 사용)

* 용 도

- 주택 · 아파트
- 여관 · 병원 등

* 실 적

- 마포 아파트 450세대
- 정릉, 외인, 육인 Apt.

* 건축사를 위한 로켓트 연탄보일러 특성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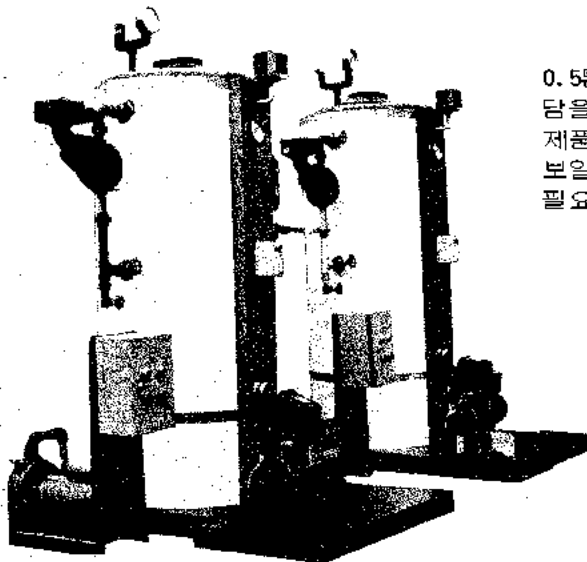
규 격	단 위	KR-191	KR-192	KR-193	KR-194
발 열 량	Kcal/hr	3,110	6,220	9,330	12,440
사용연탄	SIZE	19	19	19	19
연 통	INCH	4"	4"	4"×2	4"×3
배관구경	mm	32	40	40	50
난방가능면적	평	3~4	6~9	12~15	18~20
가 격	공장도	41,800	68,200	90,200	123,200

* 로켓트 전 자동증기발생기

0.5톤 미만의 증기보일러는 1톤이상의 과다한 시설 및 관리비용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관리자가 필요없고 안전도가 높은 폐사 제품은 소량 (1톤) 미만의 증기가 필요한 공장동에 적합한 전 자동증기 보일러입니다. 수출직물공장, 전자제품공장, 세탁공장, 건조시설에 필요한 공장 등

* 건축사를 위한 증기발생기 특성표 *

규 격	단위 (UNIT)	URS-150	URS-200	URS-250
발 열 량 CAPACITY	Kcal/H	90,000	120,000	150,000
전열면적 HEATING SURFACE	cm ²	520	715	910
압력시험 TEST PRESS	Kg / m ²	5.25	5.25	5.25
급수시설 WATER SUPPLY SYSTEM	Motor / Power	1 HP	1 HP	1 HP
자동시설 AUTO CONTROL SYSTEM	#	Mc 150#	Mc 150#	Mc 150#
운전방법 OPERATED	ALL AUTO CONTROL SYSTEM			



열 기술의 종합메이커

고려강철주식회사

본 사 : 서울 · 영등포구 외발산동 288-1 전화 : 66-1363

서울사무소 영업부 : 26-1135-6, 27-9358,

세운상가 전시장 : 27-8370 부산대리점 : 3-1585

영 등 전 시 장 : 57-2434 대구대리점 : 3-0910

마 포 전 시 장 : 33-9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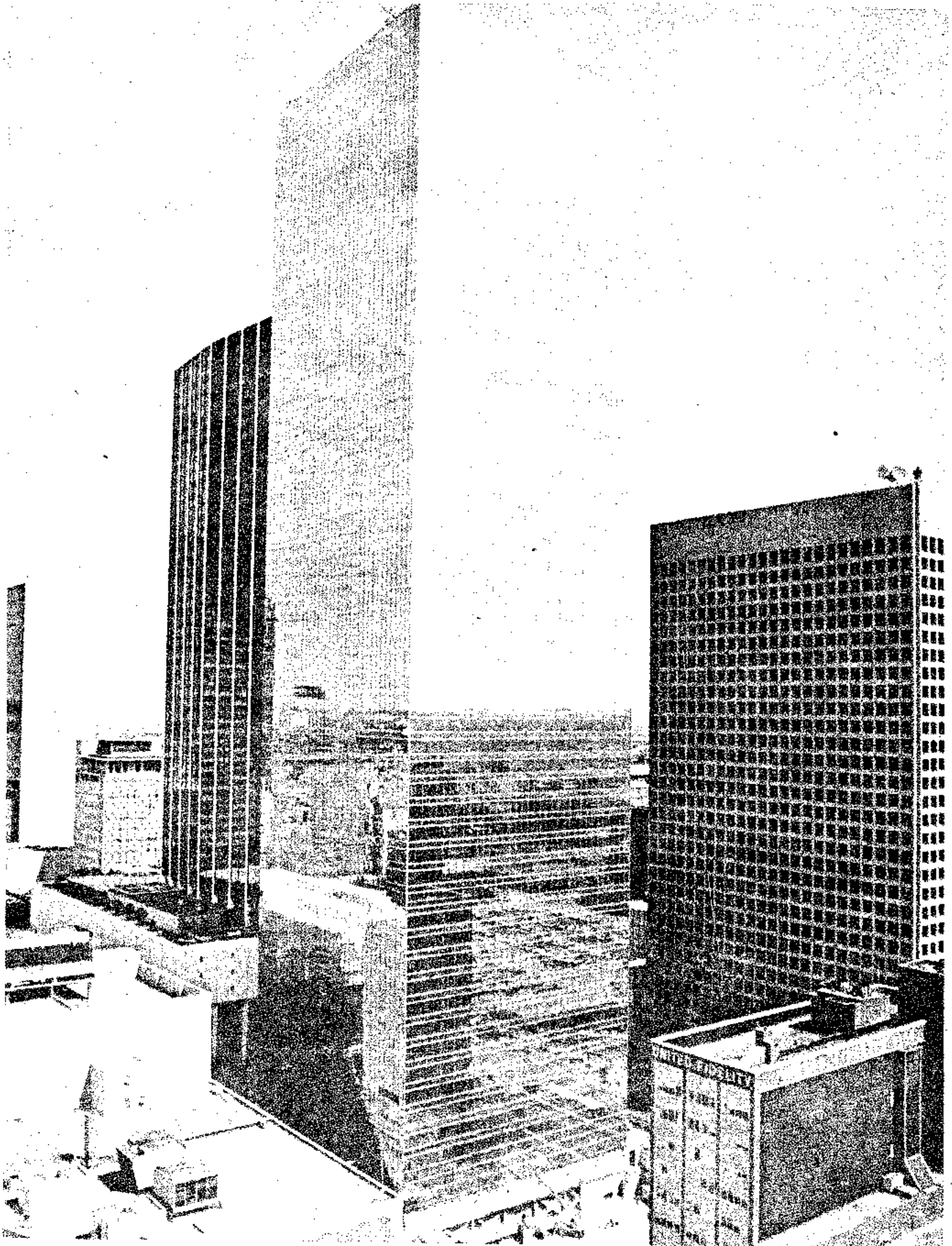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本社：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75/電話：(23) 7141~45
仁川工場：仁川市 東區 葛石洞2 / 電話：仁川 (3) 0111~0119
釜山工場：慶南東萊郡日光面伊川里/電話 釜山 (5) 4066~4070

※ 제품 안내

맑은유리, 무늬유리, 강화유리,
유리블럭, 관유리 < 조명용
의료기용

各國의 建物들 (씨리즈Ⅱ)



T 자
제도판
평판측량기

전문메이커

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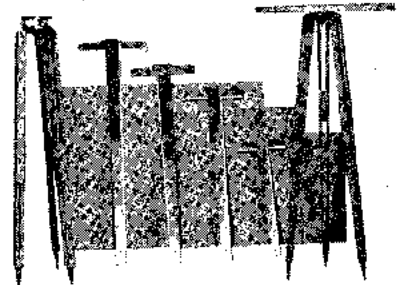
한일 산업사
기계상사

사무소: 강원도춘천시요선동 9-2
공 장: 강원도춘성군신동면학곡리390
전 화: 2146-6627

한일산업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상표등록을 제출하고 자동시설과 합리적인
규격에 의한 각종 제도, 측량용구를 제작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생 산 품

품 명	규 격	비 고
제 도 판	900mm × 1200mm 750mm × 1050mm	보급품 특수피나무 제품
T 자	3자, 3.5자, 4자	전문가용, 학생용
평판측량기	고정식, 이동식	편리한 고안품



〈新刊〉

建築計劃決定方法

著者 漢陽大學教授、工學博士 金 眞 一

菊版 3,500원

내용: 計劃各論을 골한 과정에서 각 要
點을 組合시켜, 設計로 유도하는
方法. 그리고 企劃者의 側面에서
計劃과 設計를 하는 方法의 展開

發行 普成文化社 서울·鍾路2街 84

總販 良友堂 74-4292 23-2707, 2708

目 次

- 一章 空間系의 파악과 意志 決定
- 二章 모호한 計劃條件의 파악
- 三章 周期변동하는 計劃條件의 파악
- 四章 成長하는 規模에의 대응方法
- 五章 計劃의 數量的 予測方法
- 六章 規模의 算定方法
- 七章 Core system 및 建物形狀의 選定
- 八章 耐用 및 投資計劃
- 九章 計劃決定

技術士·建築士·技士1·2級을 위한
建築試驗問題集 시리즈

主觀式 鐵骨·鐵筋콘크리트問題集

曹 鐵 鎬 著

국판 412면, 鐵筋 461문제, 鐵骨 71문제
₩ 2,800

- ① 韓國規準에 따른
- ② 要點中心, 短期完成, 問題解説集
- ③ 基本問題, 學習問題, 應用問題를 段階式으로
- ④ 지난 12년 우리나라와 日本에서 出題된 問題수록

구입방법

지방에 계신 분은 아래 주소로 소액환을 등기로 보내 주시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대체제좌(서울 525956)를 이용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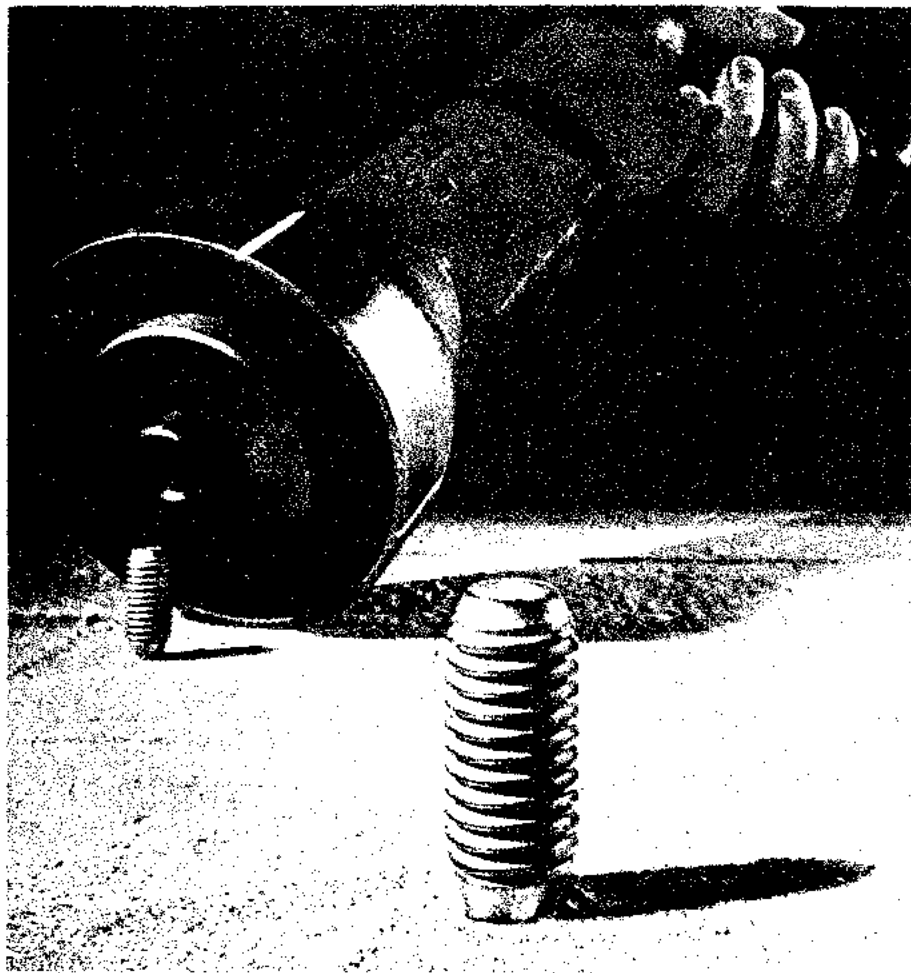
TEL 서울특별시 중로구 명륜동 2가 175-1 (4층)
한국건축컴퓨터응용연구소 귀중

(73) 6255 · (99) 9796

HILTI

安全建設用 打釘工具

HILTI



* 1. 주요 용도 (건축, 조선, 제강용)

- 건축 토목공사
- 전기 설비 공사
- 배선 배관 공사
- 전철 철도 공사
- 터널 공사
- 조선공사
- 간판, 장식공사
- 냉난방 공사
- 기계 기구류 부착 공사
- 철골 공사
- ROOFING, SIDING, DECKING

* 2. 특 징

- 최대의 안전성
- 시공 기간의 단축
- 시공의 간편, 신속, 확실
- 인건비의 절감
- 깨끗한 외관
- 강한 고착력

* 安全第一을 原則으로 하고있는 HILTI는 世界에서 最初로 低速式 安全打釘原理 開發에 成功 여러 方面의 附着作業에 從事하는 分으로 부터 絶對的인 信賴를 받고 있습니다.

유네브國際勞動局 (ILO) 後援의 HILTI 安全原理에 依한 打釘工具는 여하한 狀態에 있어서도 鋼鉄의 PIN을 安全하게 確實히 CONTROL 해 줍니다.

* 새로운 HILTI SYSTEM의 시공예



韓國總代理店

韓國火藥株式會社

本社: 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12-1
TEL. 23-0381-9 · 直 22-6679

● 營 業 所

釜山 Tel. (43) 2066 · 全州 Tel. 213181
天安 Tel. 3500 · 堤川 Tel. 2044
墨湖 Tel. 300 · 善池 Tel. 410
店村 Tel. 2314 ·

● 대 리 점

서울: 삼성화약사 TEL. (96) 1949
삼성 HILTI TEL. (68) 0290
인천: 대한화약사 TEL. (21) 0750
대구: 아세아화약사 TEL. (21) 0109
부산: 한광출조사 TEL. (23) 1577

1975 10

目 次

〈協会創立 10周年 特輯〉

紀 念 辭.....	會長 韓 昌 鎮..(2)
致 辭.....	建設部長官 金 載 圭..(3)
祝 辭.....	大韓建築學會會長 金 熙 春..(5)
來賓祝辭.....	韓國유리工業(株)社長 崔 泰 涉..(6)
協會沿革 및 現況報告.....	總務理事 李 圭 福..(7)
創立10周年 紀念 協會賞 審査經過報告	李 丞 雨..(9)
創立10周年 紀念式 画報.....	(10)
創立10周年 紀念 會員作品 展示會	(14)
本協會 第10回 定期總會	(15)
本協會 第8代 會長 當選所感.....	(18)
〈特 輯〉	
創立10周年 紀念 會員作品 紙上展	(19)
사진으로 본 協會 10年史	(35)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 丞 雨
委 員	金 仁 錫
	金 昌 瑞
	馬 春 景
	愼 國 範
	俞 景 哲
	尹 道 根
	李 文 輔
	李 廷 德
	韓 鏞 燮

大韓建築士協會 創立10周年에 바란다.	金 熙 春..(47)
大韓建築士協會 創立10周年에 바란다.	崔 昌 奎 (48)
韓國古建築의 平面의 比例.....	宋 岐 求..(49)
前衛建築	編 輯 部..(61)
全國建築許可統計.....	建設部계 공..(66)
工業団地 및 輸出自由地域内の 工場 等 建築에 관한 規則.....	(") ..(68)
建築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 ..(69)
協會記事	(73)
會員動靜.....	(76)
月間協會動靜	(78)
編輯後記	(80)

衣紙：西洋建築의 樣式比較

發行人兼 編輯人・韓昌鎮 / 登錄番号・第라-1251号

登錄日字・1967年 3月 23日 / 月刊「建築士」/

發行日字・1975年 11月 15日 通卷81号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 89番地 / 電話・73-9491~2

〈非売品〉

協會創立10周年

紀 念 辭

會長 韓 昌 鎮



오늘을 빛내 주시기 위하여 往任해 주신 來賓여러분 그리고 親愛하는 會員 여러분 우리 大韓建築士協會가 열번째 誕날을 맞은 오늘을 祝賀하면서 無限한 기쁨과 착잡한 心情으로 感謝의 기도라도 드리고 싶은 感懷를 禁치 못하는 바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는 많은 疎外와 外面을 이겨내며 어려운 試鍊을 받고, 그것이 순수했든 못했든 옳든 그르든, 오직 우리의 힘만으로 지켜온 貴重한 經驗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오직 서로간의 自愛와 團結과 前進이 있어야 할 뿐입니다. 한 사람과 同僚도 外面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지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呼應과 사랑을 얻을수 있다는 攝理를 冷徹히 다시한번 銘心해야 할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는 우리일의 主務機關의 보다 理解 있는 보살핌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온 거래의 支持를 얻고, 우리가 나라를 爲해 이바지 하는 참뜻도, 理解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람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한번 歷代會長任, 任員 그리고 會員 여러분의 勞苦에 깊은 敬意와 感謝의 뜻을 표하며, 밝은 앞날을 위한 더 큰 建闘와 自覺을 빕니다.

1975. 10. 23.

致 辭

建設部長官 金 載 圭

親愛하는 全國建築士 여러분 오늘 뜻깊은 大韓建築士協會 創立 10周年을 맞이하여 全國會員이 한자리에 모여 記念式을 갖는 자리에서 致辭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協會가 創立된지 10년이란 期間동안 눈부신 發展과 成長을 하게된 모습을 볼때 本人은 欣快한 마음 그지 없으며 이는 곧 任員여러분과 全國會員 여러분들이 一致團結하여 한결같이 協力한 結果의 所産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創立 記念式을 갖는 協會가 오늘날까지 會員의 品位를 保全하고 權益을 擁護하는데 꾸준한 努力을 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建築物의 質을 높이는데 寄與한 業績이 至大하며 그동안 政府가 施行하고 있는일에 積極 協助하여주신 點에 對하여 이자리를 빌어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最近 北傀 金日成徒黨은 戰爭準備를 完了하고 越南과 크메르가 共產主義者의 魔手に 넘어간後 印支事態에 鼓舞되어 奸惡無道한 挑発行爲가 날로 頻繁해지고 있으며 또 南侵野慾을 漸次 露骨化하고 있는것은 잘 알려지고 있는 事實입니다.

北傀 金日成徒黨이 南侵野慾을 저버리지 못하고 虎視眈眈 機會를 노리고 있어 6.25와 같은 同族相殘의 쓰라린 悲劇을 이땅에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기 爲하여는 우리모두가 무엇보다도 國民의 總和團結과 安保態勢를 더욱 鞏固히 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親愛하는 建築士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피땀 흘려 建設하여 이룩한 産業施設과 人命財産을 保護하고 우리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使命感을 깊이 認識하여 反共隊列에 너 나 없이 參加하여야 하겠습니다. 建築士 여러분들은 國民總和와 安保意識이 어느分野에 從事하는 사람들 보나도 確固하고 透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5月 國民銀行 大講堂에서 開催한 全國建築士 安保敎起大會를 비롯하여 1,000余萬圓의 防衛誠金을 釀出하여 本人에게 寄託하는等 安保意識이 透徹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現下 冷酷한 國際情勢는 힘의 均衡만이 平和를 維持시킬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境遇에 있어서는 우리의 国力과 軍事力이 北傀보다 優越하여야만 그들의 挑発을 未然에 防止하여 우리의 生存權을 保全할수 있다는 嚴然한 現實임을 볼때 国力을 組織化하고 北傀의 어떠한 挑發도 能히 擊退할수 있는 國民의 精神姿勢를 確立하여야 하겠습니다.

英明하신 朴大統領 閣下께서 恒常 말씀하시는 「有備無患」의 깊은뜻을 國民各者가 實踐에 옮기는것 만이 우리의 唯一한 國民의 課題임을 銘心하여야 될것입니다.

親愛하는 建築士 여러분!

本人은 뜻 깊은 이자리를 빌어 全國建築士 여러분들에게 平素에 당부하고 싶었던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建築士 여러분께 賦與된 使命感과 國家的 社會的 責任感이 透徹하여야 하겠습니다. 建築物을 設計하거나 監理를 하는데 있어 不當하게 自身の 利潤만을 追求하기에 앞서 우리後孫들에게 물려줄 建築物이라는 使命感과 透徹한 民族的 精神姿勢로 設計하고 監理한다면 훌륭한 建築物이 될것이며 이것은 後日 우리 後孫들에게 우리世代가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하였는가를 보여주게 될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使命感과 責任感을 充分히 認識하여 萬에 하나라도 不實한 設計와 監理를 하거나 不美스러운 일이 없도록 特別히 留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建築物의 質의 向上을 爲해 繼續的인 研究發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一部 建築士들은 不良한 建築物을 設計하거나 監理를 하는 事例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루속히 是正되어야 할 것이며 建築士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建築物의 質의 向上을 爲하여는 뛰어난 創意力과 繼續的인 研究課程을 通하여 遜色없는 建築物을 創出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셋째 人口의 自然增加와 核家族制度로 因해 住宅需要가 크게 늘어 남으로서 우리는 住宅難에 直面하고 있습니다.

政府에서는 住宅難을 解消하기 爲하여 強力히 住宅政策을 推進하고 있습니다만 建築士 여러분께서는 庶民層도 低廉한 價格으로 住宅을 마련할수 있도록 設計面에서 研究開發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으며 이러한 努力은 國家施策에 副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넷째 社會的 公信力의 昂揚에 努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士 相互間의 過當한 競爭과 法에 違反하는 行爲를 恣行하므로써 社會的 物議를 이르게 不信風潮等을 낳게하여 建築士의 權威를 低下시키거나 建築士 全體의 名譽를 毀損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以上 말씀 드린것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自身의 權益을 保護받기 爲하여 繼續的인 努力이 要請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므로써 對外的으로 公信力이 提高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親愛하는 建築士 여러분!

政府에서는 建築設計用役의 海外進出과 여러분의 權益保護를 비롯하여 政府의 支援을 必要로하는 點이 있으면 積極的으로 支援해 드릴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建築士 여러분!

우리 나라는 過去 어느때 보다도 國民의 總和團結과 安保態勢의 強化가 切實히 要請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英明하신 朴大統領 閣下의 維新理念을 받들어 安定과 繁榮 그리고 國土統一의 길로 總邁進할것을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大韓建築士協會와 建築士 여러분의 無窮한 發展이 있으시기를 祈願하며 致辭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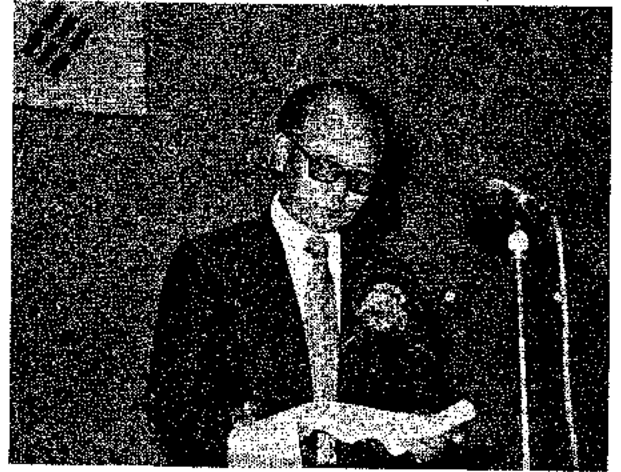
1975年 10月 23日

〈代讀・南德鉉 住宅都市局長〉

祝 辞

金 熙 春

大韓建築学会長



大韓建築学会長 祝辞を代讀する 威性權 副会長

오늘 大韓建築士協會 創立(10周年)을 맞이하여 本人이大韓建築学会 全會員을 代表하여 祝辞을 올리게 된 것을 無限한 기쁨으로 여기고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祖国 光復 直後 大韓建築学会가 우리 나라 建築技術의 學術的 向上을 위하여 發足한지 今年으로 30周年을 맞이 하였고, 그後 우리 建築人의 年來의 所願이던 大韓建築士協會가 創立되어 우리나라 再建을 위하여 일하여 온지 오늘로 10年이 되었읍니다. 서로가 거의 無의 狀態에서 出發한 우리들의 會合이 오늘날 會勢가 날로 펴어 그 社會的 地位가 確固하여졌고, 우리의 協力으로 中興 30年에 不遇한 우리 祖国의 國土를 建築的으로 變貌시켰으며, 그中에서도, 특히 躍進 大韓民國의 象徴이라고 볼 수 있는 首都 서울의 20世紀의 建築景觀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社會的 寄與感과 矜持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本人은 우리 두 會의 앞날에는 우리의 또 하나의 會合인 韓國建築家協會와 더불어 큰 發展이 있을 것이라고 믿읍니다.

大韓建築士協會는 그間의 여러 試練으로 앞으로 보다나은 政府建築 行政에의 協助와 建築職業人의 福利增進을 이룰것이고, 우리 大韓建築学会는 過去의 姑息的인 學術研究에서 創意的 學術研究로 轉換 飛躍할 것이며 一方 韓國建築家協會는 더욱 우리 나라의 傳統을 살린 建築의 創作에 進一步할 것을 確信합니다.

끝으로 本人은 大韓建築士協會가 10年이라는 짧은 時日에 다른 어떤 會合보다 權威있고, 實力있는 團體로 成長된 것을 기뻐하면서 앞으로 더욱 큰 發展이 있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1975年 10月 23日

〈代讀·威性權 副會長〉

祝 辭

崔泰涉

韓國 유리 工業株式會社社長



來賓으로 祝辭하는 崔泰涉社長

尊敬하는 建築士 會員 여러분!
그리고 來賓 여러분!

오늘 이 뜻 깊은 協會 創立 十周年의 慶祝式에서 不肖한 사람으로 하여금 祝辭를 할 수 있게 해 주신데 對하여 會長任 以下 여러 任員과 會員 여러분에게 眞心으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貴協會가 오늘로서 十周年을 마지한데 對한 그 意義는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建築 實務界에서는 唯一한 團體인 建築士 協會가 우리나라 建築界의 發展에 功獻한 그 業績은 自他가 다 公認하는 바 임으로 더 무슨 말씀을 드릴 必要가 있겠습니까 마는 저로서는 오늘의 協會가 되기까지는 많은 努力과 숨은 애로를 타게 하였을 것입니다.

本人 亦是 유리라고 하는 建築 資材의 한 品目을 生産하는 立場에서 볼 때 貴協會의 發展이 곧 國家의 發展이요 社會의 發展이며 따라서 우리 資材 業界의 發展이라는 共通되는 運命 路線에 있고 보니, 本人은 恒時 建築士 會員 여러분에 對한 感謝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바입니다.

尊敬하는 建築士 會員 여러분!

國家의 發展에는 그 누구보다도 맨 先頭에서 지휘하며 이끌어 주시어 보다 새로운 設計와 創意力으로 우리 國民들이 하나 같이 아름답고 짜임새 있는 環境과 살기좋은 建築物에서 즐겁게 일하며 휴식할 때 國民들은 더욱 여러분에 對한 尊敬心과 偉業에 對한 認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韓國 建築界에서 世界의 建築界로 向한 先導的인 地位를 더욱 굳혀서 전통 있는 民族의 긍지를 萬邦에 과시 해 주실 것을 바라며 創立 十周年을 맞는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더 많은 공헌과 協會의 發展이 무궁해 질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建築士 會員 여러분의 각 家庭마다 幸運과 光榮이 항상 길이 하시길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沿革 및 現況報告

李圭福 總務理事

1. 創 立

- 1). 1963년 12월 6 일 字 法律 第1536호로 公布 實施된 建築士法 第6章에 規定한 바에 따라 建築士로서 地方長官에게 事務所、開設登錄을 한者を 會員으로 하는 特殊法人 大韓建築士協會를 設立할 근거가 마련됨.
- 2). 1965년 4월 25. 26兩日間에 걸쳐 建設部에서 實施한 建築士 資格試驗에 合格하여 建設部長官의 免許를 받고 地方長官에게 事務所開設 登錄을 完了한 建築士 故 金舜河外 10人이 發起人이 되어 1965년 7월 6 일 發起人總會를 갖고 總務、運營、財政의 3個 委員會를 構成하고 創立 總會의 準備作業을 完了하였는바 發起人 名單은 다음과 같다.
金舜河、金在哲、張起仁、車景淳、姜奉辰、宋政求、韓昌鎮、朴春鳴、安仁模、金鍾植、裴基濤
- 3). 1965년 9월 25일 會員 213名이 參席한 創立總會와 1965년 10월 23일 會員 128名이 參席한 創立總會 統開會議에서 初代 會長에 故 金舜河氏 選出 등 任員 陳을 構成하는 한편 定款 및 倫理規約、倫理委員會 規程、支部運營規程 등 諸 規程을 制定함.
- 4). 1965년 2月3日 建設部長官의 協會設立認可 및 任員 就任承認을 받고 同年 12月3日付로 서울 民事地方 法院에 法人體 登記를 完了하고, 서울 특별시 中區 會賢洞 3街 2番地의 主 事務所에서 業務를 正式 開始함.
- 5). 1965년 7月30日 부터 同年 12月13日 사이에 다음 의 11個支部를 設定함.

서울특별시 支部 부산직할시 支部
京畿道 支部 江原道 支部
忠北道 支部 忠南道 支部
慶北道 支部 慶南道 支部
全北道 支部 全南道 支部
濟州道 支部

2. 任員을 歷任하신 분들

1) 會長을 歷任하신 분

初代 會長 金 舜 河 5代 會長 姜 奉 辰
2代 會長 張 起 仁 6代 會長 姜 大 雄
3代 會長 金 在 哲 7代 會長 韓 昌 鎮
4代 會長 姜 明 求

2) 理事 및 監事을 歷任하신 분

金 在 哲 具 珩 會 宋 基 德
姜 奉 辰 金 鎮 千 慎 珩 範
張 起 仁 李 奉 魯 宋 寬 植
安 仁 模 李 鍾 壽 金 源 安
車 景 淳 姜 明 求 韓 昌 鎮
金 東 珪 安 瑛 培 金 鍾 植
金 榮 朴 朴 永 晚 金 仁 模
尹 希 俊 李 鍾 泰 徐 廷 達
金 枝 泰 李 東 煥 吳 雄 錫
康 晉 參 柳 光 澤 李 明 煥
李 春 相

3. 現 任 員 名 單

會長 韓 昌 鎮
總務理事 李 圭 福
理事 李 丞 雨 朴 成 圭
李 興 秀 成 一 永
監事 尹 希 俊 康 晉 參

4. 支部長 名 單

서울 支部 金 萬 盛 全北 支部 崔 錫 珪
釜山 支部 金 圭 泰 全南 支部 蔡 奎 鎬
京畿 支部 鄭 銀 溶 慶北 支部 李 根 庫
江原 支部 趙 奎 植 慶南 支部 尹 商 鳳
忠北 支部 鄭 鎮 億 濟州 支部 康 奇 汀
忠南 支部 金 鍾 敏

會 館

지난 10年間 우리 會員一同은 各 支部別로 各己 會館을 마련하겠다는 念願에 불타 基金을 積立하는 등 피나는 努力을 계속한 보람이 있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各 支部마다 相當한 進척을 보이고 있는바 其中 이미 3個의 會館은 開館을 보았고 1個 會館은 今年末에 開館할 예정인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本部 및 서울市支部 會館

- ① 所在地 서린동 89
- ② 地 址 및 建坪 地 76坪 建 200坪
- ③ 構造 및 層數 철근콘크리트造 4層

2. 忠南支部 會館

- ① 所 在 地 : 大田市大興洞 487-1
- ② 地 址 및 建坪 : 地 61坪 建 242坪
- ③ 構造 및 層數 : 철근콘크리트造 6層

3. 全南支部 会館

- ㉠ 所在地: 光州市大仁洞 323의 11
- ㉡ 地 坪: 建坪 340坪
- ㉢ 構造 및 層數: 철근콘크리트造 6層

4. 京畿支部 会館(75年末 開館予定)

- ㉠ 所在地: 수원시 배산로 3가
- ㉡ 地 坪: 建坪 115坪
- ㉢ 構造 및 層數: 철근 콘크리트造 3層

現 況

1. 会 員

創立 当時 422명이든 會員數는 1975년 9월말 現在 1523명으로 늘어났음.

2. 支部 및 分所 代議員數

支部 11個 支部

分所 50個分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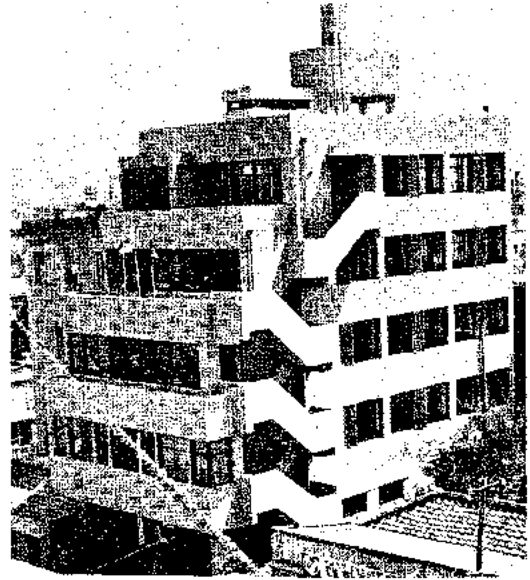
代議員數 206名

3. 主 事務所의 移轉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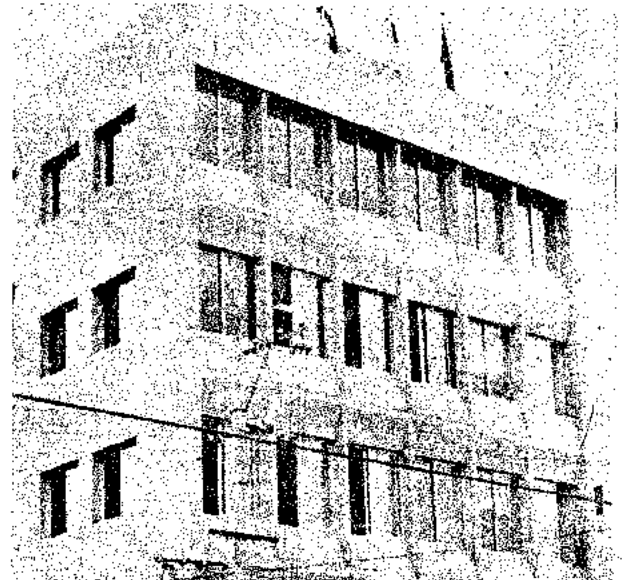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中区 會賢洞 3가 2번지에서 1966년 2월19일 中区 北倉洞94의12호로 移轉.
2. 1966년 7월 2일 中区 武橋洞33의 1로 移轉
3. 1967년 11월 20일 中区 乙支路 1가 25로 移轉
4. 1972년 3월 25일 서울시 中区 太平路 1가 60-17로 移轉.
5. 1974년 7월 15일 서울시 鍾路区 서린동 89번지의 현 會館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支部와 同時에 移轉 現在에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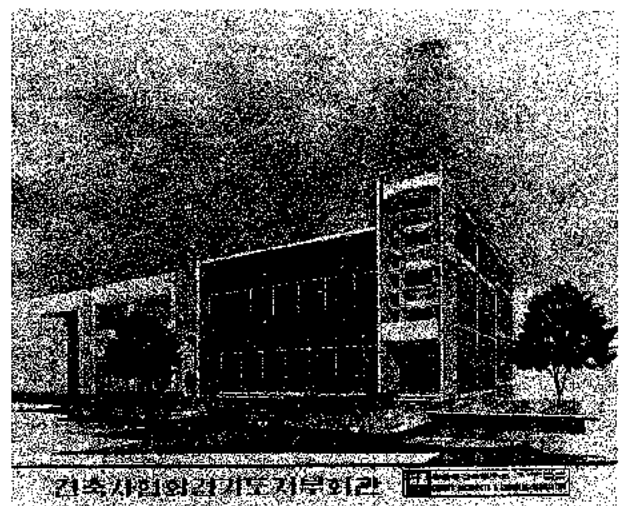
• 本協會 會館全景



• 忠南支部 建築士會館



• 全南支部 建築士會館



• 京畿道支部 建築士會館(工事中)

創立10周年紀念 協會賞 審査經過報告

李 丞 雨 理事

오늘 본회 創立 10周年 紀念 및 1975年度 大韓 建築士 協會賞을 贈呈함에 있어서 審査委員名單과 審査經過를 報告하겠습니다.

1. 審査委員

1975年 9月29日 第19回 理事会에서 協會賞 審査 委員을 다음과 같이 選任 委嘱하였습니다.

1) 作品 審査委員(敬稱略)

宋旼求, 姜明求, 金壽根, 劉希俊, 李丞雨

2) 論文審査委員

尹道根, 李文補, 李興秀, 李廷德, 李丞雨

2. 審査經過

協會賞에 대해서는 候補의 公募 및 추천을 會誌에 公告하여 넓게 會員에 호소한 外에 各 建築關係団体와 研究機關에도 周知에 힘써 그 結果 建築作品 41點, 論文 42點, 計83點의 候補가 提出되어 各審査委員會가 審査에 臨했습니다.

各審査委員會에서는 審査內規에 依하여 各各의 資料에 따라 慎重한 審査를 行하여 그 結果 建築作品 4點, 論文 1點이 10周年紀念 建築士協會賞으로 表彰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制度의 實施에 協力을 하여주신 各 方面 및 審査委員님들께 이 機會에 심심한 謝意를 表합니다.

3. 審査結果 発表

1) 作品部門 (敬稱略)

大 賞	〈國立劇場〉	서울	이 희 태
協會賞	〈노량진교회〉	서울	김 정 식
優秀賞	〈住宅〉	마산	김 호 일
優秀賞	〈대구시민운동장〉	대구	윤 태 식

入 選 〈住宅〉	서울	유 경 철
〈住宅〉	서울	홍 철 수
〈住宅〉 (2點)	서울	김 석 철
〈住宅〉	서울	이 중 관
〈대구MBC서울탑〉	서울	장 중 을
〈청소년회관〉	대구	유 문 대
〈서울신학대학〉	서울	이 호 진
〈휴게실〉	마산	김 석 윤
〈충전대학교학생회관〉	서울	김 관 풍
〈출판문화회관〉	서울	홍 순 인

2) 論文部門

論 題 〈韓國의 營造尺度〉 윤장섭
(서울대학교 교수)

4. 授賞 추천 理由

1) 作品部門

応募 및 추천된 各候補에 對해서 審査委員 全員 贊成을 條件으로 하여 慎重히 檢討를 加하였습니다만 各候補 어느 것이나 우열을 가라기에 힘든 作品이었습니다.

그래서,

今年에는 30년에 걸쳐 建築設計에 종사하고 現在에도 活躍하고 계신 李喜泰 會員任게 建築設計의 發展에 寄與한 貢獻에 對하여 建築大賞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協會賞(作品部門)에 對해서는 끝까지 大賞候補로 남았고 審査委員會로서는 最後까지 當落을 決定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서 關係者에 敬意를 表합니다.

2) 論文部門

候補論文은 材料、施工部門, 構造部門, 建築計劃部門, 都市計劃部門, 建築歷史部門 計 42題이었으나 어느 것이나 發表者의 多年의 成果를 정리한 것이고 內容의 充實과 더불어 學術上의 水準도 大端히 높았습니다.

審査에 있어서는 審査委員께서 各論文에 對해서 慎重히 檢討를 加했습니다만 專門分野가 다른 論文의 우열을 比較하는 것은 極히 困難하고 특히 今年度は 첫번째 論文賞이기 때문에 審査는 難行하였습니다.

限定된 表彰數 속에 嚴選한다는 뜻에 따라 各 審査委員의 努力에 依하여 1編의 論文을 選出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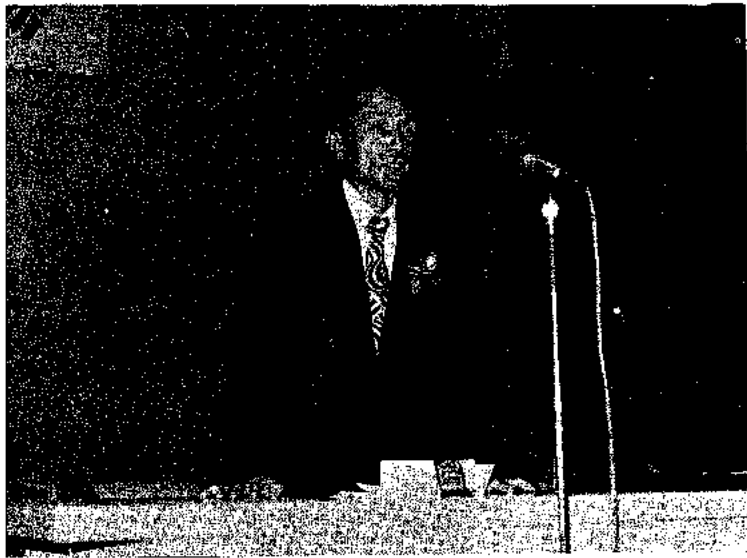
3) 業績部門

本部門에 있어서는 추천 응모된 業績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協會賞의 權威를 올린다는 뜻에서도 이번에는 該當 없음으로 하는 것이 全委員의 意見이 一致 하였습니다.

1975年 10月 23日 판 코리아에서

本協會 創立 10周年 紀念式이 10月 23日 上午 11時 內市 판코리아 (旧乙支劇場)에서 金周南 建設部次官을 비롯 來賓多數와 全國 會員 等 800余名이 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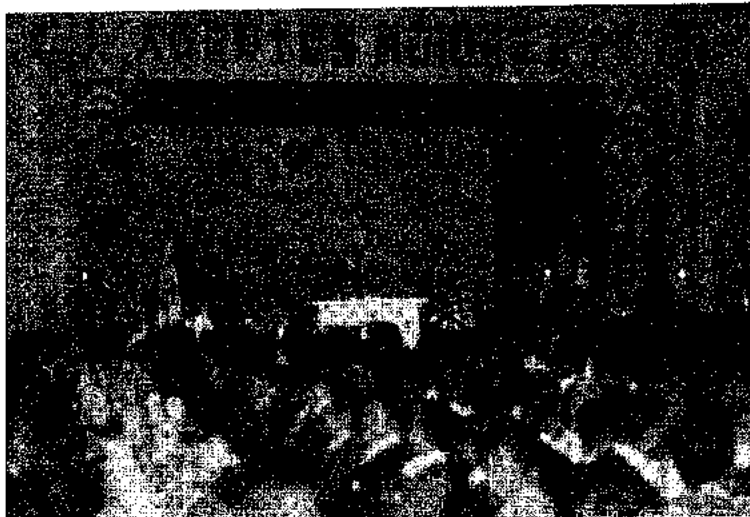
이날 紀念式에서는 金載圭 建設部長官(南德鉉 住宅都市局長 代讀)의 致辭와 大韓建築學會 金熙春 會長(咸性權 副會長 代讀)의 祝辭와 韓國유리 崔泰涉社長의 祝辭에 이어 創立 10周年 紀念 會員作品 施賞과 長期勤績 및 有功 任職員에 對한 表彰 및 優秀 施工業體에 對한 施賞이 있던 후 12時 30分에 閉會되었다. 아울러 中食后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文化映画上映이 있었으며 午後에는 仁川 “韓國유리”와 仁川港 갑거 (INCHEON LOCK)의 産業視察 后 仁川올림픽포스 관광호텔 메인룸에서 韓國유리”에서 베문 즐거운 祝賀 작텔 파티가 있었다.



紀念辭臺 하는 韓品鎮 會長



人事말씀을 하는 金周南 建設部次官



本協會 創立 10週年 紀念式 光景



建設部長官 致辭臺 代讀하는 南德鉉 住宅都市局長 (이날 國會出席으로 金載圭建設部長官께서는 參席치 못하셨습니다)



協會沿革을 報告하는 李圭權 總務理事



紀念式 壇上 左로부터 南德鉉(住宅都市局長) 金周南(建設部次官) 韓昌鎭(本協會長)



會員作品 審査經過報告을 하는 李丞雨理事



國民教育憲章을 낭독하는 李興秀 理事



▲ 本協會 歷代會長 右로부터 姜泰辰, 姜明求, 金在哲, 張起仁, 韓昌鎭 會長과 金周南 建設部次官.
▼ 協會有功 任員表彰牌을 받는 慶北支部 李根宰支部長



▲ 前任會長團長 代表하여 張起仁 2代 會長の 祝辭 光景.
▼ 協會 長期奉仕 任員 表彰牌을 받는 서울市支部 吳梟 監事





創立10週年 紀念 會員作品 部門에서 大賞을 받은 李喜泰 會員 (作品名 國立劇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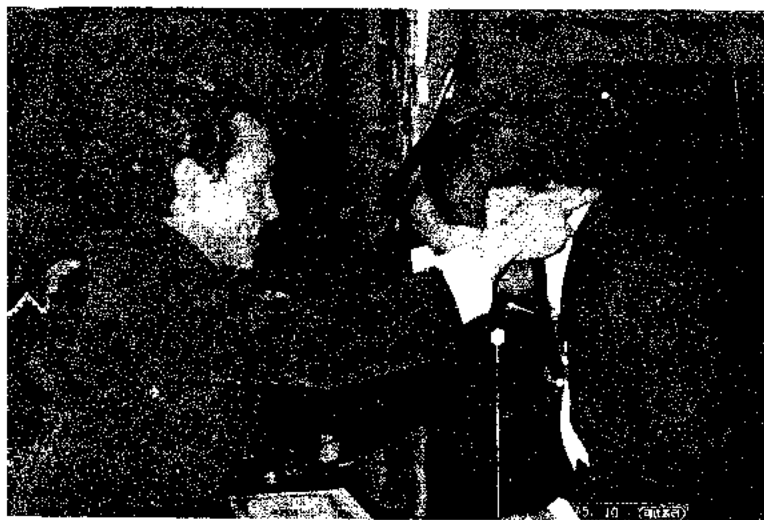
協會賞을 받은 金正湜會員 (作品 노랑진교회)



優秀賞을 받은 金承一會員 (馬山) (作品·住宅)



優秀賞을 받은 尹承植 會員(大邱) (作品 大邱市民運動場)



▲ 論文分野에서 協會賞을 받은 尹承植교수 (論文, 韓國의 宮造尺度)
▼ 이날 紀念式場은 800余名の 來賓과 會員으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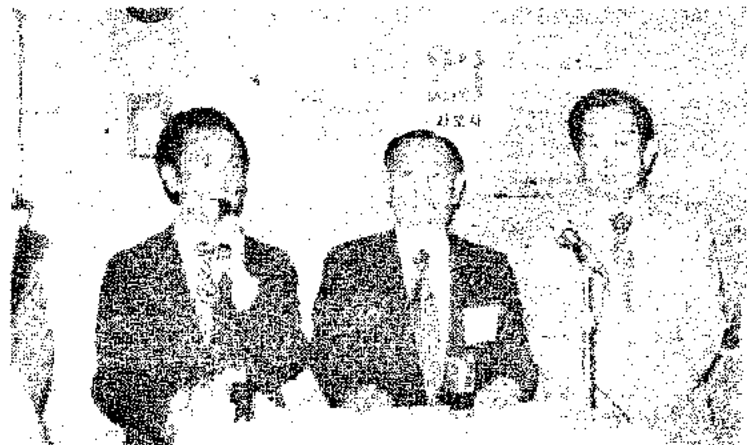


▲ (入賞者名單) 俞景哲(서울) 張宗律(서울) 柳文大(慶北) 李好璣(서울) 金石奎(濟州)
金寬璽(서울) 洪淳寅(서울) 洪哲洙(서울) 金錫澈(서울) 李鍾寬(서울)
▼ 민세 삼창을 前任 金在哲 會長에 의해 제창되었다. ① 대한민국민세.
② 대한건축시험회 민세 ③ 대한건축사 민세





● 同 부리깅을 듣고 있는 會員들. <한국유리에서>



● 락테일 파티장에서 答辭의 人事말씀을 하는 韓昌鎭 會長 그 옆에 崔泰涉社長과 卞一均 專務



● 韓昌鎭 會長과 崔泰涉社長을 迎見하는 會員들



● 韓國유리 生産過程을 視察하는 會員들



● 仁川 올림픽관광호텔 메인 홀에서의 락테일 파티 光景
● 同파티장에서 右로부터 崔泰涉社長 韓昌鎭 會長, 洪大植副社長 權益善 次長



● 同 파티場 右로부터 崔泰涉社長 韓昌鎭 會長, 朴成圭理事 洪大植 한국유리 副社長
● 産業視察團을 태우고 온 5 台의 서울고속 관광버스



大韓建築士協會 創立10周年 紀念 會員作品 展示會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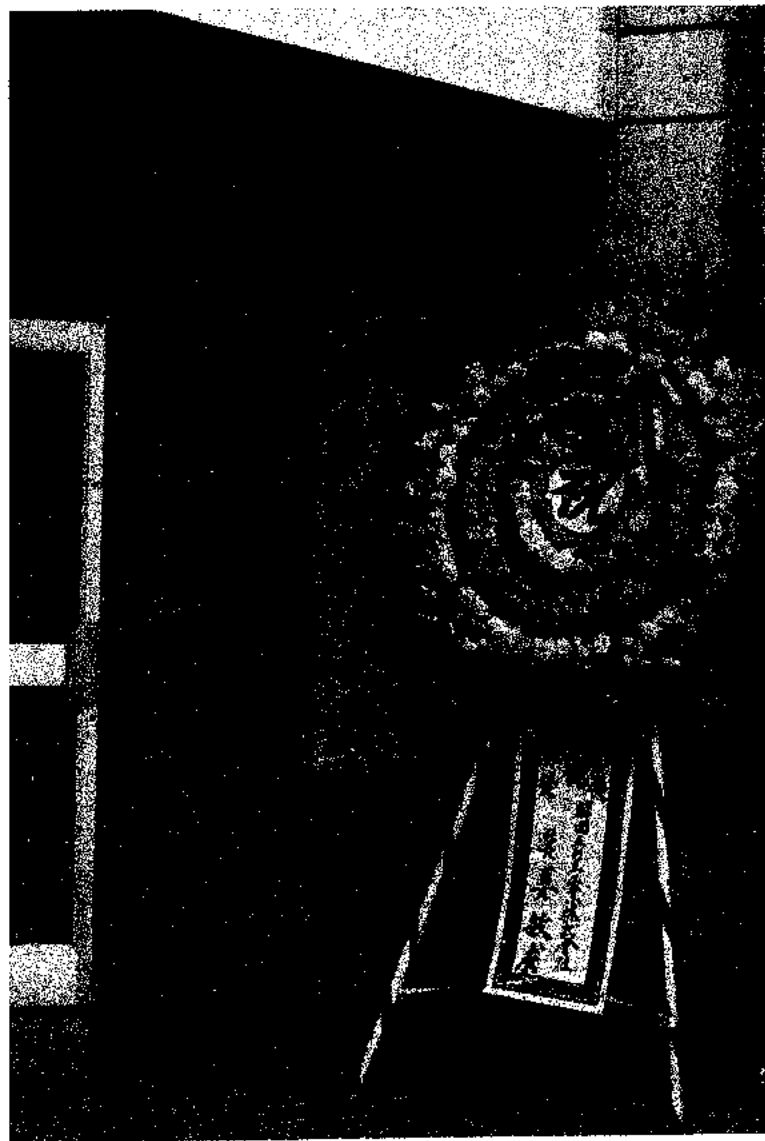
本協會 1 層 展示場에서 10. 23 ~ 11. 7

本協會 創立10周年 紀念行事의 一環으로 全國會員에게서 募集한 42點中 入選作16點의 展示會가 本協會 1 層 展示場에서 10月 23日부터 11月 7日까지 (16日間) 一般에게 公開展示 되고있다.

▼ 展示會 開場 테일을 끊는 光景 左로부터 李圭福 總務理事 張紀仁 前任會長 韓昌鎭會長 姜奉辰前任會長 李丞雨理事



▼ 同 芳名錄에 서명하는 韓昌鎭 會長



▼ 同 展示場 光景



大韓建築士協會 第10回 定期總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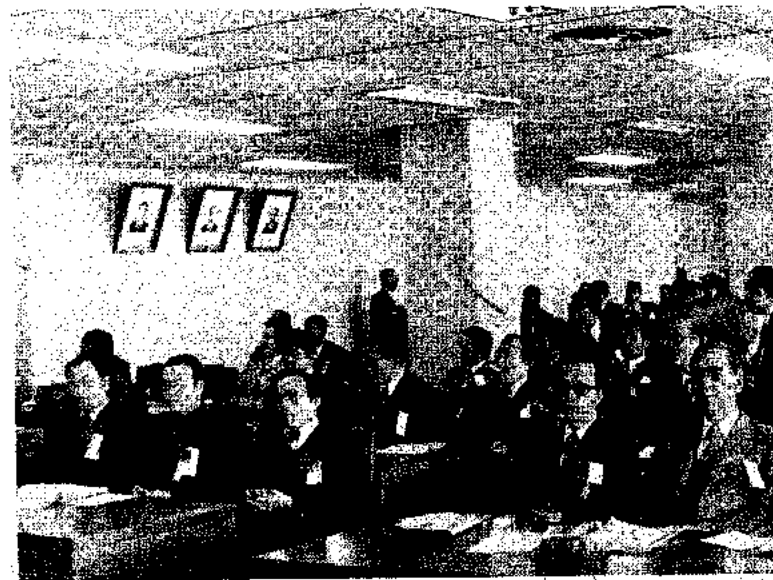
10月31日 國民銀行 大講堂에서

本協會 第10回 定期總會가 지난 10月31日(金) 上午10時 國民銀行 大講堂에서 全國 代議員 206名中 192名 出席한 가운데 韓昌鎭 會長 主率로 開會된 이날의 定期總會는 執行部에서 上程한 定款改正案 倫理委員會 規程 改正案 1976年度 事業計劃案 1976年度 予算案 等を 一部 修正 通過시킨후 任期가 滿了된 韓昌鎭 會長, 李圭福 總務理事, 李丞雨理事, 康晉參 監事に 그동안의 業績을 致賀한 후 任員選出에 들어갔다.

이날 第8代 會長으로는 李圭福 前 總務理事가 當選되었으며, 新任 理事에는 金正澈, 金鎭成 兩氏와 新任 監事에는 朴來運氏가 各 被選되었다.



• 開會辭舊 하는 韓昌鎭 會長



• 全國 代議員會



• 國民敎育勳장을 贈與을 하는 成一永理事





• 業務報告를 하는 李生福 總務理事



• 事業報告를 하는 朴成圭 理事



• 추대회원 추대光 敬



• 감사보고를 하는 康晉參 監事



• 감사보고를 하는 尹希俊 監事



• 任期滿了 任員 (左로부터) 李生福 李丞雨 康晉參 韓氏



• 本協會에서 建議한 建築士法 및 建築士業務報酬改正案에 對한 建設部 當국의 進行情정을 解明하는 金章振 事務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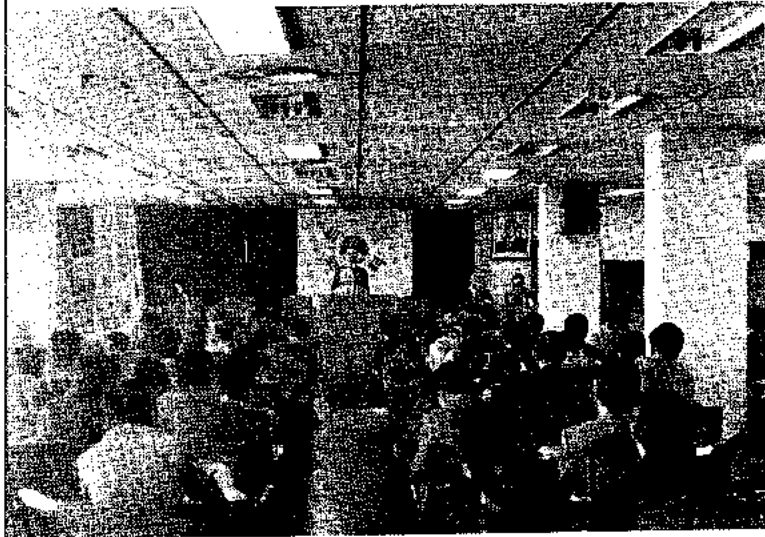
• 發言하는 金在哲 前會長



• 発言하는 李根厚 代議員 (慶北)



• 発言하는 李審相 代議員 (서울)



• 発言하는 黃在孝 代議員 (釜山)



• 発言하는 李相哲 代議員 (江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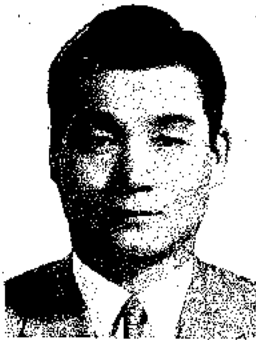
• 任員改選 早표지를 전달하는 韓昌鎭 会長
• 離任하는 韓昌鎭 会長에게 花環을 贈呈하는 光榮



• 全国代議員들
前任 韓昌鎭 会長이 新任 李圭福 会長에게 花環을 結어주고 있는 모습



就任人事



菊香이 그윽한 이때 全国會員任들의 尊體 錦安하심과 營爲하시
는 事業이 더욱 繁昌 하시기를 祈願하면서.

淺學菲才인 本人이 지난번 第10回 定期總會에서 全国會員任들의
過分한 聲援으로 第8代 會長에 被選되어 莫重한 所任을 맡게 된
데 對하여 感謝드립니다. 本人은 會長의 職務를 誠實果敢히 遂行
하는 것만이 本人이 할수있는 그리고 하여야할 全部라고 確信하여
여러분들의 期待에 어긋남이 없는 職務遂行을 거듭 다짐하는 바입
니다.

然이나 總會席上에서도 本人의 所信을 밝혀드린바 있는 앞으로
會長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는 全国會員任들과 많은 先輩任들이
피땀흘려 쌓아올린 協會 10年の 傳統을 繼承 發展시켜 會員任들로
부터는 信賴받는 協會를 이룩하고 社會의으로는 公信力을 더욱 昂
揚하여 協會의 礎石을 磐石위에 올려놓는데 全心力을 다 하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會員任들과 더욱 密着하는 會長이 되어 會員任들과 같
이 울고 같이 웃으며 會員任들의 權益 擁護와 福利 增進을 위하는
모든 일에 先頭에 설것을 確約합니다.

끝으로 本人은 會員任들의 積極的인 指導鞭撻과 協助下에 위하
서 말씀드린 本人의 所信과 方針을 政治的 外交的 次元에서 行動
으로 實踐하는 旗手가 되고자 합니다.

不足未洽한 点이 많은 本人이지만 本人이 맡은바 所任을 다할수
있도록 全国會員任 들의 아낌없는 聲援을 다시한번 부탁 드리면서
우선 就任人事에 가름하고저 합니다.

1975年 11月 日

大韓建築士協會

會 長 李 圭 福

〈特 輯〉

創立10周年紀念 會員作品紙上展

大 賞

作品名：国立劇場

建築士名：李 喜 泰

〈李喜泰建築研究所〉

協會賞

作品名：노랑진교회

建築士名：金 正 湜

〈(株)正林建築〉

優秀作

作品名：大邱市民運動場

建築士名：尹 泰 植

〈大邱 合同 建築〉

優秀作

作品名：住 宅

建築士名：金 孝 一

〈慶南・圓都市建築研究所〉

入 選

作品名：住 宅

建築士名：俞 景 哲

〈三六建築研究所〉

入 選

作品名：大邱MBC+서울塔

建築士名：張 宗 律

〈建友社 建築研究所〉

入 選

作品名：大邱・青少年會館

建築士名：柳 文 大

〈大邱・合 同 建 築〉

入 選

作品名：서울神學大學

建築士名：李 好 璉

〈三元社 建築設計事務所〉

入 選

作品名：住 宅〈2 点〉

建築士名：金 錫 徹

〈建築設計事務所아키반〉

入選

作品名：住 宅

建築士名：洪 哲 洙

〈韓國建築文化研究所〉

入 選

作品名：崇田大學校・學生會館

建築士名：金 寬 豐

〈서울合同技術公社
金寬豐建築研究所〉

入 選

作品名：休 憩 室

建築士名：金 石 峯

〈濟州・金石峯建築設計事務所〉

入 選

作品名：出版文化會館

建築士名：洪 淳 寅

〈大宇建築研究所〉

入 選

作品名：住 宅

建築士名：李 鍾 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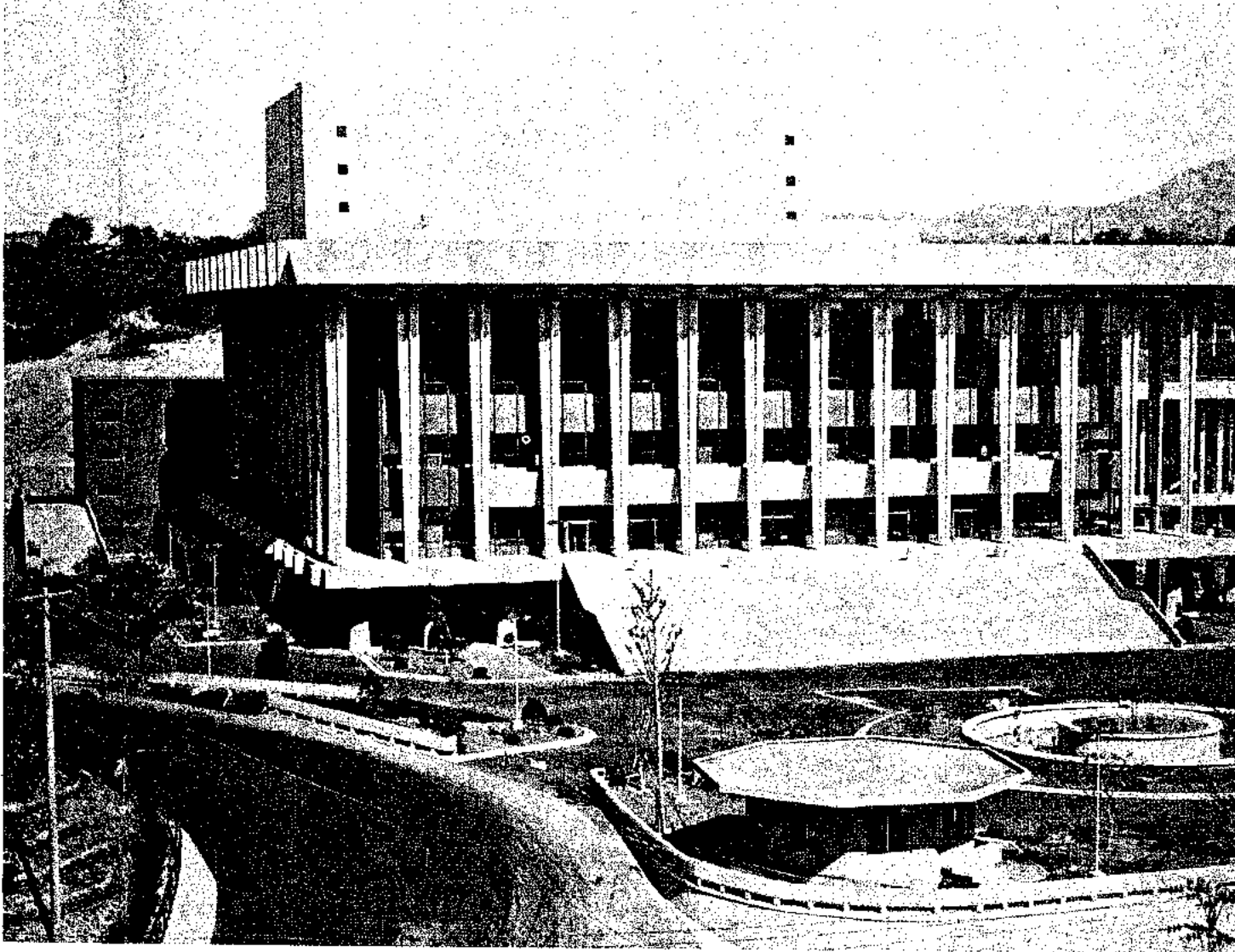
〈韓國建築技術研究所〉

大 賞

作 品 名 : 国 立 劇 場

建 築 士 名 : 李 喜 泰

〈李喜泰建築研究所〉



建築作品賞 受賞有感

※ 〈設計圖面은 事情으로 게재치 못함〉

大韓建築士協會가 創立十周 年을 紀念하여 建築作品賞을 制定한 것은 建築士協會會員은 勿論 韓國建築界의 앞날을 爲하여 意義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次에 今般 本人이 뜻밖에도 其第一回 作品賞 大賞을 受賞하오니 于先 이 作品賞制度를 마련하느라고 勞苦하신 協會任員과 關係人士 여러분께 萬강의 謝意를 표하며, 또한 많은 先輩, 同僚 建築家 諸位에는 송구스럽게 느끼는 바이다.

우리 周圍에는 무슨 賞이니 ××大賞이니 하며 賞의 制度도 많고 賞의 種類도 많어 치맛하면 賞이란 마지 무슨 C.M이 아닌가하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흔하다. 이런 때 우리는 모처럼 어려운 것 을 무릅쓰고 制定한 建築士 協會賞을 놓고 다시한번 다짐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韓國의 建築家들은 其間 많은 時 력을 적어왔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建築」이 너무나 人間과 密接해 있고, 우

리의 生活經濟와 直結되어 있는 藝術이기에 其作品活動에 있어서 도 銳敏한 反應과 制約을 받기마련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우리 建築家들에게는 無言之中에 韓國建築의 傳統의 樣式 이란 매우어려운 問題가 큰 課題로 附屬되어 있으니 이러한 것은 一朝一夕에 어느 한사람의 建築家의 힘으로만은 解決할 수 없고 모든 建築家들의 不斷한 創作 活動과 內在的인 作家의 哲學의 確立에 있어서 비로서 모색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런點에서 볼 때 建築

作品賞制度는 모든 建築家들에게 分明히 하나의 각성제가 될 것이니 이 作品賞制度를 더욱더욱 發展시켜 其權威와 價値를 높혀서 建築作品賞이 비단 우리 建築士協會會員間에서만 存在價値가 있는 게 아니라 建築界 全般에 거칠것은 勿論 韓國의 모든 文化藝術分野에서도 뚜렷한 存在가 되어야 하고, 比重이 큰 賞制度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努力해야겠다는 所信을 가지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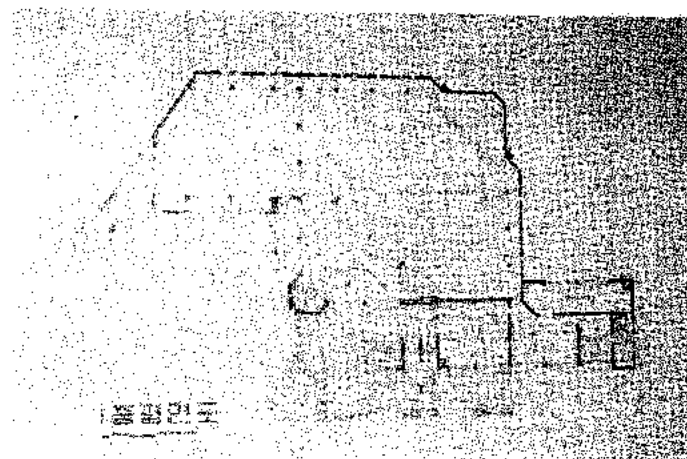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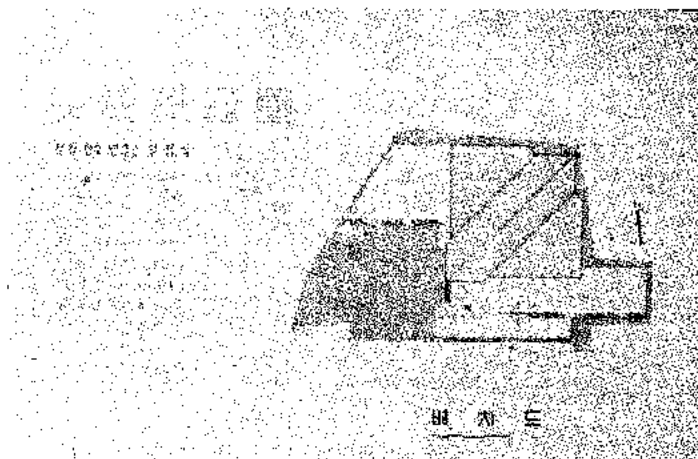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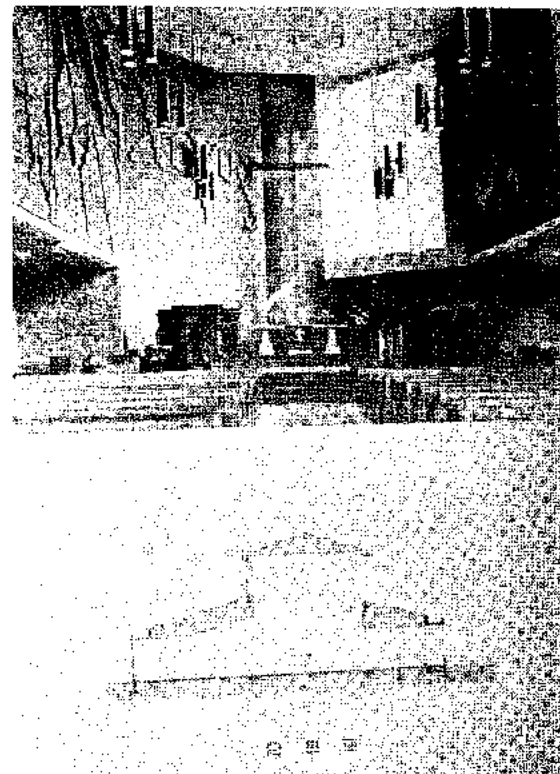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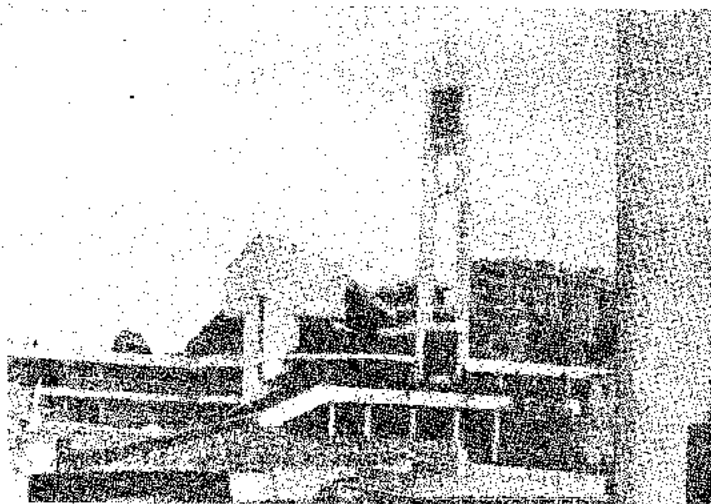
李 喜 泰

協會賞

作品名: 노량진 교회

建築士名: 金正湜

〈(株) 正林 建築〉



協會賞 受賞所感

뜻밖에 協會作品賞을 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基督敎人으로서 작은 規模의 노량진 교회로 受賞하게 된 것을 특히 기뻐한다.

나는 敎會設計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하느님의 말씀을 伝하는 가장 基本母體가 敎會이기 때문이며, 둘째 敎會는 住宅과 함께 設計하기가 힘이 들면서도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맛이 있으며, 셋째, 外部는 象徵的인 建物 即 찍어져가는 世上에 빛

과 같은 表現을 해야되며, 同時에 内部空間은 隱속하며 神秘스러운 空間을 創造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敎會設計는 작으면서도 여러가지 複合要素를 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무척 힘이드는 것 같다.

특히 믿지않는 사람이 敎會를 眞心으로 理解한다는 것은 더욱 힘이 들것 같다.

其間 兄(金正澈)과 함께 敎會設計를 약 20個所 以上을 하였는데 마음에 恰足한 것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다. 完全한 作品이 되기 위하여는 建築家는 勿論

建築工의 깊은 理解와 어느 程度의 質을 確保하기 爲하여 資金을 投資해야되며 (一般的으로 敎會新築에 資金이 貧弱할 때가 많다.) 또한 建築業者가 施工을 잘해주어 三位一體가 될 때 비로서 建物이 제대로 되는것 같다. 設計에 좋은 Idea를 많이 提供되고 또한, 設計圖 대로 施工하려고 努力한 林牧師任以下 長老任들과 施工에 專念한 不二建設과 設計를 實質的으로 担當했던 우리職員 여러분들과 이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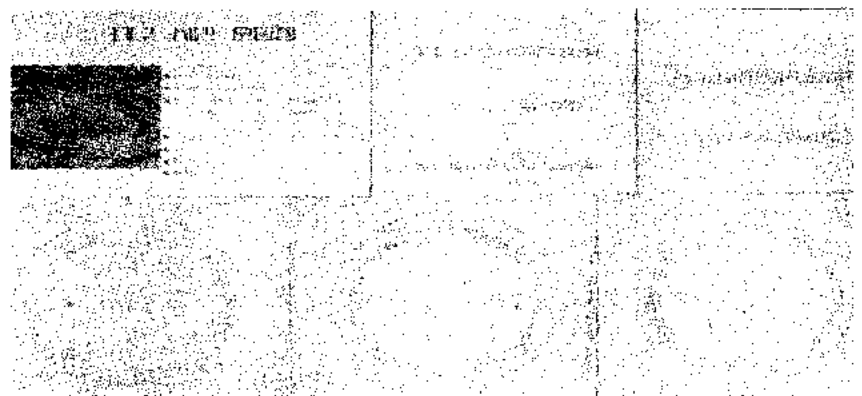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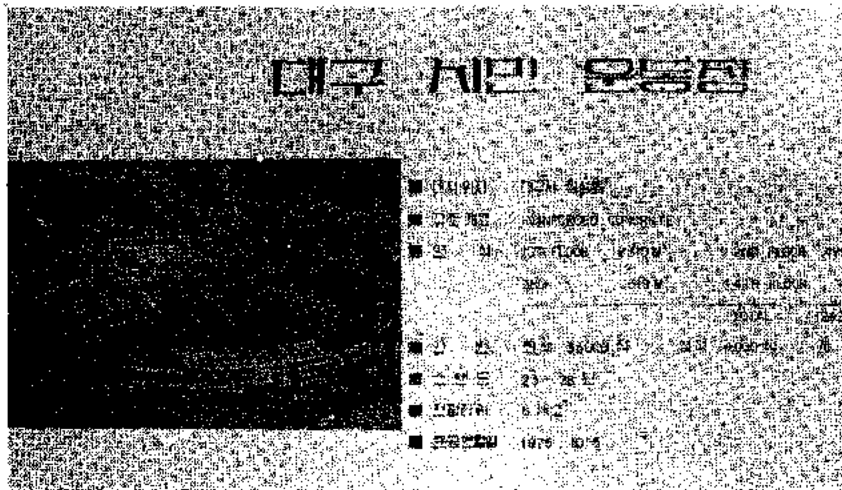
金正湜

優秀作

作品名：大邱市民運動場

建築士名：尹 泰 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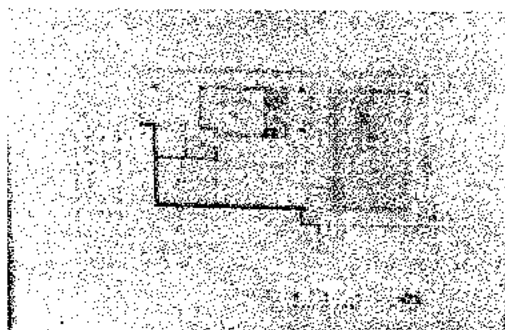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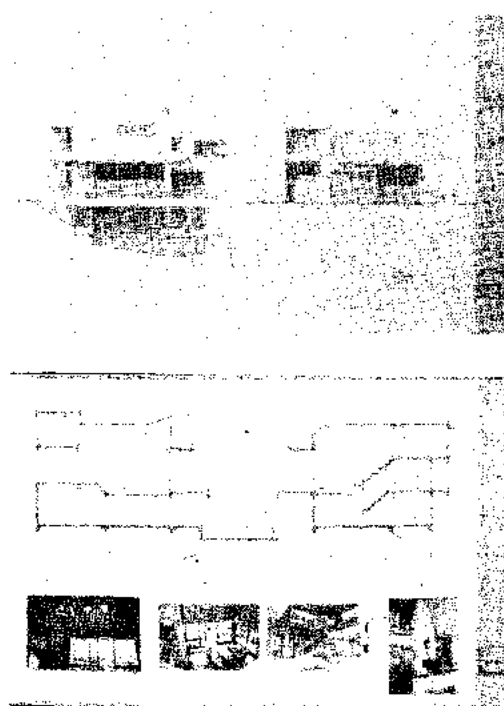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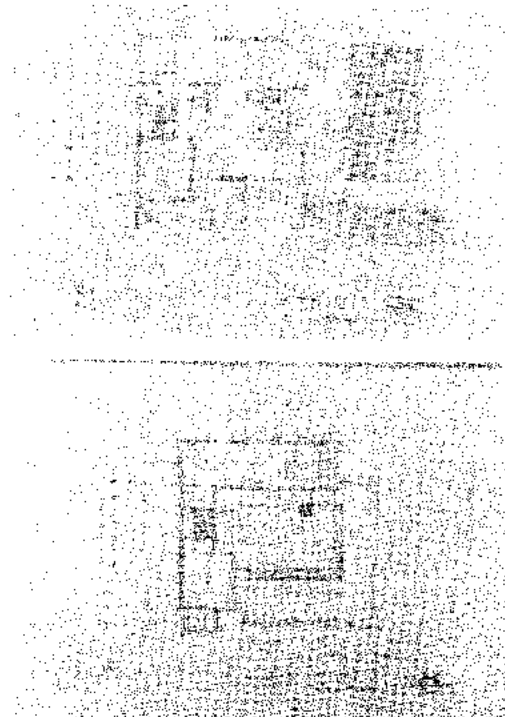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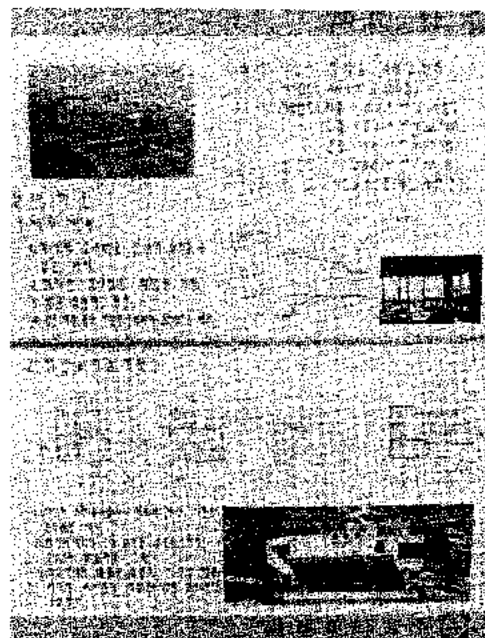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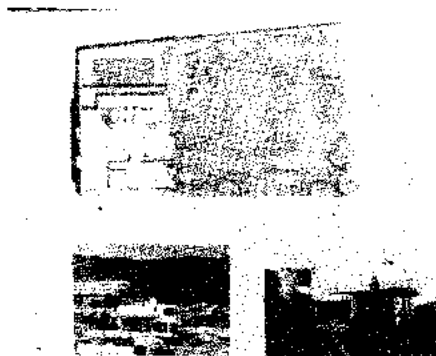
〈大邱 合同 建築〉



優 秀 作

作 品 名：住 宅
建 築 士 名：金 孝 一

〈慶南 圓都市建築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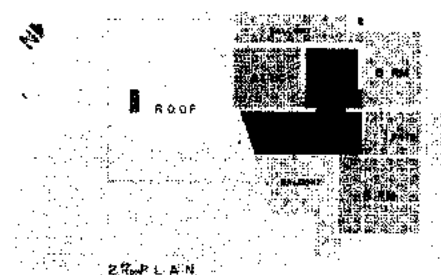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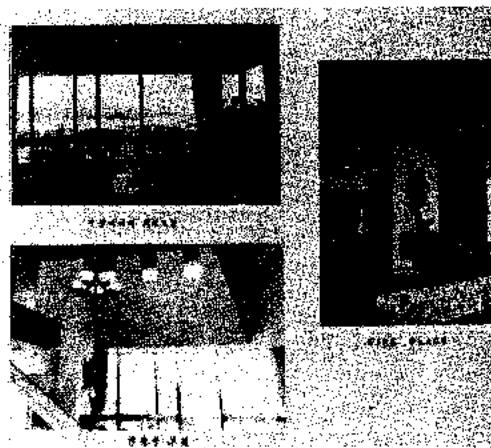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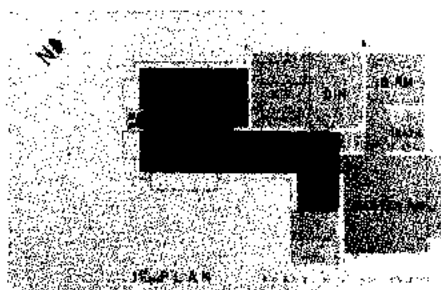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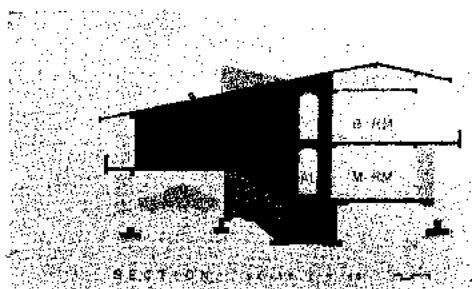


入 選

作 品 名：住
建 築 士 名：俞

景 宅 哲

〈三六建築研究所〉



入 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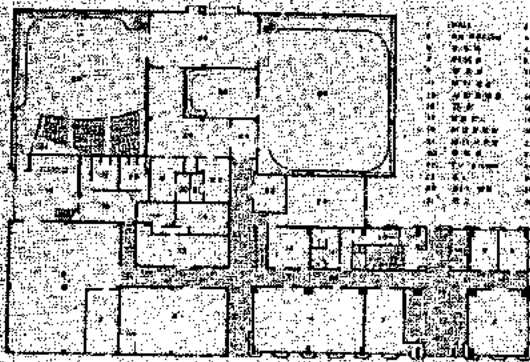
作 品 名：大邱MBC+서울塔

建築士名：張 宗 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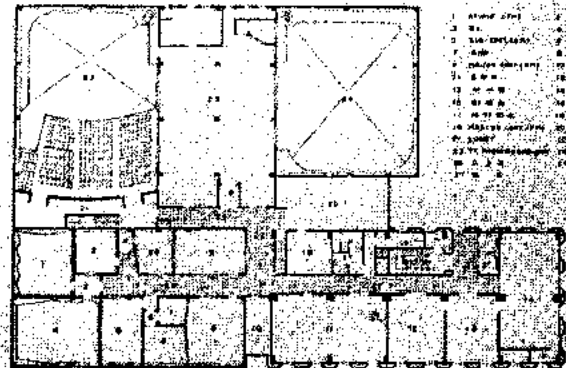
〈建友社建築研究所〉



대 구 M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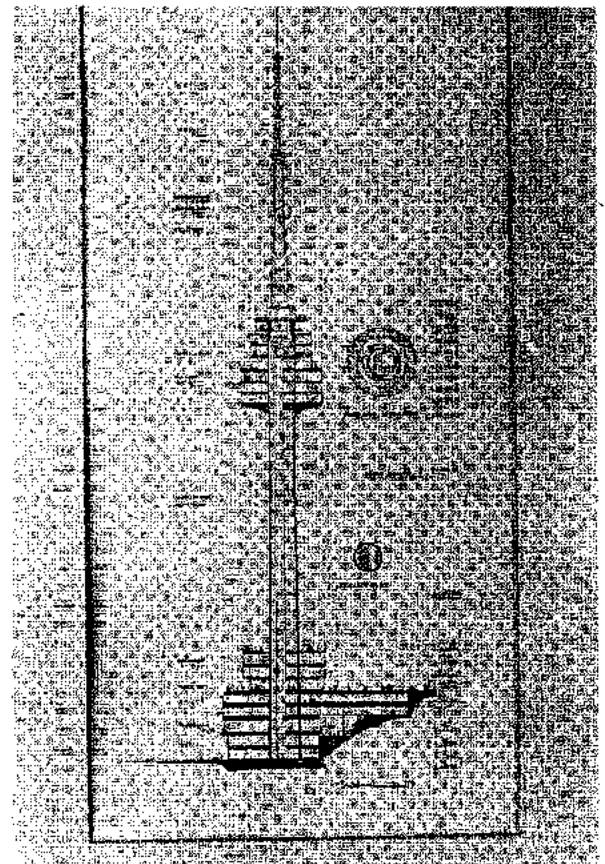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SEOUL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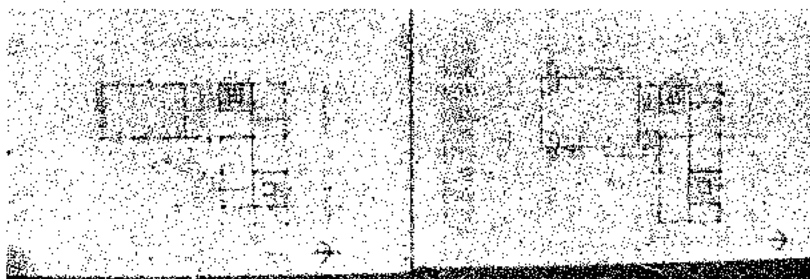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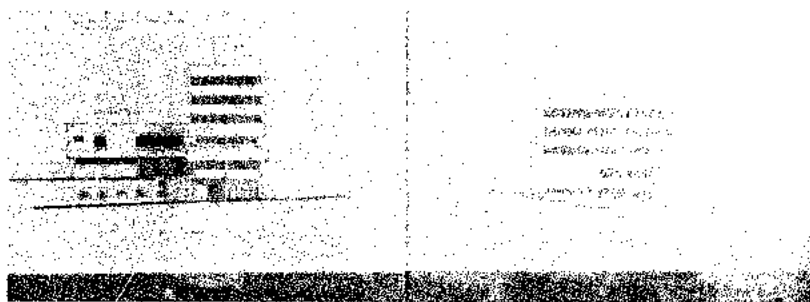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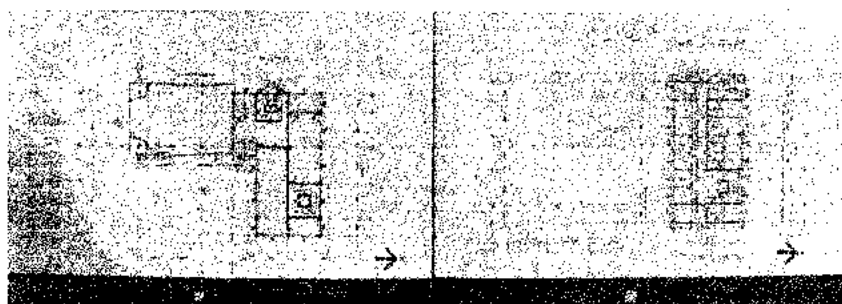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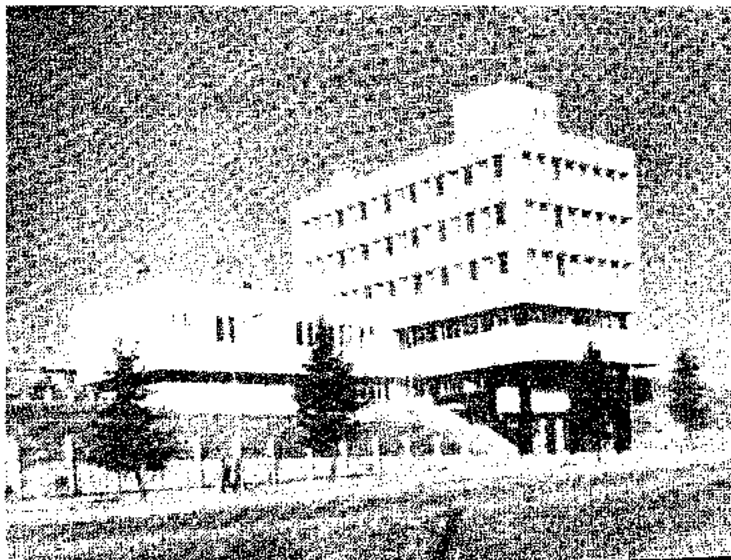


入 選

作 品 名：大邱青少年会館

建築士名：柳 文 大

（大邱 合 同 建 築）



入 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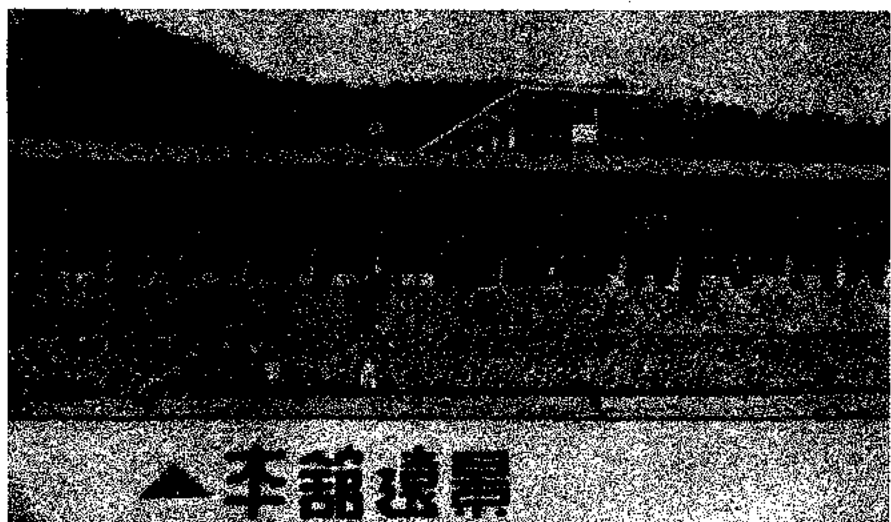
作 品 名：서울神学大学

建築士名：李 好 璉

〈三元社 建築設計事務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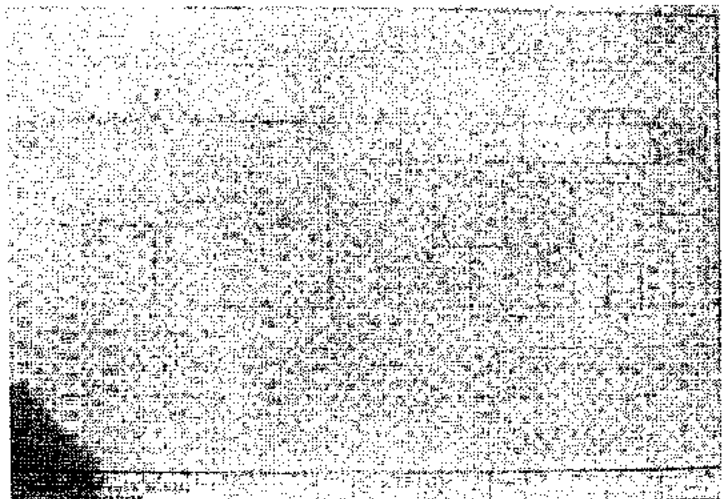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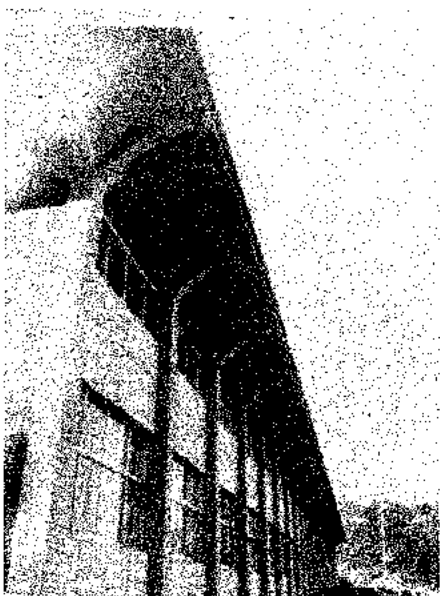
▲ 綜合計劃案透視圖



▲ 本館透視圖



▲ 引橋部透視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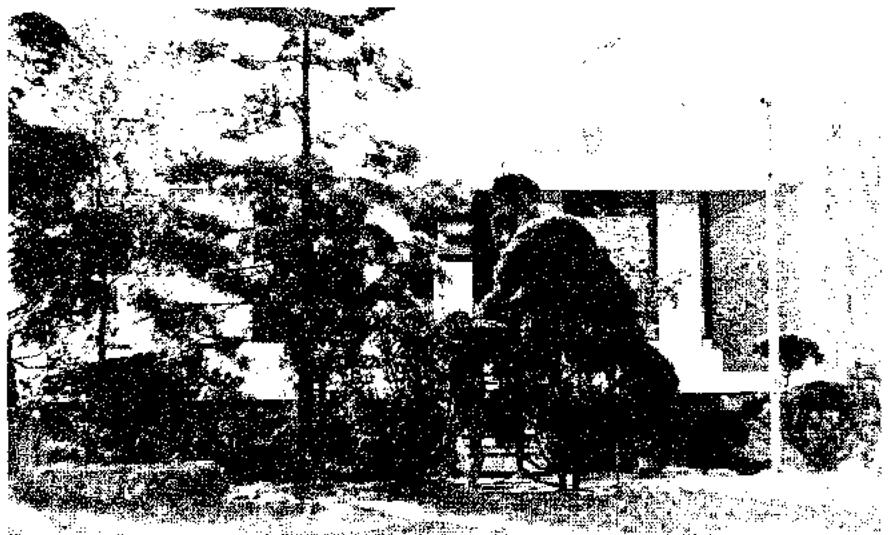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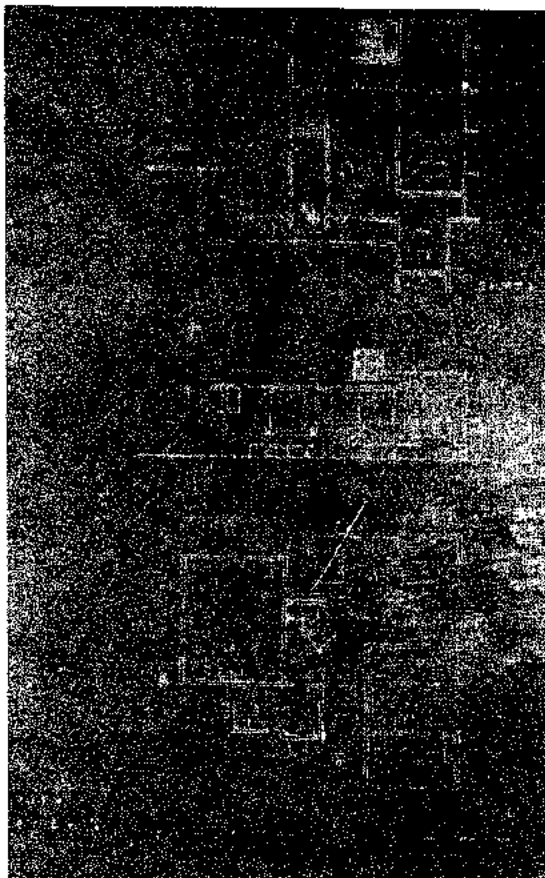
入 選

作 品 名：住 宅〈2 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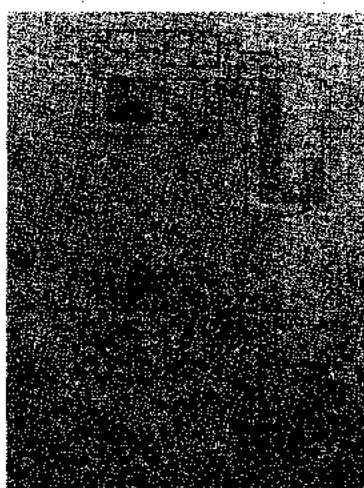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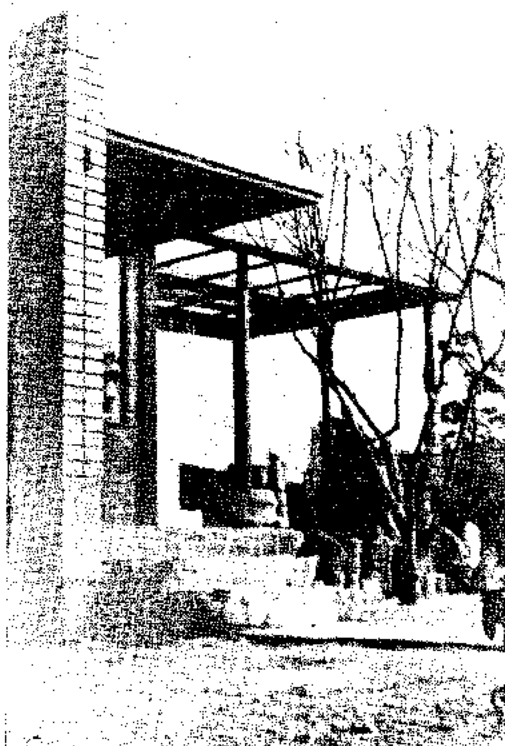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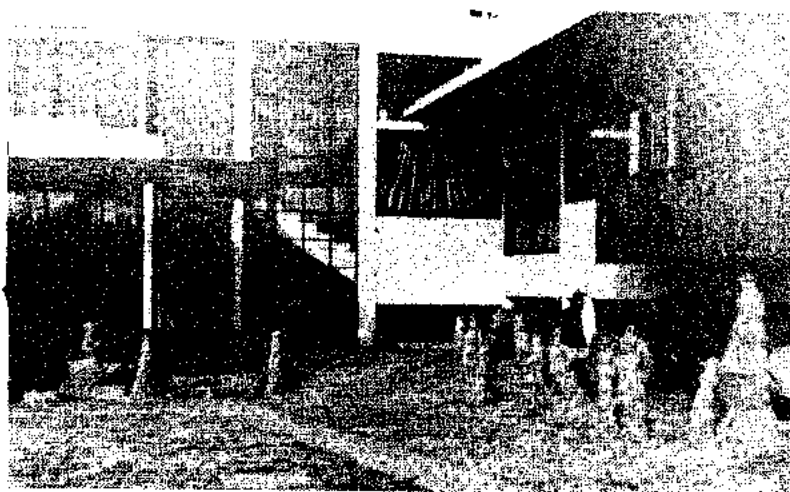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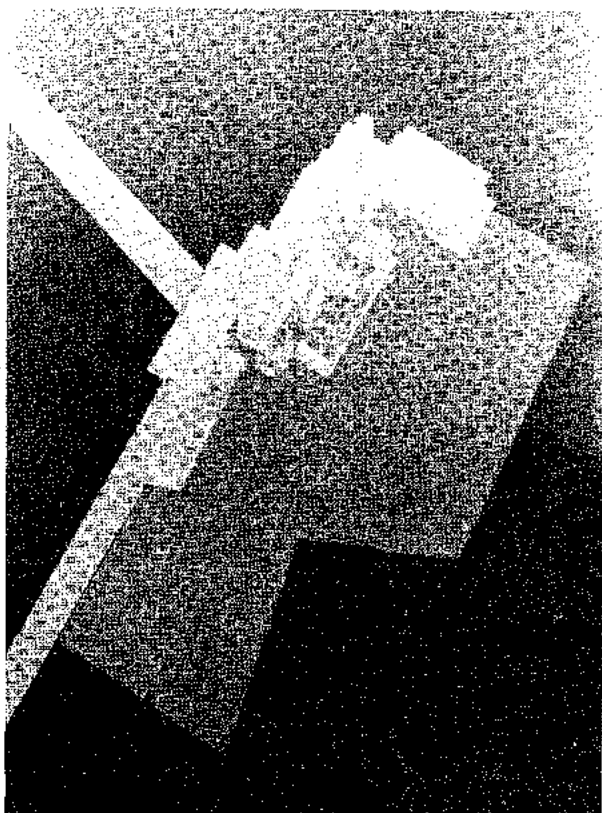
建築士名：金 錫 徹

〈建築設計事務所アキバン〉

住宅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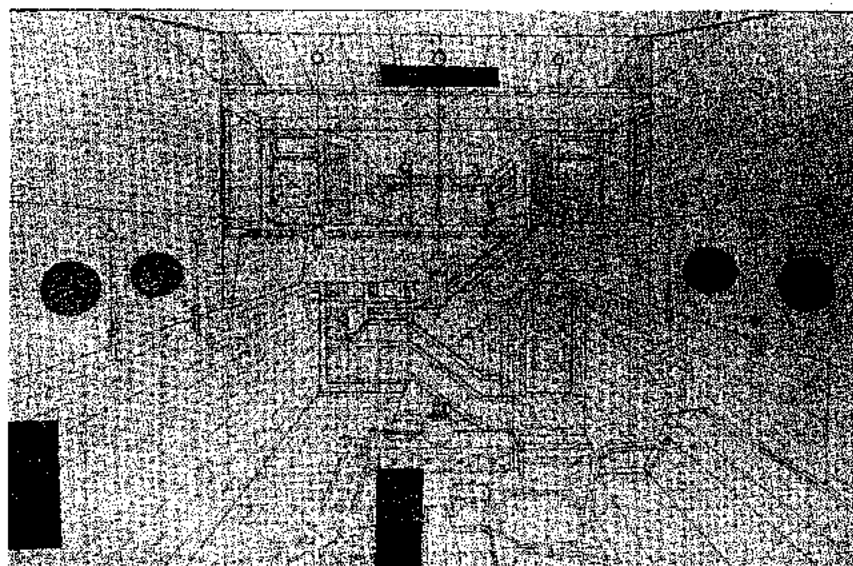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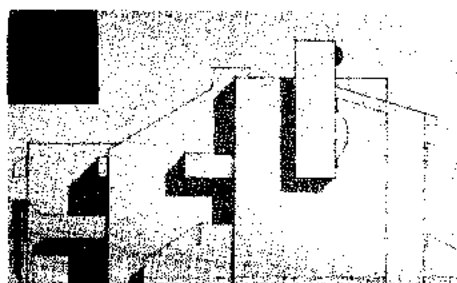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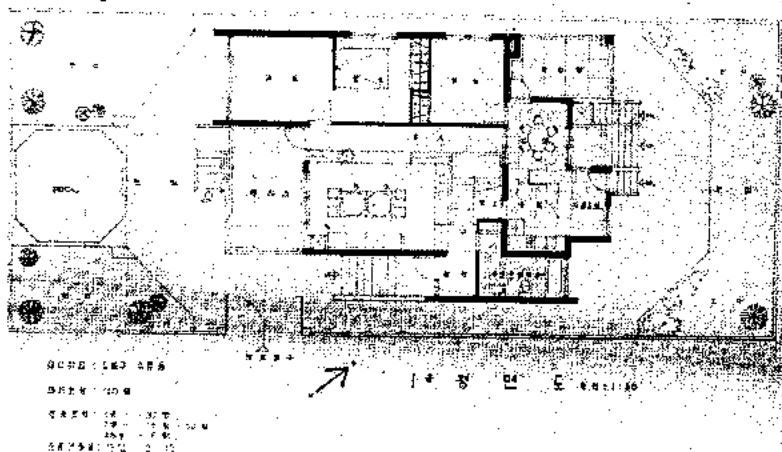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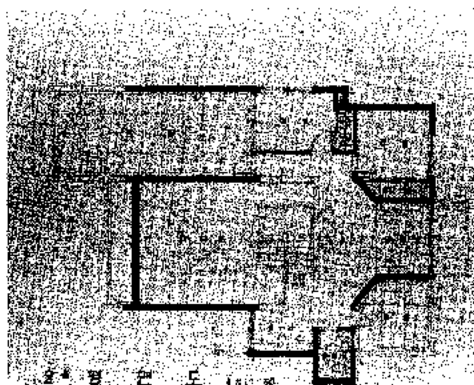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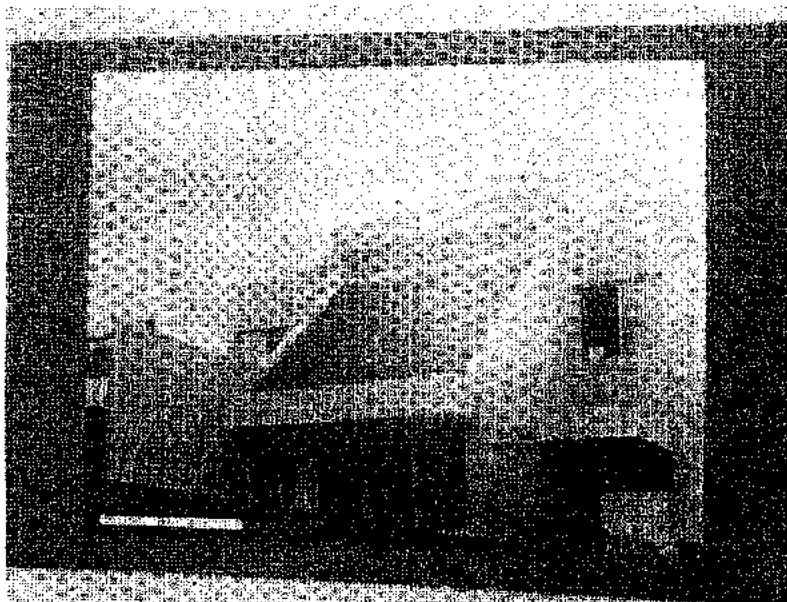
住宅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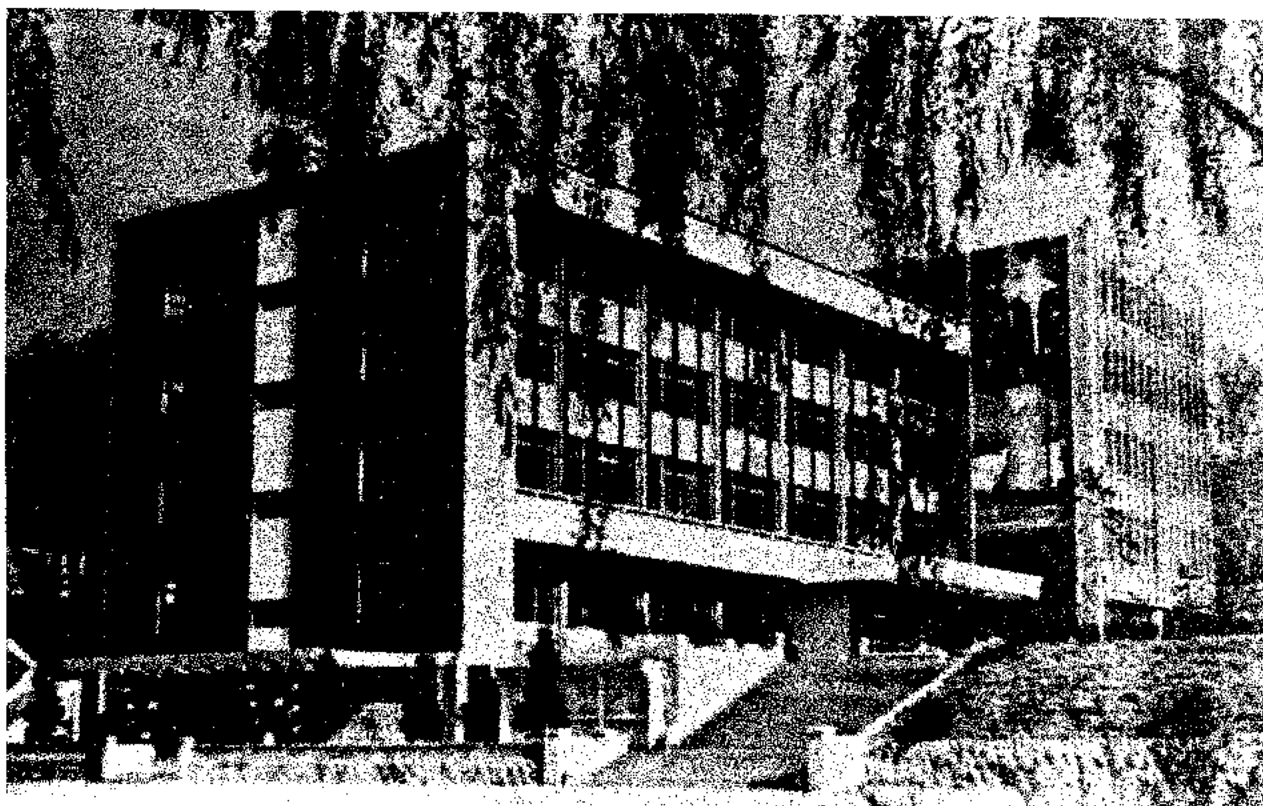


入 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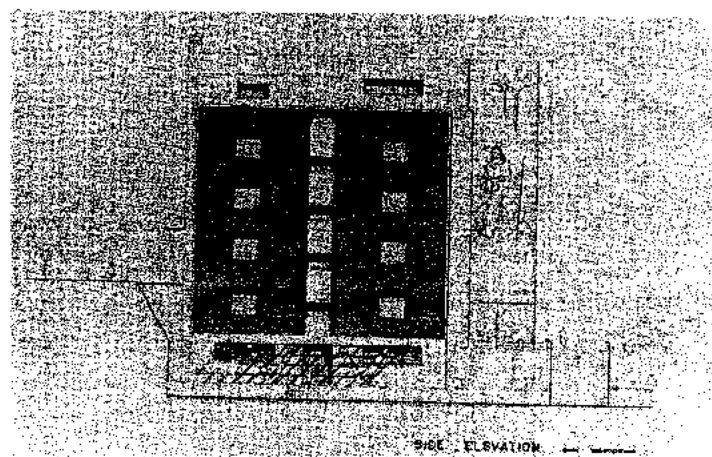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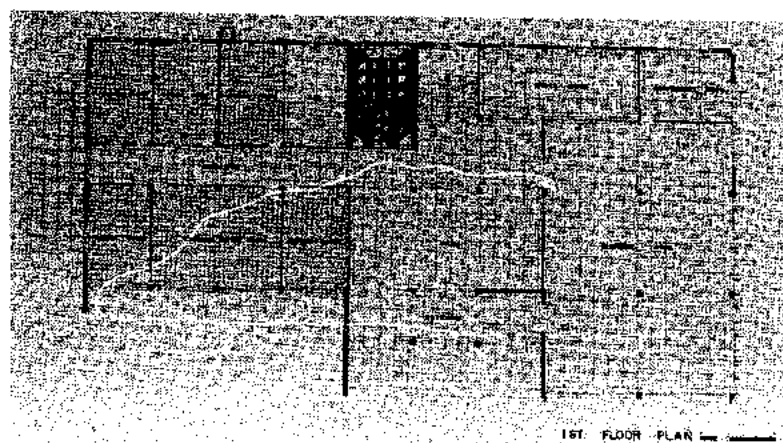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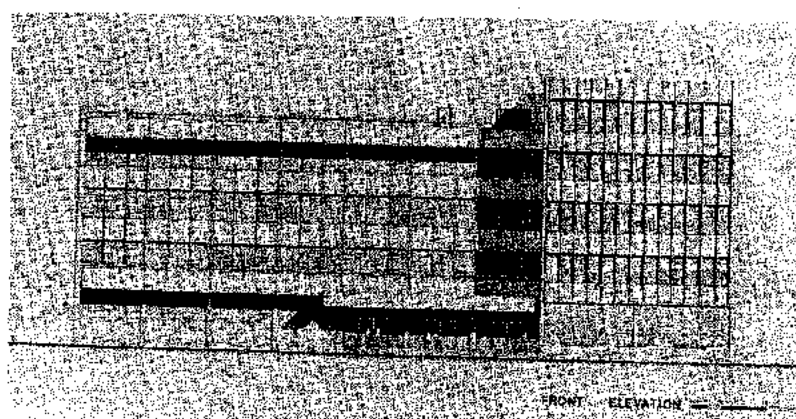
作 品 名：住 宅
建 築 士 名：洪 哲 洙

〈韓国建築文化研究所〉





入 選
 作 品 名：崇田大学校学生会館
 建築士名：金 寬 豊
 〈서울合同技術公社 金寬豊建築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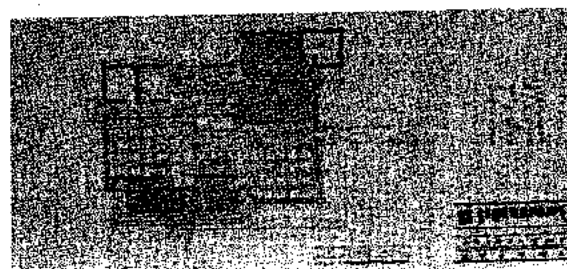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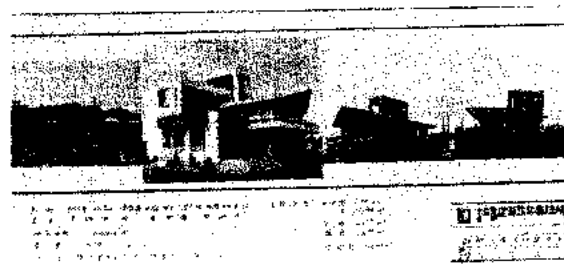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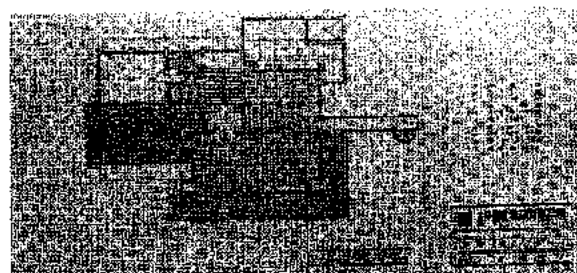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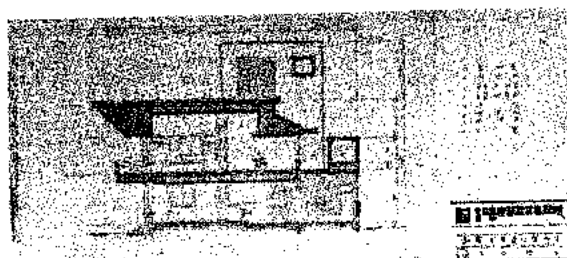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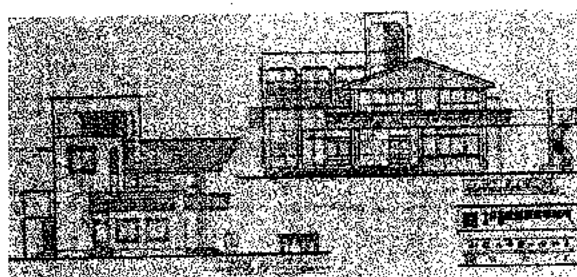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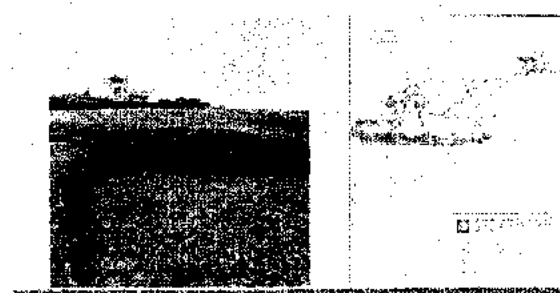


入 選

作 品 名：休 憩 室

建築士名：金 石 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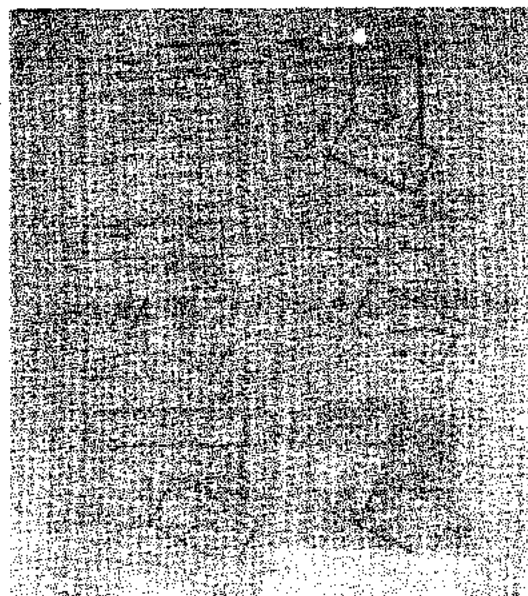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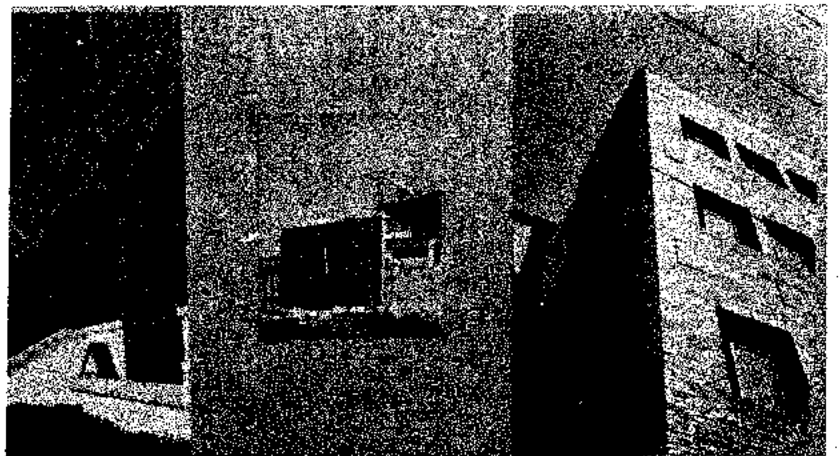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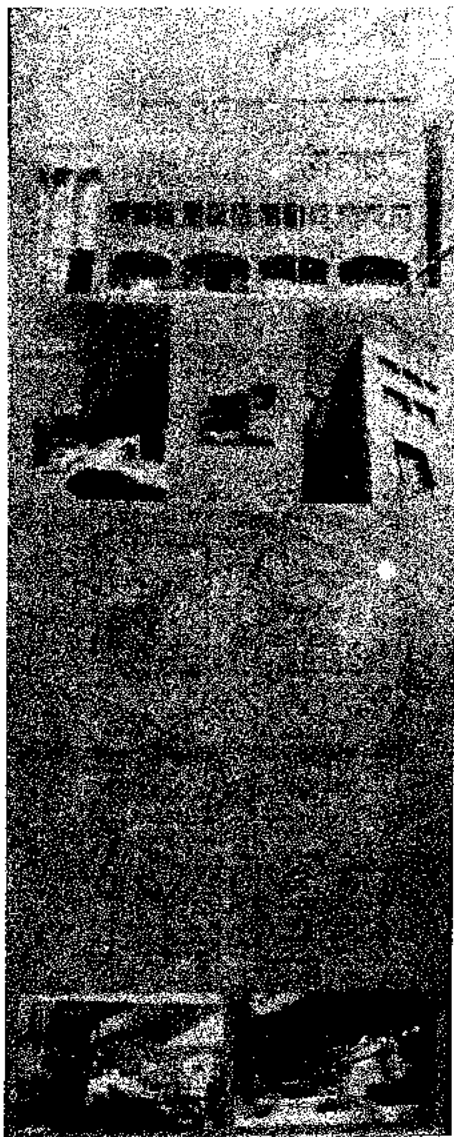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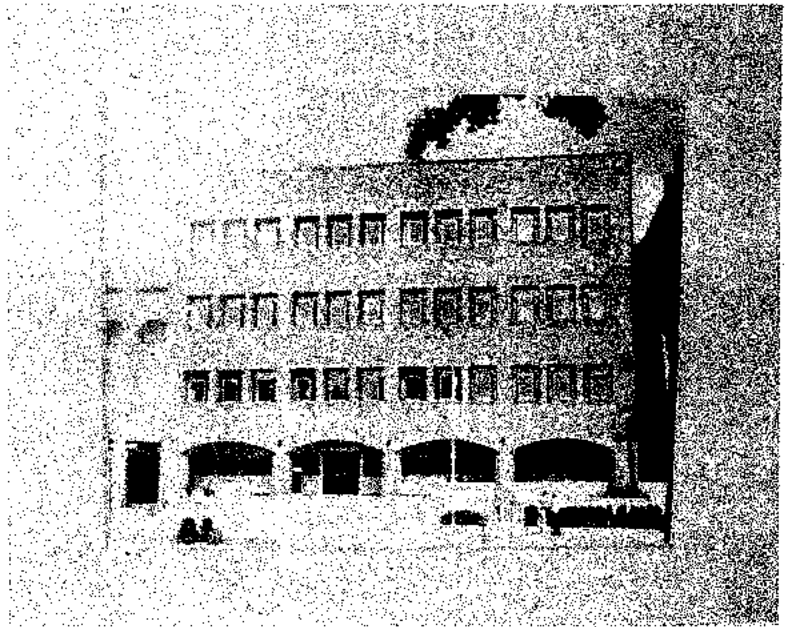
〈濟州 金石崙建築設計事務所〉



入 選

作 品 名：出版文化会館
建築士名：洪 淳 寅

〈大宇建築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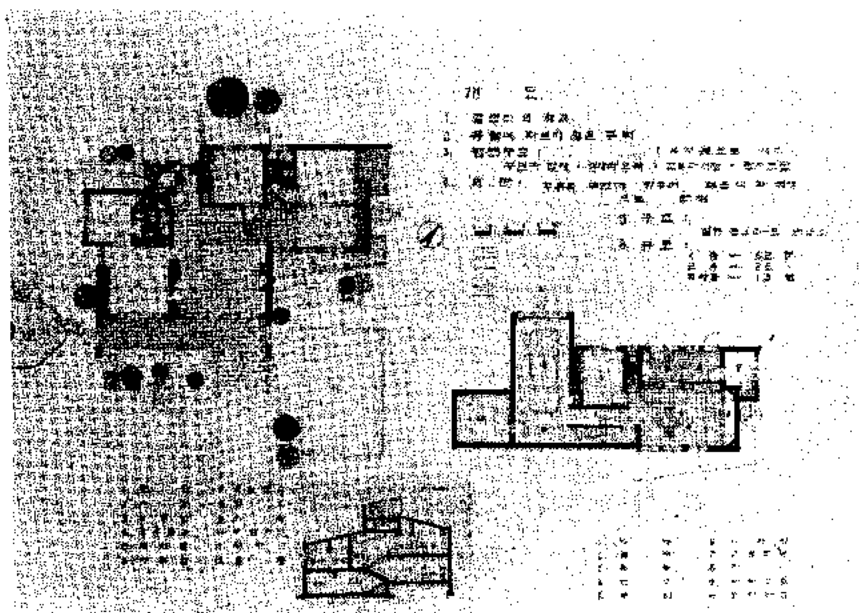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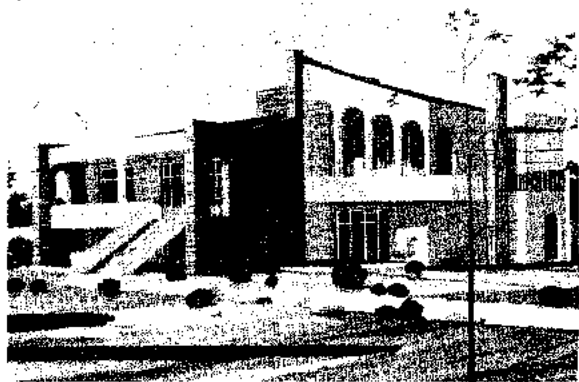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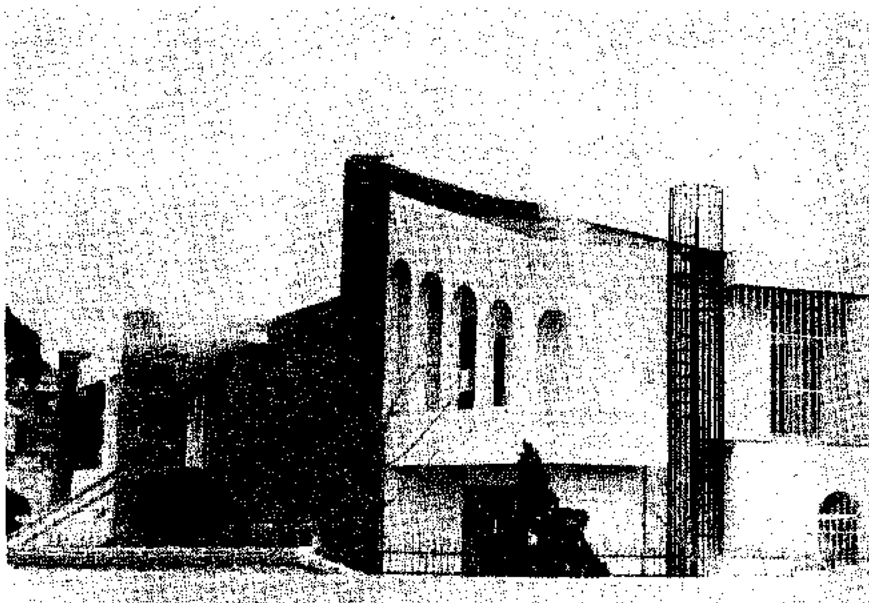
入 選

作 品 名：住

建築士名：李 鍾

宅 寬

〈韓国建築技術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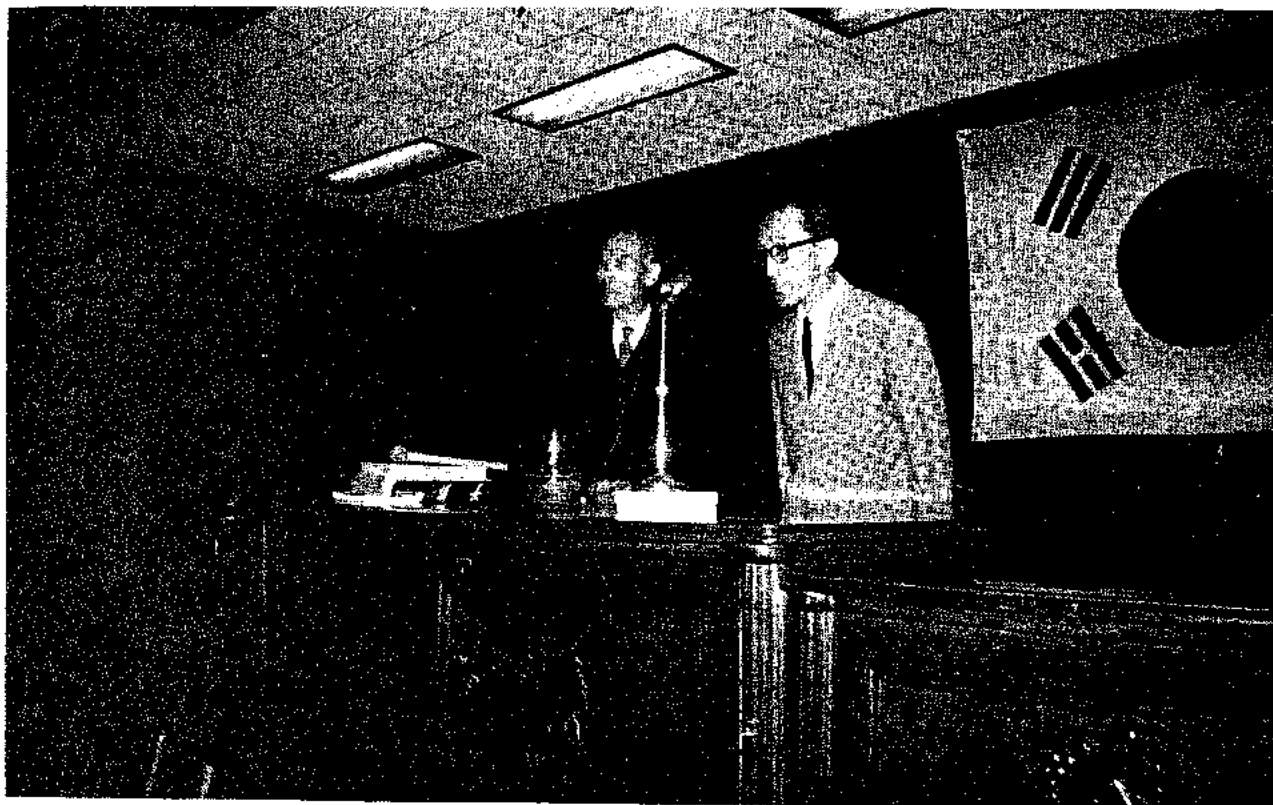
特輯回報

大韓建築士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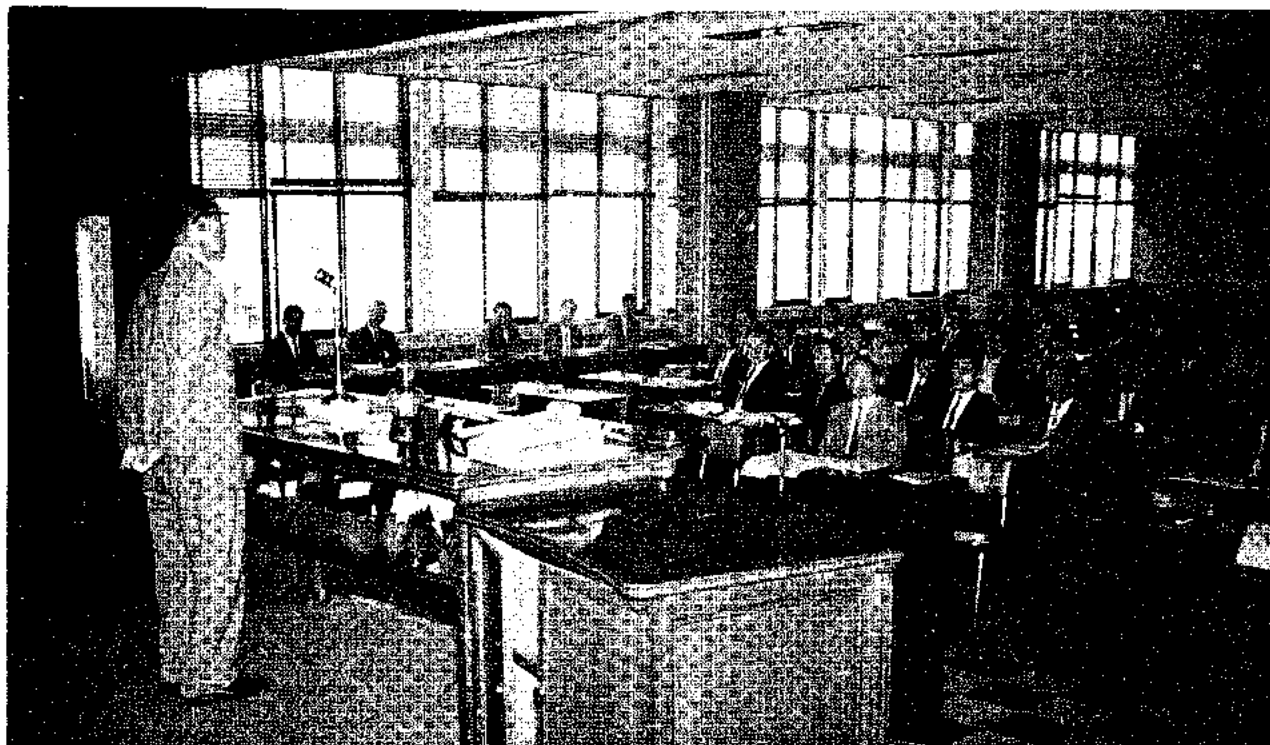
10 年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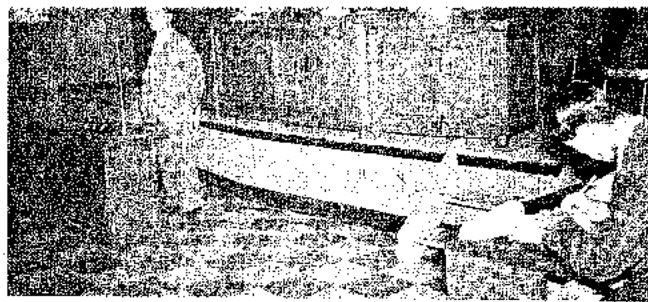
〈協会 10年史〉

사진으로 通해 본 協會 10年の 발자취



▲ 1965年 10月 23日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創立 總會 續會에서 初代 任員陣을 退出했다. 會長 金崙河, 理事 金在哲, 姜奉辰, 車景淳, 安仁模, 張起仁
▼ 監事 韓昌鎭, 金鍾植 (創立 總會의 議長은 朴永晚氏였다)





▶ 1966年 3月 28日 1966年度 第16回 서울特別市 文化賞 建設部門에 張起仁 會長이 受賞.

◎ 世界 建築士 建築技術者, 土木技術者 大会에 本 協會 朴春鳴 指導委員을 派遣. 이스라엘 政府 초청. 1966年 6月 20日 부터 6月 27日 까지.

▼ 1966年 12月 27日 午後 2時 金舜河 初代会長 逝去 (享年 66歲)

1966年 12月 31日 午前 10時 西大門區 弘恩洞 自宅에 서 大韓建築士 協會葬으로 嚴修히 舉行.



▼ 1967年 1月 29日 午前 10時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本會 任員과 代議員 118名中 94名 出席으로 1967年度 第1回 臨時總會를 開催함.
致辭하는 金允基 建設部長官



◎ 1967年 6月 19日 日本建築学会長 坪井善勝氏 同副會長 吉阪隆正氏 野村孝文 教授 및 高杉造酒太郎 相談役 等 4名이 本協會 來訪 兩國間의 建築界의 理解增進과 相互意見 交換 및 贈物交換이 있었다.

◎ 1967年 8月 2日자로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얻기 위해 서 建築士 業務報酬基準 改正案을 申請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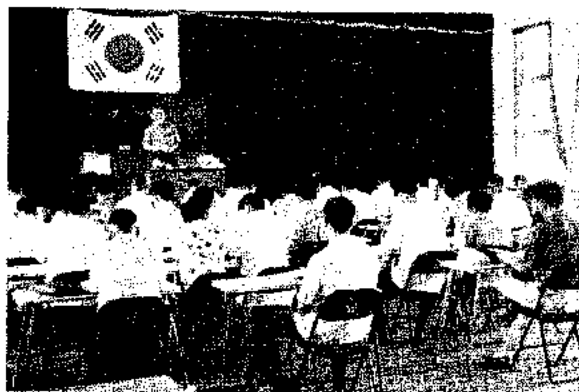
◀ 1966年 9月 24日(土) 午前 10時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第1回 定期總會를 開催하다. 金舜河 會長을 비롯하여 全任員과 代議員 111名中 102名이 出席함.



▼ 1966年 5月 10일부터 23일까지 12日間 大韓建設協會 講堂에서 建築技術 講習會를 開催. 全國 各地에서 150名이 參席함.

講師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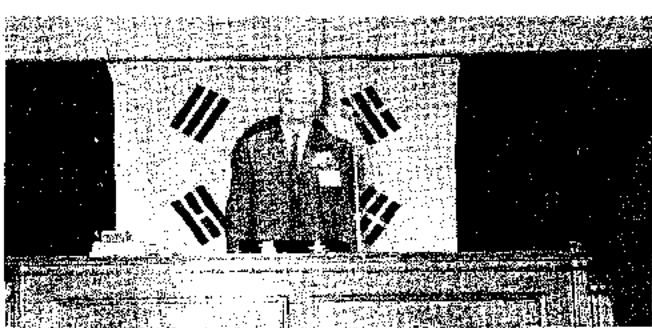
構造力学: 宣炳澤	示 方: 張起仁
一般構造: 金正秀	設 計: 李海成
設備計劃: 朴胤成	一般計劃: 金熙春 · 鄭寅國
計劃原論: 尹張燮	材 料: 洪鵬義
施 工: 洪思天	法 規: 韓鼎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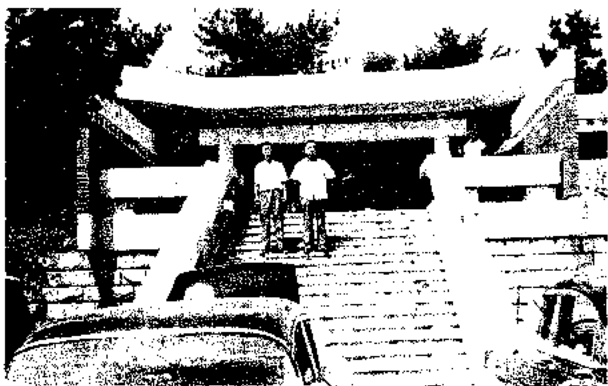
◎ 1967年 4月 15일부터 5月 15일까지 市民會館 옆 広場에서 本協會 主催 第1回 全國 優秀建設 資材展示會를 開催함. 出品된 600余 種目中 資材審査 委員會에서 嚴選된 受賞 種目は 32個 業体였다.

(※ 受賞者名單 및 關係記事는 本誌1967. 7. 9月号 참조)





▼ 1967年 9月 13日 午後 2時 新聞會館 3層에서 國立博物館 扶餘分館의 建築樣式(金壽根氏 設計)이 日本의 神社 建築樣式을 닮았다는 是非는 建築界는 勿論 史學界를 비롯한 一般의 큰 關心事가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人士를 모시고 座談會를 開催했다.



◎ 1967年 12月 31日 午後 3時. 1967年度 終務式을 舉行.

◎ 1968年 1月 4日 午前 11時 本協會와 서울市支部 合同으로 1968年度 始務式을 舉行.

▶ 1968年 1月 6日 ECAFE (UN. 亞東經濟委員會) 와 UN기술협력조치가 共同主催로 1968年 1月 8日 부터 15日 까지 泰國의 首都 방콕에서 開催. 本協會 金在哲 會長 참석. 建設部 도시계획과장 김경린氏와 住宅金庫의 이해성氏가 함께 參席하다. 主題는 亞細亞 지역 各國間의 建築資材 發展에 관한 相互意見과 建築資材 生産의 技術交換



◎ 1968年 2月 21日 政府綜合 廳舍設計 및 建立에 關하여 朴正熙 大統領 閣下에 建議文 提出.

◎ 1968年 2月 19日 大韓建築士協會 政府綜合廳舍 建築對策委員會에서 聲明書를 發表와 함께 顧問職에서 辭退書를 總務處長官에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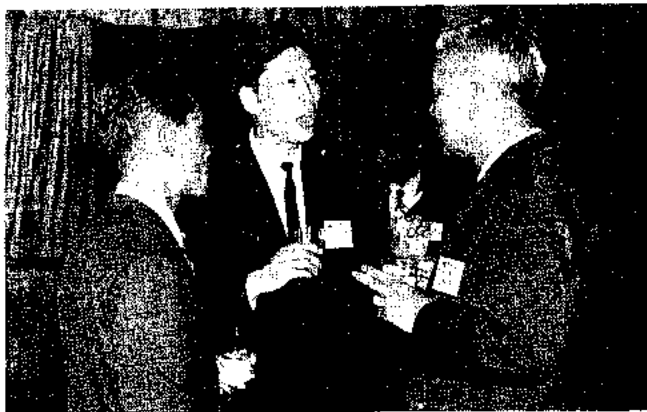
〈※ 참고記事. 本誌1968年 3月号〉

◀ 1967年 9月 29日 午前 10時 30分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本協會 第2回 定期總會를 開催했다. 代議員 總數 120名中 104名이 出席. 지난 4月 優秀建設資材展示會 時에 會員作品 出品者에 對한 施賞式이 있었다. 이날 任員改善에서 新任 會長에 金在哲氏와 新任理事에 姜人雄氏 康普參氏와 監事에 具玢會氏를 選出하다.



◎ 1967年 11月 1日 本協會 事務室을 武橋洞빌딩에서 光南빌딩으로 옮겼으나 여러가지 使用上 不便한 점이 노출되어 12月 1日 正陽빌딩 6層으로 移轉하다.

◀ 67年 12月 27日 午後 6時 뉴코리아 호텔에서 設部 長官과 駐韓 美大使館 文化課長 Barpz 박사 等 外 귀빈 초청 40余名이 參석한 가운데 送年 파티와 파티 개최.





▶ 1968年 8月 7日~20일까지 建築技術講習會 開催하다.
8月 7日 大田에서 시작하여 8月 9日 大邱에서, 8月 12日 釜山에서, 8月 16日 光州에서, 8月 19, 20日 서울에서 開催되었다.

講師陣

建築法〈建設部 建築課長〉朴 碩 夏

消防法〈서울市警 消防係長〉朴元淳



◎ 1968年 9月 7日 午前 10時 신문회관 講堂에서 第2回 全国優秀建設資材 展示會에 出品된 建設資材 中에서 優秀資材에 對한 施賞式이 있었다.

施賞業체別 名單은

國會議長 賞: 東明木材商社

大法院長 賞: 雙竜洋灰工業(株)

經濟企副院長官賞: 人成木材工業(株)

建設部長官賞: 三榮하드보드工業(株)

榮山콘크리트工業(株)



▶ 1968年 11月 29日 午前 10時 30分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第3回 定期總會를 開催. 代議員 139名中 102名이 出席. 金在哲 會長의 渡美로 車景淳 總務理事가 會長職務代理로 會議을 進行하다. 이날의 總會에서 新任理事로 安仁模(再當選)金鎮千, 李奉魯氏와 監事に 釜山の 李 鍾壽氏가 選出되다.

◀ 1968年 2月 21日(水) 新聞會館 3層 會議室에서 政府 綜合廳舍 設計에 關한 討論會를 開催하다.

參席者: 金在哲 會長外 任員陣 多數.

傍聽者: 250여명.

◇ 1968年 5月 26日 부터 2日間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代議員 137名中 94名이 出席한 가운데 1968年度 第1回 임시총회가 開催되었으며, 第2日제인 28日에는 137名中 90名이 出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 1968年 4月 2日~5月 2日까지 本協會 第2回 全国優秀建設資材 展示會를 市民會館 앞 廣場에서 開催하다.

同 展示會의 顧問에는 丁一權 國務總理와 朴忠勳 副總理 兼 經濟企副院長官 等 16名의 關係長官과 團體長이 위촉되었으며 名譽會長엔 朱源 建設部長官이 위촉되었으며, 展示會長에는 本協會 金在哲 會長, 副會長에는 本協會 康晉參, 姜大雄, 車景淳 理事와 서울市支部長 金源安 氏였다.

◀ 陸女史께서 展示場을 訪問하고 깊은 關心을 나타내었다.



◎ 1968年 10月 2日 日本千葉縣建築士會 理事 島田金次外 10名의 日本人 建築士가 本協會를 親善訪問하다.

◀ 1968年 11月 1日 第3回 雜誌의 날 기념식이 신문회관 강당에서 개최됨. 이날 총회에서 本誌「建築士」가 韓國雜誌協會 理事로써 選出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편집장, 기자상, 업무상, 공로상 등이 수여 되었다.

• 致辭를 하시는 洪鍾哲 文公部長官





◎ 1969年 5月 5日 UN식량농업기구의 극동지역 방콕 사무실에 山林官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태생인 建築士 “하릴러”氏가 자료 수집차 아시아 지역 순회중에 本協會를 訪問하다. 金在哲 會長이하 任職員과 住宅公社에 근무하는 홍성목氏 등이 자리를 같이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 1969年 5月 國회의사당 신축설계 용역계약에 대한 시정건의서를 本協會 金在哲 會長 各 支部長 명의로 당국에 제출하다.

▲ 1969年 6月 28日(土) 午前 10時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1969年度 第1回 臨時總會를 開催하다. 總代議員 157名中 129名이 出席. 午後 8時에 閉會하다.



▲ 1969年 9月 16日 말레이시아 建築士協會長 “하이삼 알바크리”氏가 本協會의 초청으로 來韓하다.

우리 나라와 말레이시아 建築士協會間의 國際的 유대를 돈독케 하기 위한 目的으로 3박 4일의 짧은 여정동안, 덕수궁, 중앙청 종합청사 공사장, 스카이 웨이, 워커힌 남산 등 서울市内 여러 名所와 建築物들을 두루 돌아보고 귀국했다.

▶ Hisham Albakri씨의 내한을 환영하는 파티

◀ 1969年 4月 21日 建設部門에서 막중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建築業務가 建設部 總務處 等 各 部處에 分散되어 있어 統一된 建築政策 計劃및 予算政策에 히다한 차질을 초래케 하고 있음을 통찰하시고 차제에 建築機構의 一門化로 建築行政을 강력히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建築廳을 新設에 줄것을 建議하다.



▲ 1969年 5月 8日 국가 도시개발계획에 발맞추어 建築部門에서도 長足の 進歩를 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 建築士들의 社會에서의 위치와 또 社會에서 우리 建築士들이 당면하고 있는 重大한 과제가 되리라고 보는 建築士의 創作 活動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급변하는 現世界의 조류에 建築士들이 創造할 現代建築의 樣式에 對해서 座談회를 개최하다.

司 會 金鎮千 (편찬위원회 위원장)



▲ 1969年 8月 30日(土) 午後 2時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1969年度 第1回 臨時總會 第3次 續開 會議가 開催됨. 總代議員 157名中 108名이 出席. 1969年度 第1回 臨時總會 第3次 續開는 지난 6月 28日과 7月 26日 정족수 미달로 2번씩이나 流會되어 매듭짓지못한 1969年度 第1回 追加更正予算案 축조심의와 任員補選이 있었다.

이날 金在哲 會長의 辭意를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수리하고 理事 全員의 辭意를 받아드렸다. 會長補選은 무기명 투표로서 최고 득점자인 姜明求氏가 第4代 會長으로 選出하고 理事陣으로는 姜奉辰, 李奉魯, 金鎮千, 金東珪, 韓昌鎭 諸氏가 選出되다.





◎ 1969年 11月 17日 日本建築士会連合会 會員 24名이 來韓, 兩國間의 建築界 發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1969年 12月 30日 半島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1968年度의 送年 各테일 파티를 開催하다. 学会長 家協會長 및 建築界의 여러 人事를 초청하다.

이날 本協會 創立 以後 任員으로 수고하신 張起仁 前會長과 朴永晚, 이종태, 姜奉辰, 車景淳 前任理事와 韓呂鎭, 金鍾植 前任監事에 對한 감사장과 기념품 贈정이 있었다.



▲ 1970年 4月 12日 午後 2時 本協會 任員陣 및 서울市支部 任員 및 會員 100여명은 양택식 서울특별시장을 방문코 건축행정에 대한 노고와 공로의 보답으로서 강봉진 회장이 감사패를 증정했다.

▶ 1970年 4月 13日~18日까지 本協會에서 實施한 第3回 住宅設計作品 施賞式 및 展示會가 國立公報館에서 5月 13日~18日까지 開催. 總応募 108點中 特選 2點과 入選 19點에 對한 施賞式이 5月 13日 午前 11時에 있었다.

同 審査委員은 金수근, 金중업, 金희춘, 이해성, 엄덕문, 정인국, 홍봉희, 강봉진, 송기덕 諸氏.



◎ 1971年 6月 3日 本協會 姜奉辰 會長은 日本建築士会連合会 및 東京建築士会 그리고 大阪市建築士会를 親善訪問하다.

▶ 1971年 6月 15日 本協會 1971年度 第1回 임시총회에 참석한 全國 代議員 70余名으로 구성된 産業視察團은 大韓洋灰(株)의 特別초청으로 서빙고洞에 위치한 同工場을 視察했다.

◀ 1969年 9月 22日 午前 10時 40名の 會員으로 구성된 산업시찰이 중앙정보부 주선으로 울산공업단지를 시찰하다.

▼ 1969年 10月 20日 世界的인 建築學者 美國의 MIT 建築大學 「장 피에르트로 벨루기」교수가 10日 동안 韓國에 머무르면서 韓國의 建築界를 두루살피고 10月 30日 귀국하다.



◎ 1970年 4月 2日 午前 10時 第7回 建設週間을 맞이하여 市民會館에서 建設部 산하 단체의 任職員들이 參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성대히 行해하였다.

◎ 1970年 4月 3日(金) 午前11時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本協會 1970年度 第1回 臨時 總會가 開催. 全國 代議員 175名中 125名 出席.

이날 總會에서 이종수 감사 辭任으로 金仁模氏를 감사로 選出하다.



◎ 1970年 10月 23日(金) 10時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本協會 第5回 定期總會를 開催.

全國 代議員 186名中 122名 出席.

이 總會에서 新任 會長에 姜奉辰 新任理事에 金鎮千 徐延達, 李東煥, 宋基德, 신형범 監事에 李奉魯 諸氏가 選出되었다.





▶ 1971年 6月29~30日 第3回 農村住宅 恒상설계 作品
審査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開催되었다.
(応募対象) : 各 大学 在学生)



▶ 1971年 10月 18日 IH 市民會館에서 建築大祭典 第1回
建築士協會 全國大會를 開催했다. 이날 大會式에는 太完
善 建設部長官의 致辭와 來賓祝辭 그리고 第1回 建築大
祭典에서 會員作品 部內에서 大賞을 차지한 會員들에게
상패와 副賞을 수여하는 姜奉辰會長과 民俗춤을 감상하는
會員들.



▶ 1971年 12月 17日 第6回 定期總會에서 會長으로 選出
된 姜大雄 會長은 처음으로 全國市道支部長 會議를 召集
했다. (於. 東和빌딩, 스카이 라운지에서)

◀ 1971年 6月 14日 午後 1時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1971年度 第1回 臨時總會를 開催.

全國代議員 196名中 131名이 出席. 歷代會長 및 理事
監事 支部長에게 감사장 수여가 있었다. 아울러 釜山, 京
畿, 慶北 事務長에게 표창장을 그리고 高령 會員에게는
주애회원증을 증정하다.



◀ 1971年 10月 18日 建築大祭典이 市民會館에서 太完善 建
設部長官을 비롯 各界의 人士와 親朋을 모신 가운데 엄숙
히 舉행되었다.

1971年度 農村住宅 設計恒상 당선자에 授한 施賞式에
이어 三團體 會長의 學術 講演과 심포지움은 많은 청취
자들의 감명을 깊게 했다. 特別 出演과 國樂藝術學校 生徒
들의 民俗舞蹈의 演은 큰 反響을 받았다.



◇ 1971年 10月 19日 全國代議員 一行은 午前 9時부터
벽돌 生産業체인 二和産業과 세라믹스工業(株)과 韓國유
리工業(株) 等 3個 業체를 視察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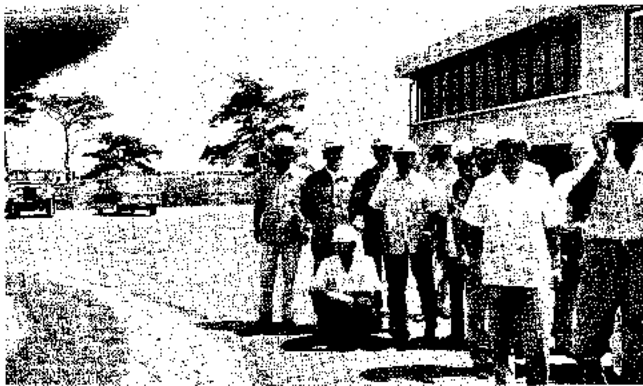
◇ 1971年 10月 20日 本協會 第六回 定期總會가 大韓建
設協會 大講堂에서 開催되었다. 이날의 任員改善에서 姜
大雄 代議員이 第 6代 會長으로 選出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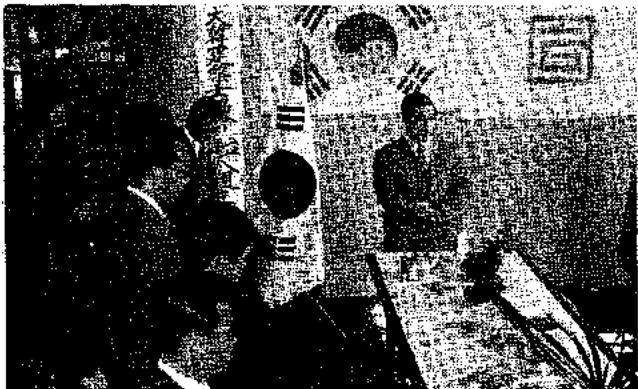


▲ 1972年 10月 28日 午前 10時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本協會 第七回 定期總會를 開催. 全國 代議員 220 名中 181名 出席. 姜大雄 會長의 開會辭에 이어 張禮準建設部長官의 致辭가 있었다.

第七回 定期總會에서 任期가 完了된 金榮, 徐廷選, 安瑛培 理事 및 尹希俊 監事의 勞苦에 致賀하고, 새 任員을 選出했는데 金枝泰, 吳雄錫, 安瑛培 理事가 새로 選出되고 尹希俊 監事를 留任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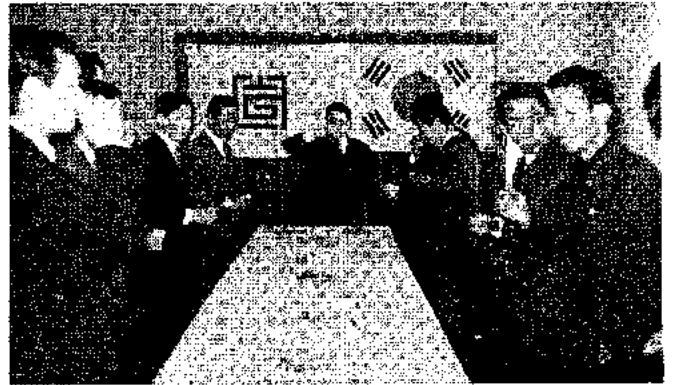


▶ 1973年 10月 12日~16日까지 서울을 비롯 釜山, 大田, 光州, 濟州 等 5 個地域으로 나누어 全國巡廻 建築法 및 消防法 講習會를 開催했다. 講師陣은 洪鵬義교수, 金亨杰교수, 李沚然교수, 張泰株 係長, 金永哲 係長, 金熙春 교수.



◎ 1974年 3月 15日 政府에서 '74. 3. 5부터 實施中에 있는 建築物의 建築抑制 擴大에 對한 建議書를 關係當局에 제출하다.

◎ 1972年 3月 29日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全國 代議員 223名中 183名 出席으로 1972年度 第1回 臨時總會가 開催되었다.



▲ 1972年 12月 31日 1972年度 終務式이 끝난 직후 多事 多難했던 한해의 회포와 또 새해 새희망을 안고 다시 만 날 72년의 이별의 잔을 들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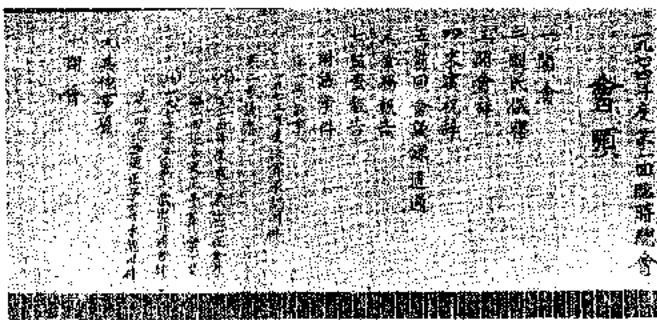
◀ 1973年 8月 13日 本協會 任員과 支部長 一行은 浦項製鐵 産業視察을 했다.



◀ 1973年 10月 23日 協會 創立 8週年 紀念式 光景. 歷代會長과 任職員 및 서울支部長과 支部 幹事만이 초청된 가운데 조출한 自祝宴 行事 光景. 紀念辭를 하는 姜大雄 會長과 左로부터 姜奉辰, 姜明求, 金在哲 歷代會長團과 金枝泰 總務理事.

▼ 1973年 10月 27日 第8回 定期總會가 大韓建設協會大講堂에서 代議員 176名中 152名 出席으로 開催되었다. 이날 任員改善에서 韓昌鎭 會長이 第7代 會長으로 選出되었다.





◎ 1974年 5月 29日 午後 2時 本協會 會議室에서 國家技術資格法 및 關係法에 對한 간담회를 개최하다.

◎ 1974年 6月 17日 韓國建築家協會에서도 國家技術資格法 施行令 案의 實施에 따라 派生된 建築分野에 있어서의 問題點을 文化公報部長官에게 上申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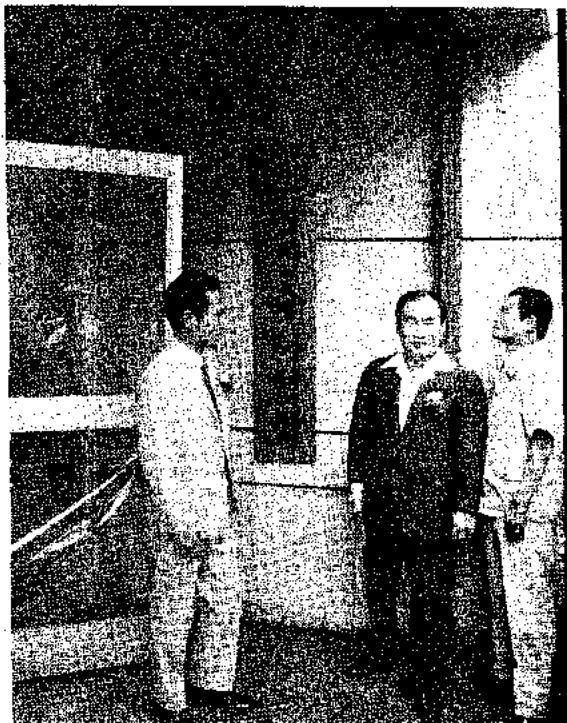
◎ 1974年 6月 18日 本協會 任員一同은 芳隣성금200,000원을 朝鮮日報社에 기탁하다.

↓ • 建築士法改正案에 對한 公聽會 光景



▶ 1974年 6月 29日 午後 2時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1974年度 第2回 臨時總會를 開催. 全國代議員 182名中 149名 出席. 韓昌鎭 會長 主宰로 進行된 이 緊急 臨時總會는 定款改正(案)審議의 件과 國家技術 資格法 施行令(案) 公布에 앞서 今後의 建築士에 對한 諸般問題點 解決을 위해 長時間 진지한 討議가 있었다. 또한 建設部長官 科學技術處長官에게 「建築設計 및 計劃分野」는 削除하도록 建議키로 滿場一致로 決議하다.

한편 이날의 臨時總會에서는 空席中인 理事 한 분에 (綜合建築設計事務所 代表) 李丞雨氏를 選出하다.



◎ 1974年 4月 13日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1974年度 第1回 臨時總會를 開催. 全國代議員 182名中 142名 出席. 韓昌鎭 會長 主宰로 開會된 이날의 總會는 執行部가 上程한 73年度 決算案과 74年度 追加更正予算案을 無修正 承認하다.



◎ 1974年 6月 29日 大韓建築學會에서도 建設部長官과 科學技術處長官에게 建築計劃設計分野는 既存 建築士法을 補充하여 建築士를 技術士와 同等 以上の 資格을 가지도록 그 要件을 上향 조정하여 줄 것을 建議

◎ 1974年 6月 29日 國家技術資格法 施行令(案)中 建築分野의 技術種目으로 規定한 「建築設計 및 計劃」分野를 削除하여 줄 것을 建設部長官과 科學技術處長官에게 全國會員의 總意로 建議書를 제출하다.



▼ 1974年 7月 6日 第1回 海外 建築技術 見學 및 視察團 出發하다. 서울市支部長 金萬盛氏를 團長으로 1行 18名이 美洲地域으로 떠나다

◀ 1974年 7月 15日 本協會와 서울支市部는 지난 '74年 7月 15日. 중로구 서린동 89 所在 4層 建物을 買入코 移轉하다. 歷代會長과 任員 및 서울支市部 任員과 關係機關長을 초빙코 午前 10時 建築士會館 正門에 헌관식과 아울러 開館 테일을 끊었다.





◎ 1974年 10月 15日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會員 實務 講習會를 開催했다.

〈講師 公認會計士 朴完奎氏〉

▶ 1974年 10月 23日 本協會 創立 9週年 紀念式을 처음으로 서린동 建築士會館에서 맞았다.



▶ 1974年 11月 7日 午後 2時 本協會 會議室에서 最近 빈번한 高層建物の 火災와 人命의 慘事는 우리 建築人에게는 적지 않은 자극이요, 관심사가 아닐수없어 建築界 元 老人士와 一線에서 直接 取材活躍하는 日刊新聞社 記者들을 초청코 “建築設計와 防災”에 對한 座談會를 本會 李圭福 總務理事 司會로 開催되다.



▲ 1974年 10月 10日 本協會 編纂委員會(委員長 吳雄錫)에서는 國軍의 날 紀念行事에 초청받은 海外 居住 韓國人 中 現在 海外에서 活躍하고 있는 建築人들을 特別히 本協會 會議室에 초빙코 座談會를 開催했다.

이날 座談된 人事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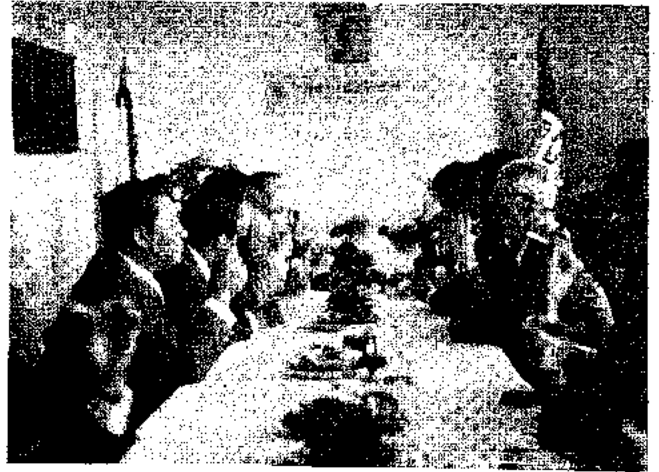
姜錫元 〈불탄서 파리〉

金錫文 〈메마크

金鍾星 〈美國 시카고〉

◀ 1974年 7月 30日 忠南支部 建築士會館 竣工式 舉行하다. 同會館은 지난 73年 11월에 着工. 地下一層 地上 五層 延建坪 783m² 規模 設計者는 金鍾敏 支部長과 卞正煥 會員이 담당하다.

• 施工業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韓昌鎭 會長



◀ 1974年 10月 26日(土) 午前 10時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1974年 第9回 定期總會를 開催하다. 全國代議員 185名中 150名이 出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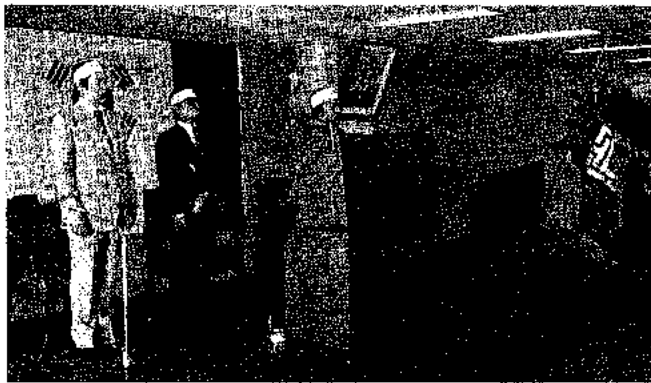
執行部가 제출한 '75年度 事業計劃案과 一般및 特別會計 予算案 및 定款改正案을 原案대로 通過하는 한편, 任期滿了된 金枝泰, 李春相, 吳雄錫 세분 理事의 그 동안의 업적을 치하한 후, 新任理事에 成一求, 朴成圭, 李興秀 諸氏를 選出하다. 또 任期가 滿了된 尹希俊 監事는 다시 留任되었다.





▲ 1975年 3月 29日 午前 10時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1975年度 第1回 臨時總會를 開催. 韓昌鎭 會長 主宰로 開會된 이날 總會에서는 '74年度 決算案안을 通過시킨後 午後에는 정족수 未達로 閉會되었다.

▶ 1975年 5月 10日 5.16. 광장에서 開催된 「總力安保 서울市民 覺기大會」에 本會 및 서울시支部 任職員 全員과 會員 400余名이 參加하여 覺기대회를 다짐하다.



◎ 1975年 6月 5日 全羅南道支部 建築士會館이 忠南 建築士 會館에 이어 두번째로 開館되었다.

'74年 10월에 着工하여 8個月만에 竣工된 同 會館은 總工事費 6천만원을 投入 鉄筋콘크리트 造 地下 一層 地上五層 延建坪 340坪 設計는 同支部의 任性奎 會員이 담당했다.



◎ 1975年 1月 4日 午前 11時 本協會에서는 '75年度 始務式을 本協會 任職員 및 서울支部 任職員 合同으로 舉行하다.

◎ 1975年 1月 18日(土) 本部 事務處 및 서울시支部 事務局 職員一同은 本會와의 姉妹結縁體인 105戰團 警察隊 (隊長 강신중)를 慰問코 金一封과 菓子 음료수 등을 전달하다.



◀ 1975年 5月 12日 國民銀行 大講堂에서 總力安保 團合 覺기 대회를 開催함. 이날 覺기 大會에는 本協會 任職員 全員과 서울시支部 任職員과 산하會員 500余名이 參加했다.

◎ 1975年 6月 10日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서울市民 總力安保 團合覺기 大會에 참가.



▲ 1975年 5月 31日 庶政刷新 講習會 開催 本協會에서는 全國各支部長 支部 監事 및 分所長을 召集하여 庶政刷新 講習會를 開催했다.

이날 講師에는 徐贊敎氏(건설부 법무관실) 洪思弼氏 (건설부 건축과) 康晋參氏(本協會 監事) 諸氏였다.

◀ 1975年 6月 16日(月) 下午 3時

本協會 李圭福 總務理事를 비롯한 任員들과 서울시支部 長 一行은 全國 會員에게서 각출한 防衛誠金 1千9萬 원을 金載圭 建設部長官을 訪問코 이를 寄託하다.

大韓建築士協會 創立 10 周年에 바란다

金 熙 春

大韓建築學會會長

大韓建築士協會 創立 10 周年을 맞는 오늘 感慨無量 하기 그지 없다.

지금으로부터 10 余年前 本人이 韓國建築家協會長으로 있을 當時 바라마지 않던 建築士法이 通過되어 기뻐하던 일이 어제 같은 데 벌써 10 周年이나 되었다. 그동안 士協會는 많은 發展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繼續 發展할 것으로 믿는다.

돌아보전대 建築士法이 通過된 後에 그 內容이 變質되어 物議를 빚었고, 따라서 우리 建築人들이 陣痛을 겪었다. 이러한 陣痛은 여러 가지 外部的인 影響도 있었지만 建築人 自体속에서 일어났던 것도 否認할 수 없다.

이제 그 過渡期를 지나 成年期에 들어선 우리 建築人들의 앞길에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바람직한 生活環境의 創造라는 課題는 쉽고도 어려운 여러 가지 問題를 많이 가지고 있다. 安易하게 착착 處理된 住宅群의 세 모습을 볼 때 果然 우리나라의 建築樣相이 이렇게 되어가야 하겠는가 하는 憂鬱이 앞선다.

나시 한번 建築人들의 功지와 任務를 切感하게 되며, 外面하고 지나 갈 수 없는 생각이 든다.

이 時代야 말로 個人의 英雄主義的 活動에 依存하는 時代가 아니고 客觀妥當性을 바탕으로 한 協同의 時代라고 본다.

우리 建築人의 앞에 놓인 큰 課題는

1. 人口의 急增으로 인한 都市環境問題
2. 住宅에 關한 여러 가지 問題
3. 에너지 對策問題
4. 公害防止問題 等

이러한 問題 解決에는 우리들 個人의 힘으로는 到底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 들이다. 모든 建築人들이 自身이 맡은 分野에서 最善을 다하고 또한 廣範圍하게 協同하지 않고서는 解決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如何든 우리는 이러한 問題解決에 앞장을 서야 할 使命感이 있으며 그러므로 해서 우리 建築人들도 새 時代의 社會的 指導者로서 役割을 다할 수가 있으며, 建築士의 眞實한 뜻을 認定받게 될 것이다.

이제야 말로 大韓建築士協會 大韓建築學會、韓國建築家協會 는 共通된 責任意識下에 尤대를 더욱 強化하여 後世에 남겨줄 韓國 建築文化의 새로운 傳統을 세울 準備를 해야 할 時期라는 것을 強調하고 싶다.

끝으로 大韓建築士協會의 無窮한 發展을 바라 마지 않는다.

1975年 10月 23日

大韓建築士協會 10周年에 부쳐

崔 昌 奎

(前 韓國建築家協會長)
(新進建築設計事務所 代表)

創立 10周年 記念式이 多彩로운 順序를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한다. 果然 10周年을 慶祝해야 할 것인지 조차 疑訝하지만 그래도 10年을 걸어온 것은 事實이고, 其間 많은 問題, 事件, 物議가 있었지만 時間의 偉大한 힘이 그럭저럭 다 平靖을 덮어주었다. 허나 그 問題點들이 根絶된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脆弱點만 있으면 露出化될. 素地를 多分히 가지고 있다. 協會로서의 體制構成과 組織編制가 그렇고 任員과 會員과 決議機關과 執行部, 本部와 支部, 協會와 行政府, 建築法規와 行政 等等의 相對的인 職責과 權限과 区分不明瞭 等 例舉하면 끝이 없을것만 같다. 이러한 処地에 社會的인 環境, 公害, 人口, 食糧 等 直接 間接으로 建築과 關係되는 要素들의 混迷속에서 人間을 保護하는 建築創作에의 至難性을 生覺할 때 建築이란 學問의 無限性과 多樣化되어만 가는 生活樣式을 生覺할 때 나만이 할 수 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다. 洪吉童의 思考로서 言行한 다면 큰 錯誤일 줄 안다.

確固한 秩序위에서 協會 建築士라는 本質的인 正道가 무엇인가를 把握하고 連帶意識을 가지고 參與해야만 하겠다. 靑寫眞만 구어서 許可手續이나 해주고 代価만 받으면 된다. 하루에 100件을 處理하면 어때 나의 能力인데 式의 安逸한 思考로서 나간다면 우리 建築士會員의 喝望인 社會的인 認定 尊敬, 權威를 어떻게 獲得할 수가 있을가 말이다.

이 社會에 集團的인 福祉增進이란 어려운 일이고 登山, 낚시, 庭球, 골무를 치면서도 더 잘 살겠다면 그 限界는 어디까지일까 要是 集團속의 每個體들 間의 格差는 무얼로서 解決할 수 있으며 또 解決한다 하더라도 時間的인 限界點은 어디이며 社會大勢에의 挑戰이나 逆行이 우리들 建築士들의 힘으로 可能한가를 가늠해 보고 할 일인 것만 같다. 10年이 瞬息間에 가버렸다. 未來는 이 國家와 民族이 存續하는 날까지라고 보아야 한다면 長久한 것이다. 拙速 即興은 確實히 삼가야 할 일이겠고 우리代들이 할 일과 다음代들의 할 일이 区分되어야 할 것이다. 機構擴張 予算增加 規模肥大는 반드시 發展이나 向上과 同意語가 될순 없는 것이다. 오직 默默地 誠實히 正道만 걸어가자고 바랄뿐이다. 가노라면 우리들 앞에도 꽃피는 길 이 터여질 것만 같은데……!!

韓國古建築의 平面의 比例

宋 啟 求

序

우리나라의 古建築을 現代의 눈으로 바라다 보며 幾何學的分析을 試圖하여 본 것이 建築士協會誌 9月号와 建築學會誌 10月号에 이미 發表한바를 뒤이어 繼續 本誌에 실어 보았다.

역시 여기에 使用한 實例 年代 沿革등은 鄭寅弼氏著 韓國建築樣式論에서 引用하였다.

여러 方向으로 分析하여 본 結果 平面構成方法에는 相上들이 여러가지 方法을 驅使한 것을 느낄수 있다.

筆者가 말하듯이 時代의 背景 歷史의 흐름 또 서로 다른 匠人들의 複合된 要因에서 여러가지 形態를 낳게 했으며 그 方法에는 大略 다음과 같은 方法이 利用된 것 같다. 즉 $\sqrt{2}$ 矩形의 Pattern을 利用한 것 Pythagoras 三角形 또는 神聖不可侵 三角形이라고 불리우는 3 : 4 : 5 三角形의 整數比를 利用한 것 $\sqrt{5}$ 矩形을 利用한 것 黃金分割比矩形을 展開하여 얻는 矩形 그 多樣한 構成方法은 現代의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된다.

配置와의 関連 基壇과의 關係, 또 立面과의 関連이 綜合되어서 論及이 되어야 하나 紙面關係도 있거니와 于先 平面을 理解하고 立面 其他 全般的인 것을 比較檢討 할까 한다.

1) $\sqrt{2}$ 矩形의 性質

第1圖에서 □ABEF는 $\sqrt{2}$ 矩形이나 □FDCE와는 相似가 아니고 □GHDF와 相似가 된다. □FDEC에서 正方形GECH를 더 添加하여야 된다. 물론 □ABCD도 正方形이며 □FDCE는 작은 □FMND와 相似하며 또 □KLND와도 相似하여 점차 작아지면서 無限히 많은 相似矩形이 旋廻한다.

이때 □ABEF는 두邊의 比가 $1 : \sqrt{2}$ 이나 □FECD에서 부터는 $(\sqrt{2}-1)^n$ 의 比로 急激히 작아진다.

第2圖는 $\sqrt{2}$ 矩形 ABCD에서 對角線 BD에 重線 EC를 그어서 만들어 지는 □EFCD가 原形과 相似한다. 또 □EHGD 역시 相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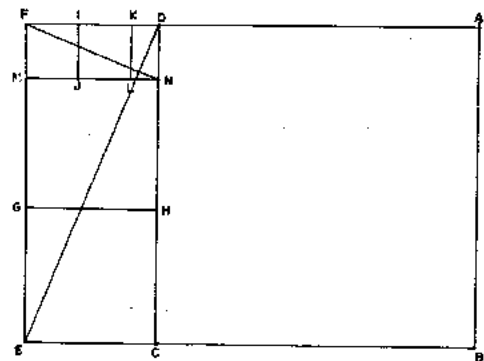
筆者: 宋啟求建築研究所 代表

이때도 $(\frac{1}{\sqrt{2}})^n$ 으로 等比級數의 減少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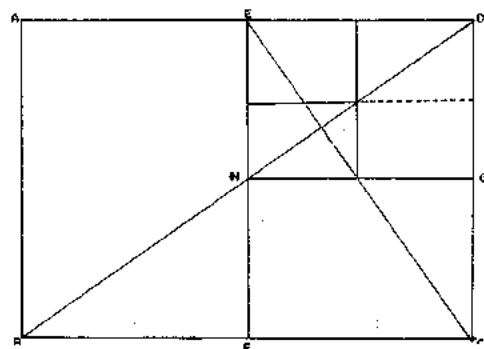
黃金分割比의 旋廻方形矩形은 $\sqrt{2}$ 矩形의 경우와는 달리 Fibonacci 數列 形式으로 다시 말하여 等差級數와 비슷한 數列로 變化하기 때문에 $\sqrt{2}$ 矩形과는 性質이 差異가 甚하다.

$\sqrt{2}$ 矩形에서 興味로운 現象은 $(\frac{1}{\sqrt{2}})^2 = \frac{1}{2}$, $(\frac{1}{\sqrt{2}})^4 = \frac{1}{4}$, 즉 原形의 一邊의 長이를 $\frac{1}{2}$, $\frac{1}{4}$ 로 縮는 規則的인 現象이 일어난다.

參考로 아무 矩形이라도 對角線의 頂點에서 重線을 그어서 第2圖에서 說明한 것과 같은 새로운 矩形을 作圖하면 새로 생기는 矩形은 原形과 相似하며 역시 旋廻方形 矩形을 無限히 만들면서 旋廻한다.



第1圖



第2圖

또 $(\sqrt{2}-1)^n$ 과 $(\frac{1}{\sqrt{2}})^n$ 의 수표를 만들면 다음 第1表와 같다. 이것을 加減乘除하면 直是 $\sqrt{2}-1$ 에 関한 式 또는 $\frac{1}{\sqrt{2}}$ 에 関한 式을 얻을 것이다.

以上과 같은 矩形의 性質을 古代나 現代에서 創作의 한 方法으로서 많이 利用이 되고 있다. 물론 同質의 比만 利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種類의 比와도 複合이 되기도 한다.

2) $\sqrt{2}$ 矩形 Pattern에 따른 平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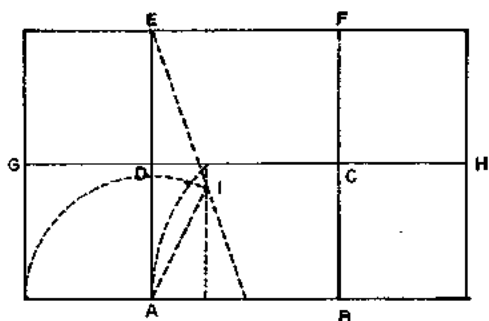
道岬寺解脫門은 $\sqrt{2}$ 矩形의 Pattern을 利用한 平面이다.

第3圖에서 □ ABCD는 $\sqrt{2}$ 矩形이다. BC의 $\sqrt{2}$ 배는 12.372尺으로 實測值가 12.30尺인 AB의 길이와 不過 0.07尺의 誤差가 있을 뿐이다. $\sqrt{2}$ 矩形ABCD의 2배가 되는 □ ABFE또한 $\sqrt{2}$ 矩形이 된다. 그理由는 $AB = \sqrt{2} BF = 2$ 이면 $AB : BF = \sqrt{2} : 2 = 1 : \sqrt{2}$ 가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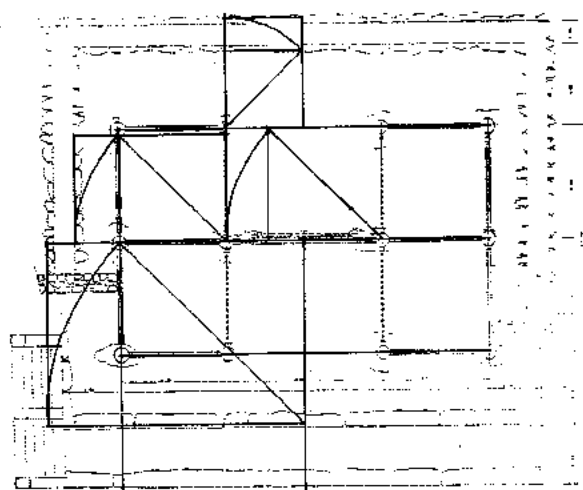
GD의 길이는 AI를 取한 것 같다.

AI는 計算上으로는 8.21尺이 되며 實測值와의 사이에 0.09尺의 誤差가 있기 때문이다. 其他 돌을 짚 狀態는 第4圖에서 알수 있듯이 $\sqrt{2}$ 矩形의 Pattern으로서 構成이 되었음을 알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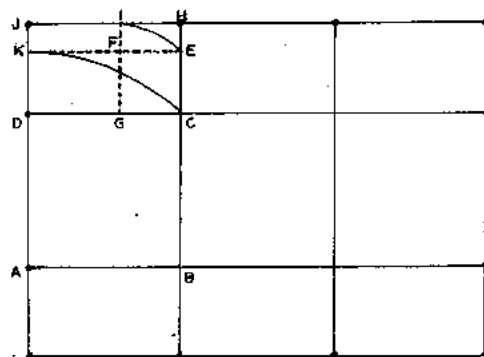
所謂 요즈음 말로 造景을 다루는 祖上들의 솜씨는 이렇게 徹底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비단 建物에서의 比例만 찾지는 않았다.



第3圖



第4圖



第5圖

3) 開心寺 大雄殿

開心寺大雄殿의 경우도 $\sqrt{2}$ 矩形의 Pattern으로 이루어졌다.

第5圖에서 알수 있듯이 中央의 3個의 正方形이 있고 그중의 한個의 比例만 알어도 全体를 알게 되어 있다.

第5圖에서 正方形 ABCD의 對角線 AC로 $\sqrt{2}$ 矩形 ABEK를 만든다. 이때 $EC = FG = KD = 4.992$ 尺이다. 왜냐하면 $AB = 12.06$ 尺을 0.414배하면 4.992尺이 된다.

다음에 正方形 CEFK를 基準으로 $\sqrt{2}$ 矩形 CHIG를 만든다. 그러면 $HC = IG = JD = 7.058$ 尺이 된다. 즉 $4.992 \times 1.414 = 7.058$ 尺이고 實測值 7.06尺과는 不過 0.002尺의 誤差밖에는 안생긴다.

現存하는 大雄殿基壇石案은 創建當時 것으로 傳하고 있다 하며 創建年數는 新羅武烈王 元年 西紀 654年이고 高麗에 重興 李朝初 成宗15年 西紀 1484年에 現寺刹規模로 되어 오늘에 이른 듯하다고 한다.

道岬寺解脫門의 建立年代도 世祖 3年 西紀1457年에 重建 成宗4年에 完工되어 비슷한 成宗朝의 平面形式에 興味를 느낀다. 成年 4年이면 西紀1473年 11年을 앞서 建立된 것이다.

開心寺는 忠南瑞山郡 雲山面 新昌里에 있으며 道岬寺는 全南 靈岩郡西面 道岬里에 있는 寺刹들이다.

4) 觀龍寺大雄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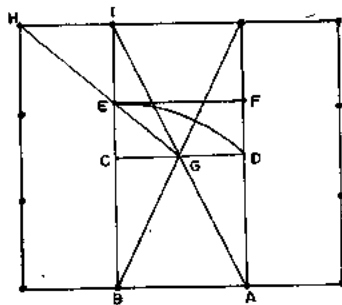
觀龍寺大雄殿은 側面의 길이가 24.90尺이므로 이것의 2分の 1은 12.45尺인 正面의 中央間살과는 不過 0.05尺이 差가 난다.

萬一에 中央間살의 2배가 側面의 길이라면 中央의 1 : 2의 矩形의 對角線은 $\sqrt{5}$ 이다. 따라서 이것을 3等分하면 9.208尺으로 大略 端夾間部の 길이 9.00尺에 비슷하여 진다.

그러나 中央에 佛壇이 스는 位置의 기둥 2個의 位置는 $12.40 \text{尺} \times 1.414 = 17.53 \text{尺}$ 의 位置에 자리 잡은 것 같다.

第6圖의 分析圖를 보면 大略 判斷이 같 줄로 안다.

한편 第6圖에서 GE를 延長하여 IH와 만난 자리를 隅柱의 位置라고 생각하여 計算하여 본 結果 $IH = 8.898$ 尺이 되어 誤差는 0.102尺에 不過하니 結論으로는 $\sqrt{5}$ 와 $\sqrt{2}$ 를 複合시킨 形態가 아닌가 생각 된다.



第6圖

觀龍寺大雄殿의 建立年度는 李朝太宗 元年 西紀 1401 年에 創建하고 壬辰亂에 燒失된 것을 光海君 9年 西紀 1617年에 重創하고 그 翌年에 完成하였다고 하며 그 후 英祖 25年 西紀1749年에 重創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慶南 昌寧郡에 있으며 後述하겠으나 藥師殿과 같은 特殊한 建築이 있으나 觀龍寺事蹟에 나타난것과는 다른듯 하다.

5) 3 : 4 : 5의 整数比

原來 Pythagoras 三角形 또는 神聖不可侵 三角形의 三邊의 比가 3 : 4 : 5의 整数比이고 直角三角形을 가장 쉬운 方法으로 만들수 있는 比例이다. 따라서 옛부터 正方形 또는 直四角形을 作圖한다든가 工事を 할때 直角은 3 : 4 : 5의 整数比의 利用으로서 解決한다.

한편 Price 三角形이라고 하여 三邊의 比가 黄金分割比로 되어 있는 比는 $1 : \sqrt{\phi} : \phi$ 但 $\phi = 1.618$ 인 比역시 3 : 3.816 : 4.854이며 3 : 4 : 5와는 매우 가까운 數值를 나타 내고 있다.

따라서 古代에는 黄金分割比를 簡便한 方法으로 求하기 위하여 5 : 3 또는 3 : 5의 比를 많이 利用하였다고 한다.

그 理由는 $\phi = 1.666$, $\frac{1}{\phi} = 0.6$ 이라는 黄金分割比의 近似值를 얻을뿐더러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直四角形, 直角等의 作圖나 作業에 가장 有用하게 쓰이는 것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은 까닭이다.

$\phi = 1.618$ 과 $\frac{1}{\phi} = 0.618$ 에 매우 恰似한 性質을 가진 5

: 3, 3 : 5의 比는 우리나라 古建築에 많이 利用이 된다.

또 伽藍의 配置에 있어서도 3 : 4 : 5의 比率이 많이 利用이 되었다. 金剛寺址 또는 佛國寺등의 配置는 3 : 4 : 5의 比率을 利用하였고 大規模의 建築일수록 完全한 直角을 맞추는 方法으로서 3 : 4 : 5의 Pythagoras 三角形을 利用하지 않고서는 現在도 工事의 正確性은 期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Pythagoras 三角形에서 正方形이며 $\sqrt{2}$ 矩形등 모든 直四角形을 誘導할수 있었음으로 3 : 4 : 5 : 6의 모든 比例가 利用이 된다. 6은 直角 三角形의 밑邊을 3으로 할때 밑邊을 2 倍로 하여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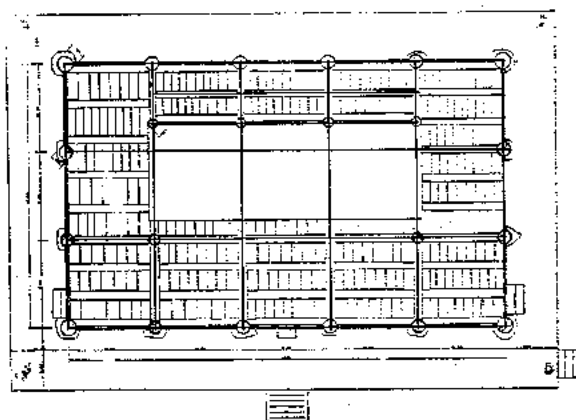
建築에서의 例를 다음에 몇가지 들어 보기로 한다.

6) 華嚴寺大雄殿

華嚴寺大雄殿은 正確한 3 : 5의 手法이다.

佛壇은 가로 세로의 比가 大略 $1 : 2\sqrt{2}$ 같으며 佛壇背面에 位置하는 기둥 4 個도 間을 3 等分한 것 같다. (第7圖 参照)

年代는 李朝 仁祖代 西紀1636年 以後라고 한다. 位置는 全南 求禮郡 馬山面에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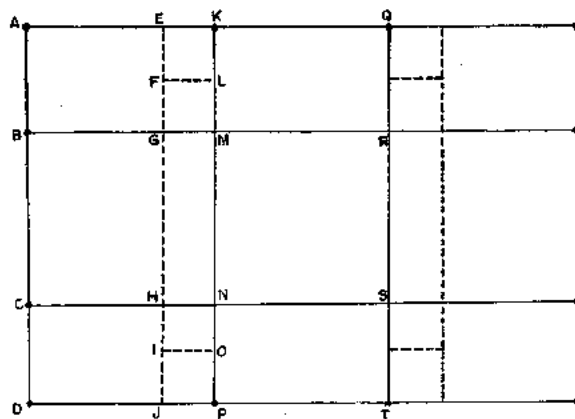
第7圖

7) 無爲寺極樂殿

無爲寺極樂殿도 3 : 4 : 5의 整数比에 의하여 計畵된 것 같다.

第8圖에서 單位길이를 2.42尺이라고 하면 $AB = 7.20$ 尺 ≈ 2.42 尺 $\times 3 = 7.26$ 尺 $BC = 12.10$ 尺 ≈ 2.42 尺 $\times 5 = 12.10$ 尺 따라서 $AB = CD$ 에서 0.06尺의 誤差밖에는 안 생긴다. 그러므로 側面은 3 : 5의 比例가 成立된다고 생각 된다.

萬一에 $BG : AB = 4 : 3$ 이 되게 EJ 線을 假想하면 $\square ABGE$ 에서 $AB : BG : AG = 3 : 4 : 5$ 가 되고 AB 를 二等分한 길이를 $GM = EK$ 로 取하면 $\square EFLK = \square FGML$ 로서 $BM = AK$ 가 AB 에 대하여 3 : 5.5가 된다. 따라서 $BM = 13.23$ 尺 ≈ 2.42 尺 $\times 5.5 = 13.31$ 尺이되어 實測值와는 不過 0.08尺의 差異 밖에는 없다.



第8圖

다음에 □MNSR가 正方形이 되도록 $PT=KQ=BC$ 로
 定하면 無為寺 極樂殿의 平面은 決定이 된다.

無為寺極樂殿은 李朝初期 成宗 7年 西紀1476年보다 앞
 서는 建物이라고 한다.

1956年 實施된 修理工事에서 本尊後壁의 壁画 銘에서
 年代를 判讀함으로써 推定하였다고 하는데 全南 康津郡
 城內面 月下里에 位置하며 新羅 眞平王 39年 西紀617年에
 元曉大師에 의하여 당초 觀音寺라 이름지어져 創建되었
 던 由緒깊은 寺刹이라고 한다.

8) 長谷寺下大雄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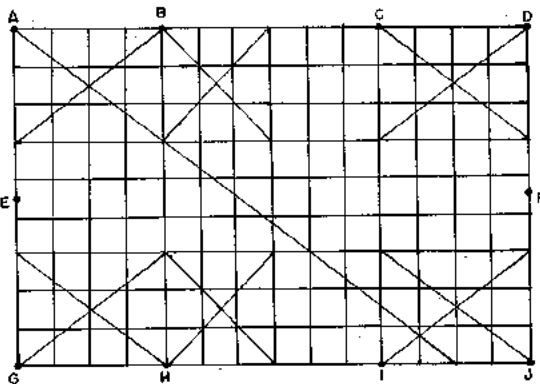
長谷寺下大雄殿은 2.03尺을 한單位로 하여 正面및 側
 面을 나누어 보았다.

側面의 길이는 18.30尺, 2.03尺의 9 倍는 18.27尺이 되
 여 実測値보다 0.03尺이 작고 正面은 길이 28.42尺이 2.03尺
 의 14 倍가 된다. 따라서 2.03尺을 單位로 하는 grid를 만들
 면 第9 圖와 같은 대단히 재미있는 平面計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3 : 4 : 5의 比率을 써서 幾何學的
 으로 아주 興味있는 結果를 얻었다.

長谷寺上大雄殿은 高麗時代의 것 下大雄殿은 李朝中期인
 듯 하다고 하며 長谷寺上大雄殿은 浮石寺無量壽殿과 같이
 黃金分割比에 의한 建築이나 下大雄殿은 樣式上에 큰 差
 異가 있는 아무 關連이 없는 建物들이라고 한다.

忠南 靑陽郡 大峙面에 位置하고 있다.



第9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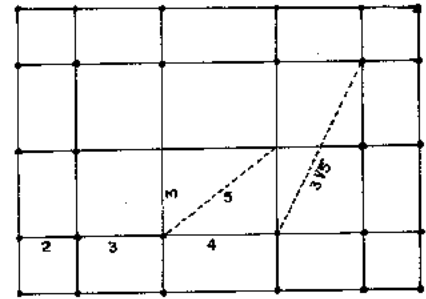
9) 無量寺極樂殿

無量寺極樂殿 역시 앞에서 한 方法으로 分析을 하여
 보았다.

單位를 4.10尺으로 하면 12.35尺과는 $4.10尺 \times 4 = 12.30$
 尺이 되어 0.05尺의 誤差는 생기나 極히 작음으로 第10
 圖와 같은 分析圖를 얻을 수 있다.

3 : 4 : 5의 比例 5 : 3의 比例등 對角線에서는 $\sqrt{5}$
 까지 나타나는 多彩로운 比例의 平面이 된다.

無量寺極樂殿의 建立年代는 西紀 1679年 重修年代가
 認定받고 있다고 하며 重層에 八作지붕인 關係上 內陣에
 기둥이 촘촘하다.



第10 圖

上層部가 內陣의 기둥이 그대로 올라옴으로서 側面과
 正面의 比는 앞에서 말한 5 : 3 즉 黃金分割比의 近似
 값으로 이루어 지게 하였다.

이런것을 볼때 祖上들의 技巧은 難服안할 수 없다.

10) 金山寺大寂光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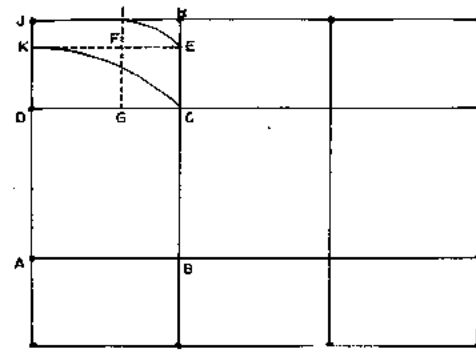
金山寺大寂光殿은 正面이 7 等分되어 있음으로 한區剛
 만 比例를 分析하여 보았다.

이것 역시 3 : 4 : 5 整數比의 複合으로 되어 있다.

萬一에 4.2尺을 一單位로 한다면 $4.2尺 \times 3 = 12.60$ 尺
 이 되어 正面의 12.50尺 한 區剛보다 0.10尺이 커진다.
 그러나 側面은 完全히 마저 들어 간다.

第11 圖에서 $AB : BC = 3 : 4$, $EF : CE = 3 : 5$, 이
 며 GH가 5에 該當하는 比例로 構成이 되어 있다.

金山寺는 百濟名刹로서 三層木造建物인 彌勒殿과 大寂
 光殿은 寶物로서 高麗時代의 秀作들이 많이 있는 全北金
 堤金山面의 湖南의 名刹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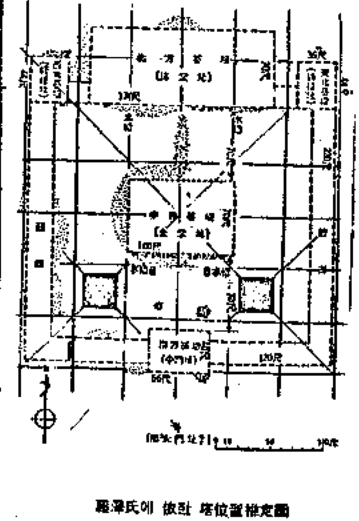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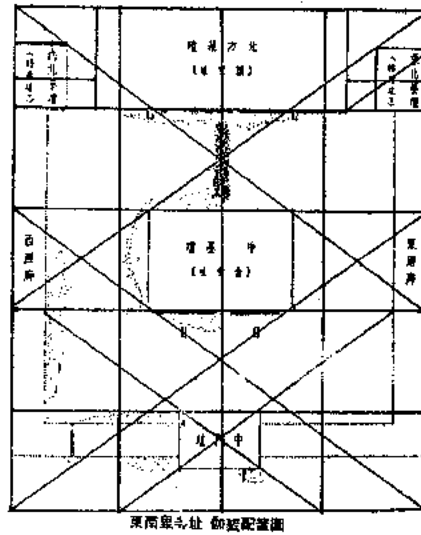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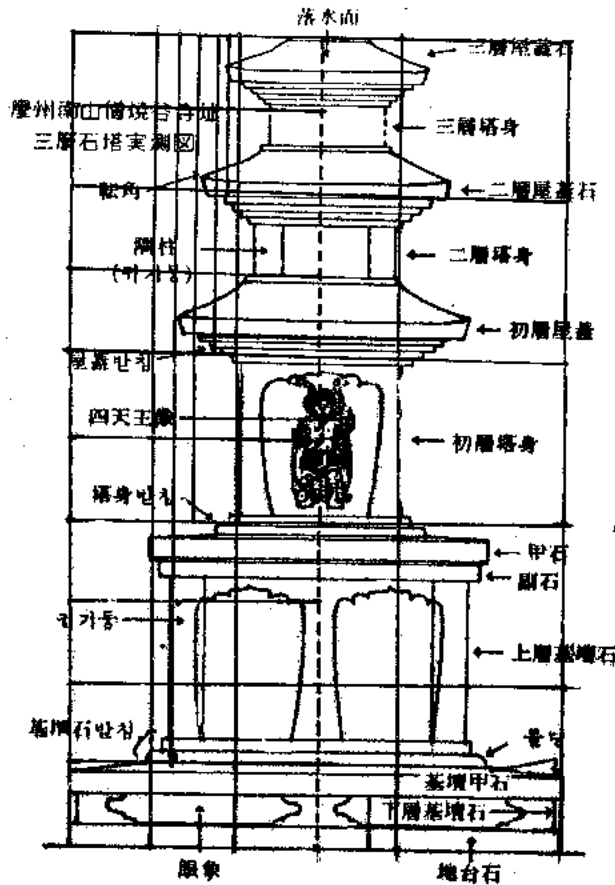
第11 圖

이 이야기는 다르나 慶州南山僧燒谷寺址의 三層石塔 역시
 5 : 3의 比로 이루어져 黃金分割比와 近似한 이 比가 널
 리 利用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第12 圖 參照)

물론 石塔의 한 예이지 만은 建築에서의 5 : 3의 比의
 利用은 普通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또 配置에
 서도 金剛寺址, 佛國寺등 3 : 4의 比가 適用되었고 東
 南里寺址의 경우도 오히려 3 : 4 : 5의 整數比에 의한
 分析이 어떨까 생각된다. 第13 圖는 忠南大 朴萬植氏의 論
 文 韓國古代伽藍의 配置및 平面計畵에 關한 研究에서 引
 用 하였다.

11) 伝灯寺大雄殿의 秘密

Alfred Neumann의 Mφ System에는 $\phi = \frac{\sqrt{5}+1}{2}$,



第13圖

$\frac{1}{\phi} = \frac{\sqrt{5}-1}{2}$ 두 因子에 關係서만 式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ϕ 및 $\frac{1}{\phi}$ 에 의한 式으로 아무리 伝灯寺 大雄殿의 比例를 찾아야 하여도 虛手苦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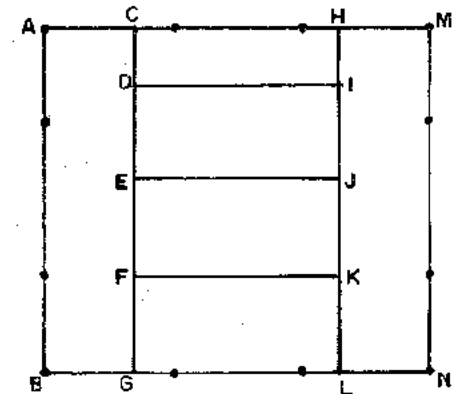
그 理由가 Mφ System에서는 $\sqrt{5}$ 单独으로는 表示할 方法이 없는데 伝灯寺大雄殿의 경우는 佛壇이 建物の 基準이 된 것 같고 佛壇自体가 $1 : \sqrt{5}$ 의 比例로 이루어졌다.

第14圖에서 $AC=BG=DE=IJ=HM=LN=1$ 이라고 하면 $CH=DI=EJ=FK=GL=\sqrt{5}$ 이고 $HI=\frac{\sqrt{5}-1}{2}$, $JK=\frac{\sqrt{5}}{2}$, $FG=KL=1$ 이 된다.

萬一에 比率 1을 6.619 尺이라고 假定하면 側面은 3.728×6.619 尺 = 24.675 尺으로 實測値와의 誤差는 0.125 尺이고 正面은 4.236×6.619 尺 = 28.04 尺이 되어 實測値와의 差는 0.14 尺이 差가 생긴다.

正面의 기둥은 正面길이를 三等分하여 配置하고 側面의 端夾間은 比率 1에 該當하는 6.619 尺보다 0.181 尺이 큰 6.80 尺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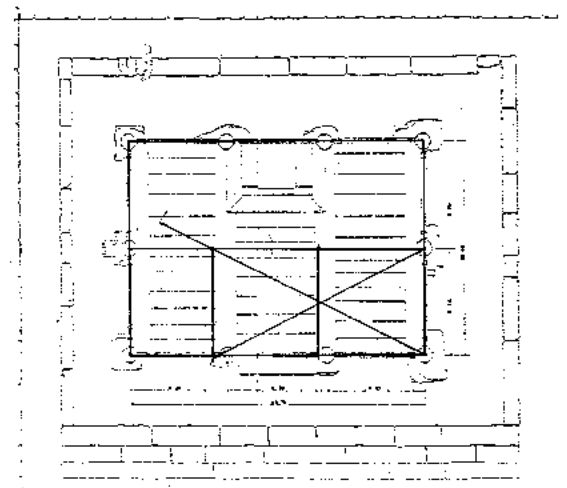
伝灯寺는 江華島吉祥面溫水里에 있으며 高句麗小獸林土 11年 西紀 381년에 眞宗寺로 揭額한 것이 燒盡하여 李朝 哲宗 6年과 高宗十三年 또 1932년에 重修되었다고 한다. 大雄殿과 藥師殿은 寶物로 指定되어 있다.



第14圖

12) 伝灯寺藥師殿

伝灯寺藥師殿도 $\sqrt{5}$ 矩形에 의한 平面이다. 즉 正面對 側面의 比는 $\frac{5}{4}\sqrt{5} : 2$ 의 比率이다.



第15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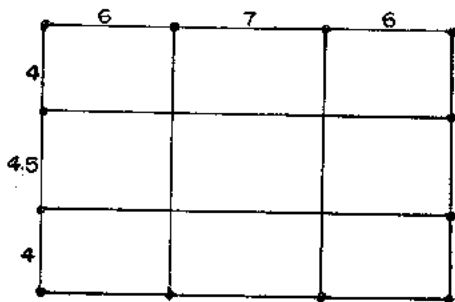
萬一에 側面의 한間 6.76尺을 1이라고 하면 $\frac{5}{4}\sqrt{5} = 2.770$ 이므로 $2.79 \times 6.76尺 = 18.894尺$ 이 된다. 實測値는 18.75尺으로서 誤差는 0.144尺이 생긴다. 기둥 配列도 正面三等分 側面 二等分이다. (第15圖 参照)

13) 開岩寺大雄殿

開岩寺大雄殿은 佛壇自体부터 1 : 2.618의 黄金分割比를 이루고 있다.

이 建物도 萬一에 한單位를 2.06尺으로 하면 기둥과 기둥과의 間隔 8.25尺, 9.25尺, 12.30尺, 14.40尺은 $8.25尺 \approx 2.06尺 \times 4 = 8.24尺$ 으로 0.01尺의 差가 생기고 $9.25尺 \approx 2.06尺 \times 4.5 = 9.27尺$ 으로 誤差가 없으며 $12.30尺 \approx 2.06尺 \times 6 = 12.36尺$ 으로 0.06尺의 差가 생기며 $14.40尺 \approx 2.06尺 \times 7 = 14.42尺$ 즉 0.02尺의 差가 생긴다. 따라서 4 : 4.5 : 6 : 7의 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 : 4 : 5의 一種의 變形이다.

즉 4 : 6은 4 : (3 + 3)로 2個로 分離하면 4 : 3의 矩形이 2個되고 4 : 7은 4 : (3 + 4)의 形式으로 역시 2個로 分離하면되고 4.5 : 6 역시 3 : 4의 變形이다. 第16圖의 數値는 比를 나타 낸 것이다.



第16圖

14) 華嚴寺覺皇殿

建立年代는 李朝肅宗 23年 西紀 1703年이며 全南求禮郡 馬山面에 位置하고 있다.

鄭寅國氏는 이 寺刹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表現하고 있다.

「중색한 溪谷 안의 丘陵地를 이용하여 이렇게 環境과 調和되어 아름다우면서도 威嚴있는 配置를 가진 例는 드물다. 格式과 準則을 잃지 않고 隨機應變 自由自在 로운 點 과연 韓國寺刹의 으뜸이라 하겠다.

覺皇殿의 平面에 있어서의 比例 또한 完璧하다.

第17圖 幾何學的 分析圖에서 □ ABCD는 正方形 □ ABEF는 黄金分割比에 의한 矩形이고 FO를 半徑으로 하여 FH를 決定하면 計算値와 實測値의 誤差는 不過 0.075尺 約 2.2cm의 差가 생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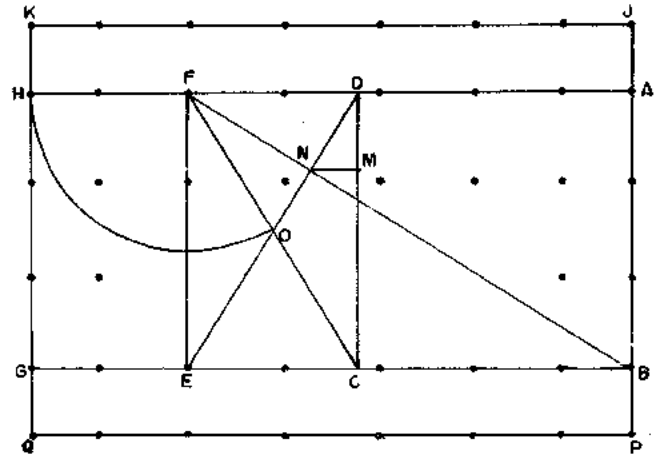
正面길이 86.25尺에 대하여 25.88m에 대하여 2.2cm의 差는 있을수 있는 誤差이다.

第17圖에서 JA=BP=GQ=KH는 MN을 1.5倍한 길이

와 비슷하다. MN는 計算上으로는 10.10尺이 된다. 그러면 誤差는 0.05尺 約 1.5cm의 差가 생긴다.

AB를 三等分하면 기둥間隔이 나오고 모든 기둥配置가 決定이 된다.

内部에 黄金分割比 矩形을 품고 있고 이것에서 誘導되어 나오는 矩形이기 때문에 平面自体가 均衡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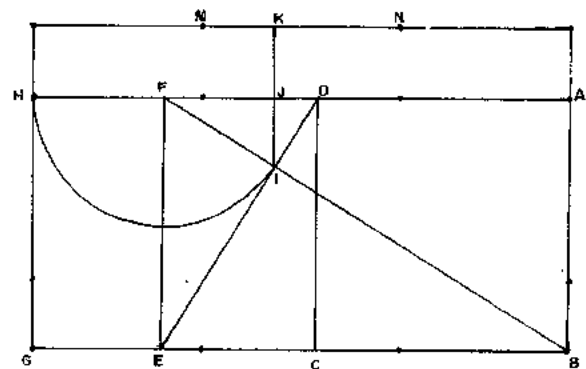
第17圖

15) 鳳停寺極樂殿

鳳停寺極樂殿은 慶北安東郡西後面台左洞에 있으며 現在까지 제일 오랜 建物로 推定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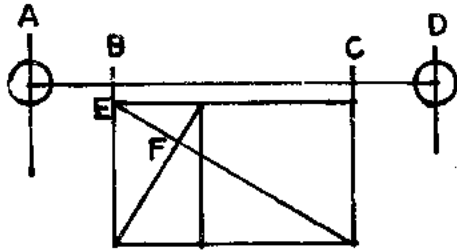
文化財大觀에 따르면 鳳停寺는 新羅文武王 12年 西紀 672年에 義湘國師에 의하여 創建되었다고 하며 한편 極樂殿補修時 發見된 上樑文에 의하면 能仁大德이 新羅에 創建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新羅統一時代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于先 佛壇부터가 黄金分割比로 되어 있다.



第18圖

다음에 第18圖 分析圖에 따라 □ ABCD는 正方形 □ ABEF는 黄金分割比에 의한 矩形이고 FH=FI이며 AH=BG는 計算値로서는 38.484尺이고 實測値로서는 38.50尺 따라서 誤差는 0.016尺 즉 4.8mm 程度の 差밖에는 없는 完璧한 比率로 되어 있다.



第19圖

또 $IJ=JK=4.968$ 尺의 計算値에 대하여 實測値는 5.00 尺 따라서 誤差는 0.032 尺 밖에는 差가 없다.

다음에 MN 즉 中央部の 間살은 佛壇과 關係가 있으며 第19圖에서와 같이 佛壇의 EF와 $AB=CD=EF$ 라는 關係로 기둥의 位置가 定하여 진 것 같다.

萬一에 鄭寅國氏의 所論에 鳳停寺極樂殿을 原型으로 보았을때 浮石寺無量壽殿이 한段階 進化한 狀態라고 한다면 浮石寺無量壽殿의 完全한 黃金分割比의 矩形과 鳳停寺極樂殿의 黃金分割比의 展開와는 一脈相通하는 점 이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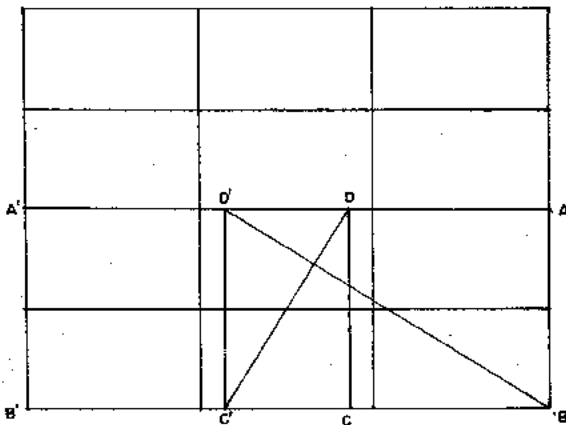
地域적으로도 浮石寺는 慶北榮州郡이고 이에서 멀지 않은 慶北安東郡에 義湘國師에 의하여 浮石寺는 西紀676年 鳳停寺는 西紀672년에 創建되었다는 것과 오히려 時代가 내려 올수록 5:3의 便法의 利用이 많이 된다는 것은 역시 옛것에 더욱 緻密한 點이 있었다고 느껴 진다.

16) 修德寺大雄殿

修德寺는 忠南礼山郡德山面 斜川里에 있으며 國寶인 大雄殿建物로 이름있는 名刹이라고 한다.

創建年代는 統一新羅時代 前後로 보고 있으며 大雄殿은 西紀1308年의 建立이 發見된 墨書銘에서 밝혀 졌다.

平面의 比例는 平面의 折半인 $\square ABA'B'$ 가 1:2.618의 黃金分割比의 矩形으로 되어 있다. (第20圖 参照)



第20圖

즉 $17.66 \text{ 尺} \times 2.618 = 46.58 \text{ 尺}$ 으로서 實測値 46.75 尺보다는 0.17 尺이 작은 값으로 나타 났다.

한편 中央에 六角形의 佛壇이 있다. 正面에서 中央間살은 이 六角形佛壇의 1邊의 4 배가 되어 있으며 佛壇으로부터 正面까지는 佛壇一邊의 5 배의 길이 가 되고 側面全體는 이것의 9 배가 된다.

또 左右 兩側에 있는 佛壇의 가로의 길이 가 側面에서 端夾間部の 間살과 같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佛壇의 크기가 建物の 比例와 密接한 것은 비단 修德寺大雄殿뿐이 아니나 이렇게 佛壇形式도 特異하거나 佛壇과 建物の 比例가 密接함으로서 한層 더 뜻있는 建물이 形成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祖上들이 所謂 内部 空間에 絶妙한 技量을 發揮하는가를 알 수 있다.

17) 松広寺國寺殿 및 下舍堂

松広寺는 全南順天郡松光面에 있으며 曹溪宗大本山 寺刹이다.

國寺殿 下舍堂은 李朝初期의 建物이다.

國寺殿의 平面은 正面이 36.20 尺으로 四等分하여 기둥이 配列되어 있고 側面은 13.80 尺으로 端夾間이 4.25 尺 中央이 5.30 尺의 單純한 平面이다.

比例는 $13.80 \text{ 尺} \times 2.618 = 36.128 \text{ 尺}$ 實測値 36.20 尺과는 不過 0.072 尺 約 2.2cm의 誤差의 完璧한 黃金分割比로 이루어져 있다. (第21圖 参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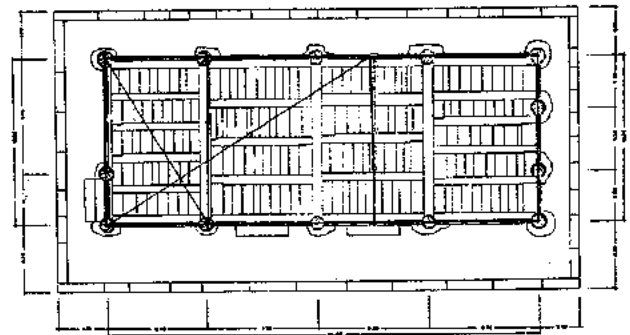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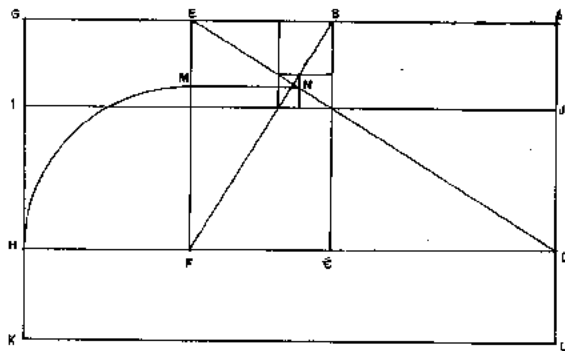


圖 21 松

또 側面 端夾間도 $13.80 \text{ 尺} \times 0.618 \div 2 = 4.266 \text{ 尺}$ 이되어 誤差는 0.016 尺밖에 되지 않은 역시 完璧한 數値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에 下舍堂은 第22圖에서 $AD=11.30 \text{ 尺}$ 이것을 基準으로 하여 黃金分割比矩形을 만들면 $AE=DF=18.283 \text{ 尺}$ $HF=MF$ 라고하면 $HF=7.988 \text{ 尺}$ 이고 實測値는 26.30 尺에 대하여 $18.283+7.988=26.281 \text{ 尺}$ 이 되어 誤差는 不過 0.019 尺 約 6mm의 誤差밖에는 안생긴다. 또 E, F, 點을 기둥 位置라고 하면 $GE=HF=7.988 \text{ 尺}$ 이므로 實測値와는 0.002 尺 約 0.6mm의 完璧한 數値를 얻는다. 또 I, H, 點도 기둥位置라고 하면 $GI=HK=4.317 \text{ 尺}$ 에 대하여 實測値는 4.50 尺 따라서 誤差는 0.183 尺程度밖에는 안나는 참으로 感歎하지 않을 수 없는 平面形態로 나타난다.



第22圖

18) 觀龍寺藥師殿

觀龍寺藥師殿은 第23圖에서 □ ABCD가 建物이고 □ AFGD는 AD를 一邊으로 하는 黃金分割比矩形이다. 對角線 ED와 EG가 만나는 點 즉 旋廻方形矩形的 旋廻의 中心I에서 建物の 側面 BC가 通過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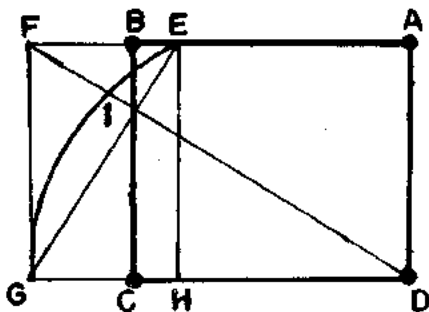
이것을 計算하여 보면 3.189m가 된다.

實測値는 3.22m이기 때문에 誤差가 3.1cm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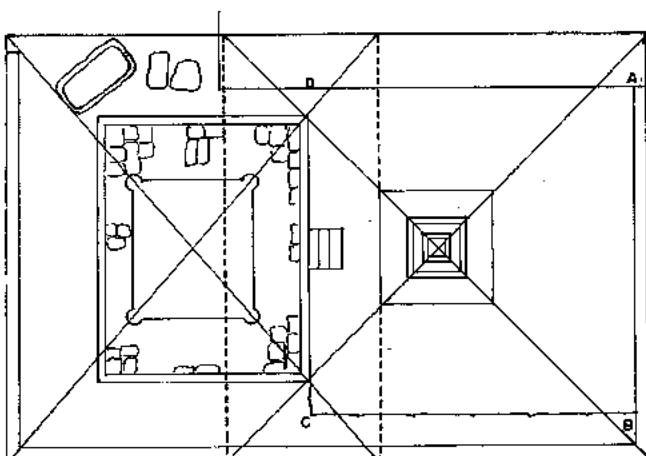
第24圖에서 石塔과 建物の 配置에 있어서의 相關關係는 實로 興味津津한 것이 있다.

平面自体도 黃金分割比矩形을 完全히 利用한 것이 아니고 旋廻의 中心을 利用하는 참으로 알미울 程度의 平面이다.

거기에서 配置圖에서 마당ABCD는 正方形이며 참으로 絶妙한 方法을 쓰고 있다. 이 觀龍寺는 慶南昌寧郡 昌樂面 玉泉里 火旺山中에 있는 李朝建国初에 小規模로 經營된 寺刹이라고 한다.



第23圖



第24圖

19) 鳳停寺華嚴講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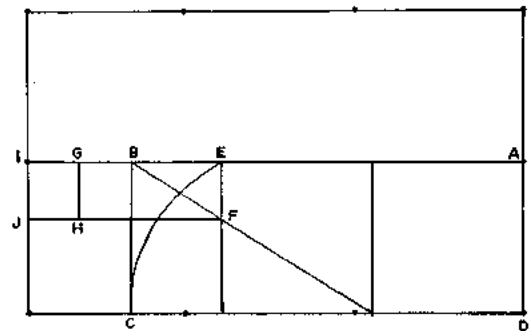
鳳停寺는 앞에서 說明한바 있음으로 華嚴講堂 分析圖 說明에만 끝이겠다.

第25圖에서 $AD : DC = 1 : 2.618$ 이다.

이것을 計算하면 $11.48 \text{ 尺} \times 2.618 = 30.054 \text{ 尺}$ 이 된다.

$BI = 2 EF$ 가 되는데 EF는 $11.48 \text{ 尺} \times 0.382 = 4.385 \text{ 尺}$ 이되고 이것의 2 배이므로 8.770 尺이 計算値이며 實測値는 8.826 尺에 대하여 誤差 0.056 尺이라는 完璧한 比例를 鳳停寺極樂殿도 그러하였거니와 이제 華嚴講堂 또한 實測値와 不過 1.7cm 程度의 差라는 約 696분의 1의 誤差만을 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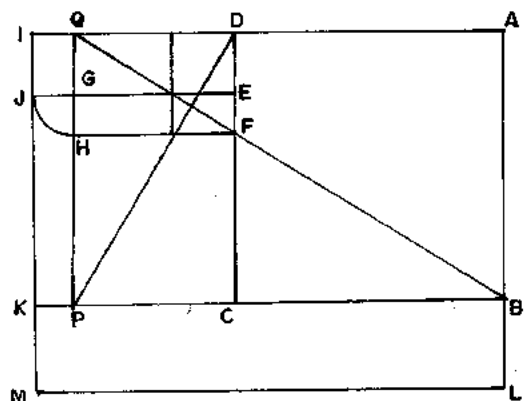
앞에서도 鳳停寺極樂殿에 대하여 記述하였으나 華嚴講堂 또한 黃金分割比의 單純한 展開로서 平面을 構成한 祖上들의 예 함에 다만 머리가 수그러질 따름이다.



第25圖

20) 開目寺円通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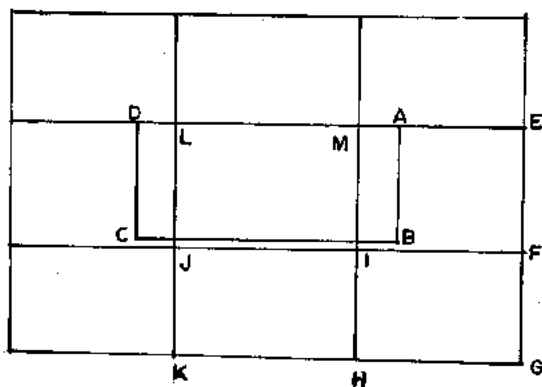
開目寺円通殿은 第26圖에서 □ ABCD는 正方形, □ ABPQ는 黃金分割比에 의한 矩形 IG가 EF되도록 하여 □ ABKI가 얻어진다. 이때 實測値는 24.00 尺인데 計算値는 $13.65 \text{ 尺} \times 1.618 + 1.995 \text{ 尺} = 22.085 \text{ 尺} + 1.995 \text{ 尺} = 24.080 \text{ 尺}$ 이 되어 誤差는 0.08 尺이 되고 기둥配列은 正面은 3 分の 1 側面 앞으로 退間한 $BL = KM$ 은 AB의 3 分の 1 되는 길이이다.



第26圖

21) 栗谷寺大雄殿

建立年代는 文化財大觀에 의하면 李朝初 또는 中期의



第27圖

兩論이 있다고 한다. 역시 栗谷寺도 다른 寺刹에서와 같이 佛壇의 크기에 調和되도록 建築이 이루어진 것 같다.

佛壇은 大體로 그 크기가 3 : 7의 比率로 되어 있다.

또 佛壇과 側面壁과의 거리가 側面 中央間살의 8.50尺이 된 것 같다. 中央間살 8.50尺에 端夾間 7.50尺을 더한 길이 16.0尺은 佛壇의 矩邊의 2倍가 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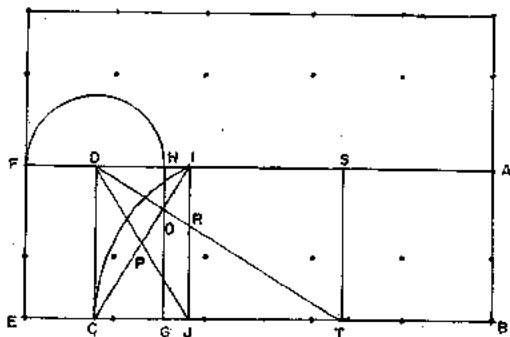
즉 第27圖에서 EG가 그렇다는 것이고 正面 端夾間 한間과 中央間 한間을 합친 24.0尺은 佛壇의 矩邊의 3倍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側面의 EG와 正面의 KG의 比는 4 : 6이며 □HIJK에서 IH=7.50尺과 KH=12.50尺과의 比는 3 : 5이다. 그러면 栗谷寺 大雄殿의 平面은 完全히 決定된다.

22) 密陽嶺南樓

密陽嶺南樓는 年代는 李朝 憲宗10年 西紀1844年이다.

第28圖에서 側面의 折半인 AB=20.10尺을 1邊으로 하여 2.618의 黃金分割比矩形ABCD를 만들고 旋廻의 中心O에서 重線 HG를 긋는다. 이때 DH는 DH=20.10尺×0.446=8.964尺이 되며 FD=DH가 되도록 □ABEF를 만들면 嶺南樓의 折半의 平面을 얻는다. 20.10尺×2.618+8.964尺=61.586尺의 計算値와 實測値 61.60尺과는 不過 0.014尺 約 4mm의 誤差밖에는 안생긴다.

또 正面 端夾間살은 第28圖에서 CP에 該當한다. CP=20.10尺×0.587=11.799尺으로 11.85尺 實測値와는 0.051尺 約 1.5cm의 誤差이다. 그리고 側面中央間살 11.95尺×2=23.90尺은 第28圖에서 大略 TR와 같은 길이이다. TR=20.10尺×1.178=23.678尺 따라서 誤差는 조금 많으나 0.22尺에서 머문다.



第28圖

23) 忠武洗兵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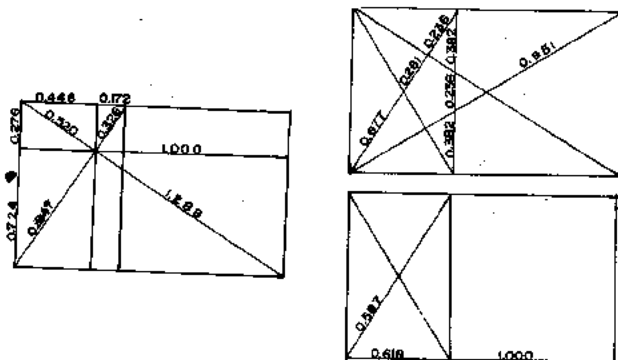
忠武洗兵館은 李祖 宣祖36年 西紀1603年 忠武公의 戰功을 紀念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 후 三道水軍 統制使營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 現存하는 木造建物중에서 面積이 가장 큰 例의 하나라고 한다.

中央의 3間을 高座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側面의 端夾間 間살만이 작은 9.50尺이고 나머지는 全部 같은 12.40尺으로 되어 있는 平面이다.

따라서 端夾間 9.50尺과 側面의 折半의 길이 28.10尺과의 比率이 大略 28.10尺의 3分の1이 아닌가 생각된다. 28 : 10尺÷3=9.37尺과의 誤差는 0.13尺인데 그

에는 어떠한 比例關係인지 알길이 없다.

만일에 앞에서 말한바가 많다고 하면 側面全體의 넓이對 兩端夾間을 뺀 中央의 12.40尺×3=37.20尺 외의 比는 6 : 4가 되어 亦是 3 : 4 : 5의 整数比가 아닌가 생각된다.



黃金分割比 矩形의 各部分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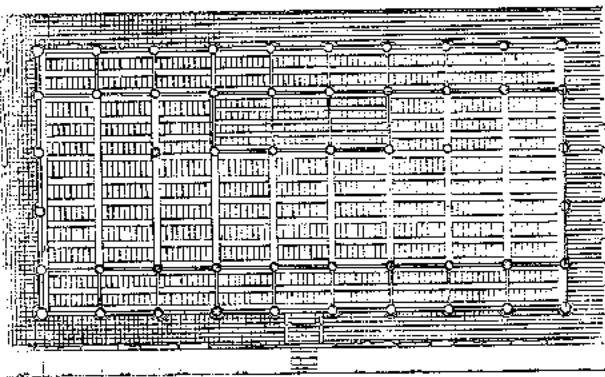
24) 結 語

以上 平面分析을 概觀하건대 $\sqrt{2}$ 矩形은 正方形의 對角線을 一邊으로 하는 單純한 作業이면 끝이 나는 作圖이기 때문에 比較的 많이 쓰일것 같았으나 事實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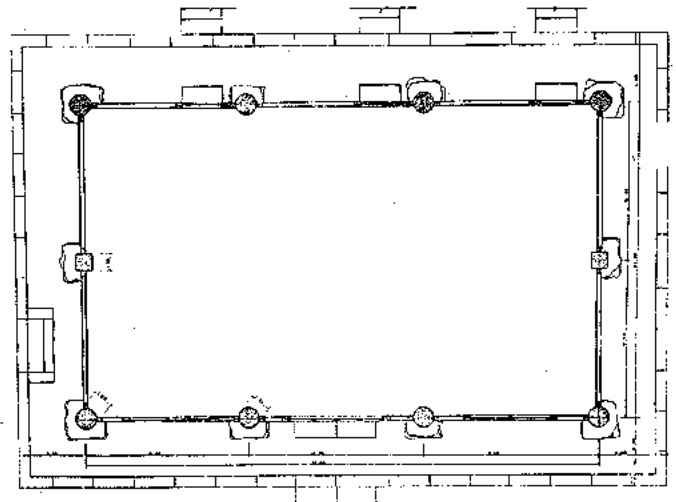
오히려 黃金分割比의 略算法으로 看做하는 3 : 4 : 5의 整数比가 많이 쓰인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 $\sqrt{2}$ 矩形보다는 作圖가 좀 더 複雑한 黃金分割比가 오히려 年代가 오래된 建物에서 쓰였다는 것은 萬一에 黃金分割比가 傳來되어 왔을때는 그의 利用 그의 應用이 쉬웠으나 歲月이 흐름에 따라 略算法이 더 簡便하게 利用이 된 것이 아닌가 推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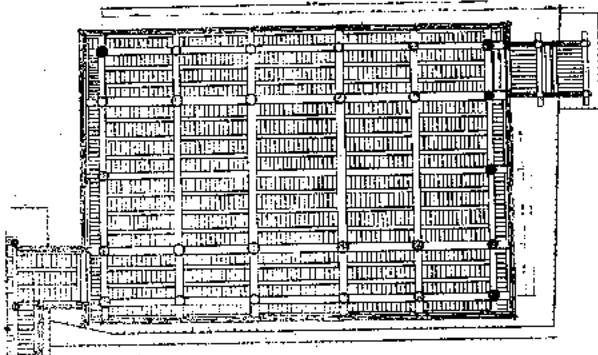
그렇게 心証을 굳히는 理由의 또 한가지는 申榮勲 金東賢 兩氏의 韓國古建築斷章(空間 1967年 12月号)에서의 石窟庵에 대한 造營計畫解釋을 볼때 1例를 들면 斷面에서 全高가 唐尺 30尺 巾이 唐尺 24尺이면 全高를 半分한 15尺과 24尺의 巾의 比는 1.6 : 1 즉 黃金分割比에 아주 가까운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佛像板石高 9尺이라 함은 15尺의 0.6倍 즉 $\frac{\sqrt{5}-1}{2}$ 에 該當하고 本尊像높이 12尺은 黃金分割比矩形의 一邊의 折半을 나타 내는 등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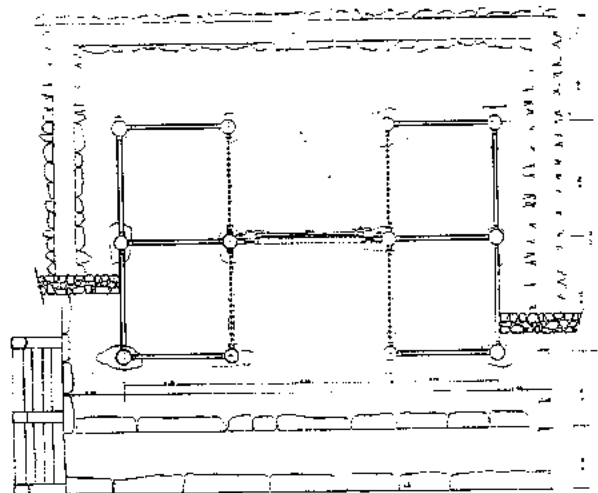
忠武洗兵館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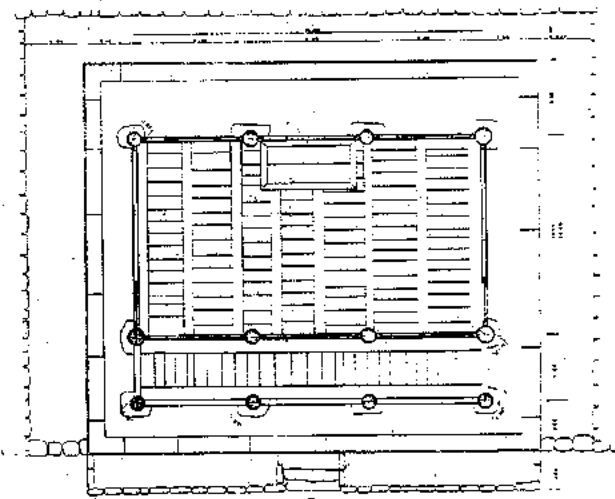
鳳停寺華嚴講堂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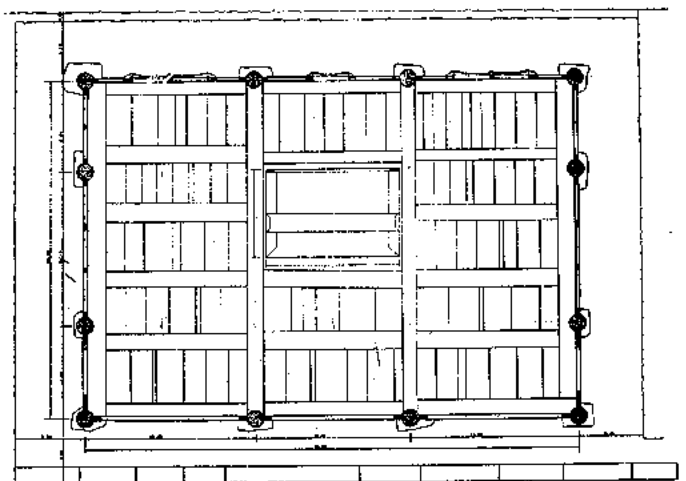
密陽嶺南樓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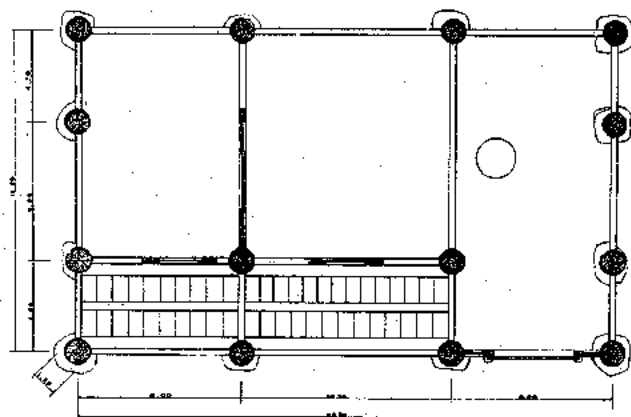
道岬寺解脱門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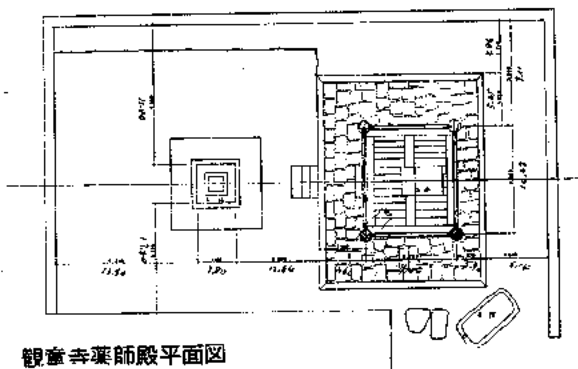
開目寺円通殿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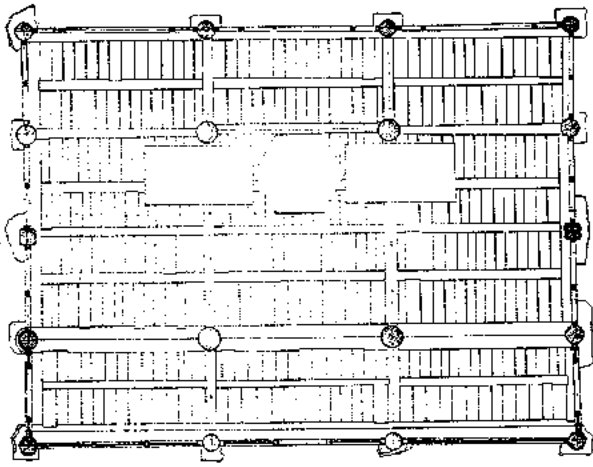
無為寺極楽殿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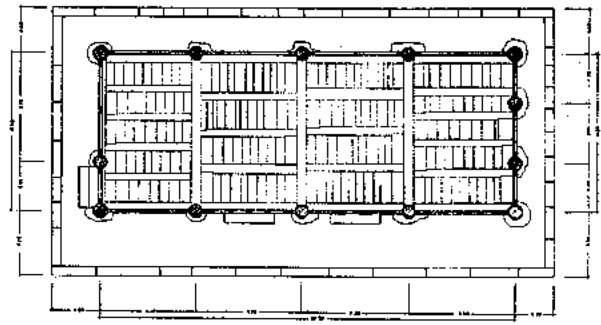
松廣寺下舎堂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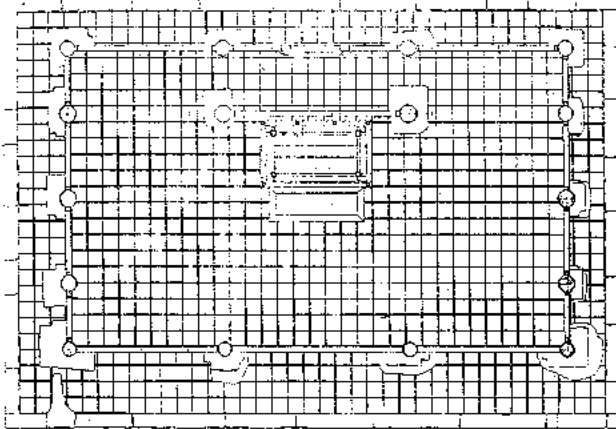
観童寺薬師殿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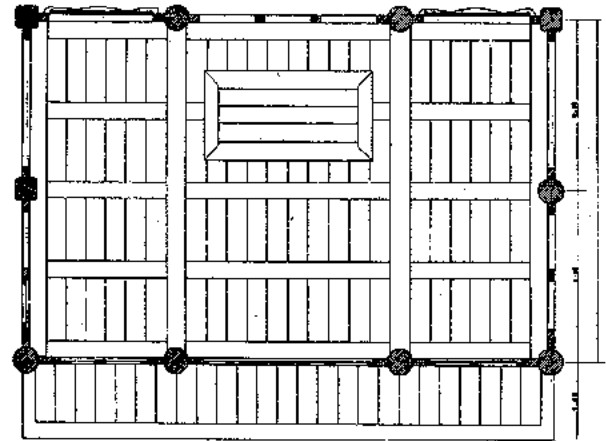
修徳寺大雄殿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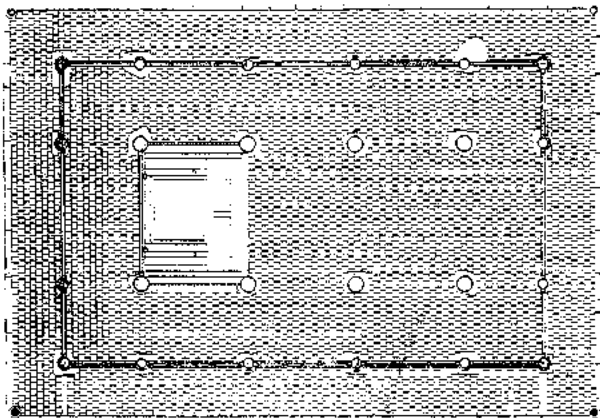
松広寺国寺殿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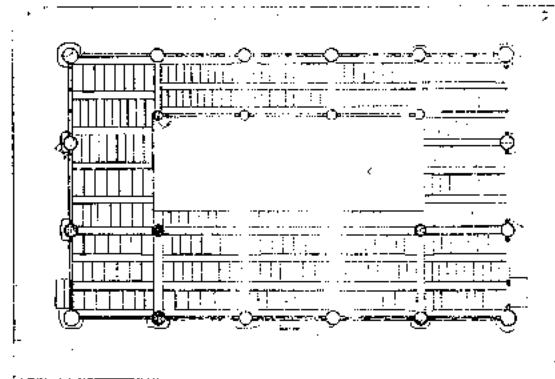
鳳停寺極楽殿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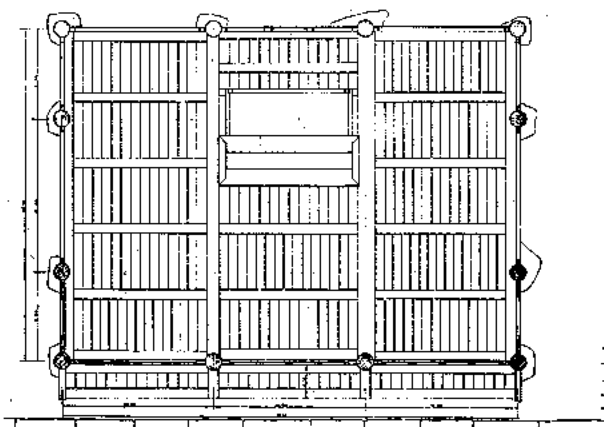
長谷寺下大雄殿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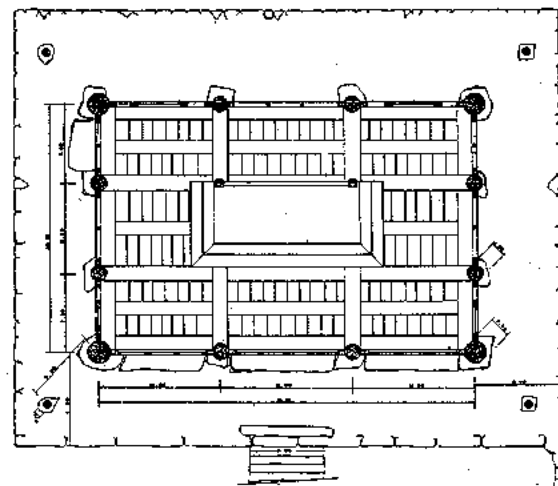
浮石寺 無量壽殿 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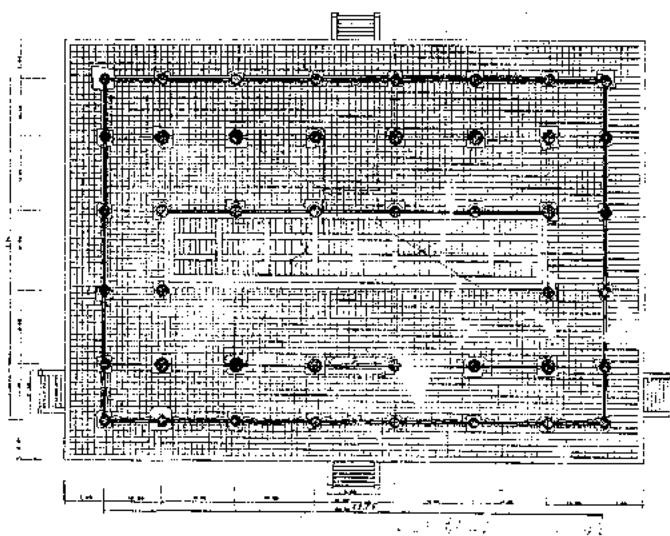
華嚴寺大雄殿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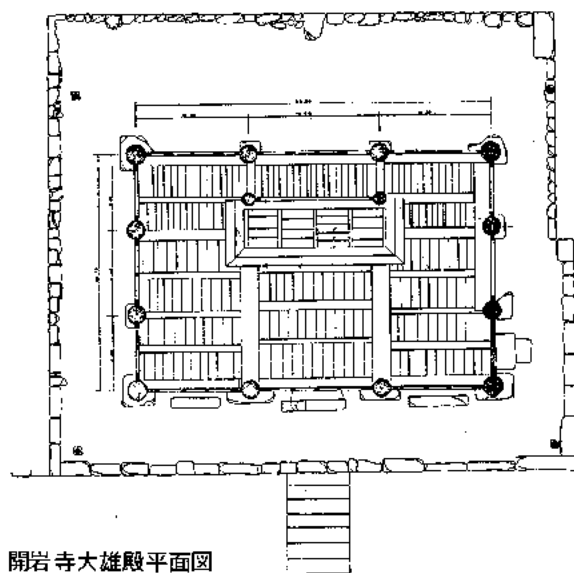
開心寺大雄殿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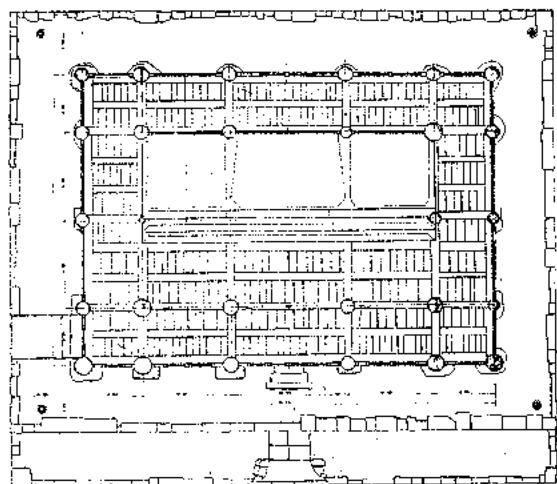
栗谷寺大雄殿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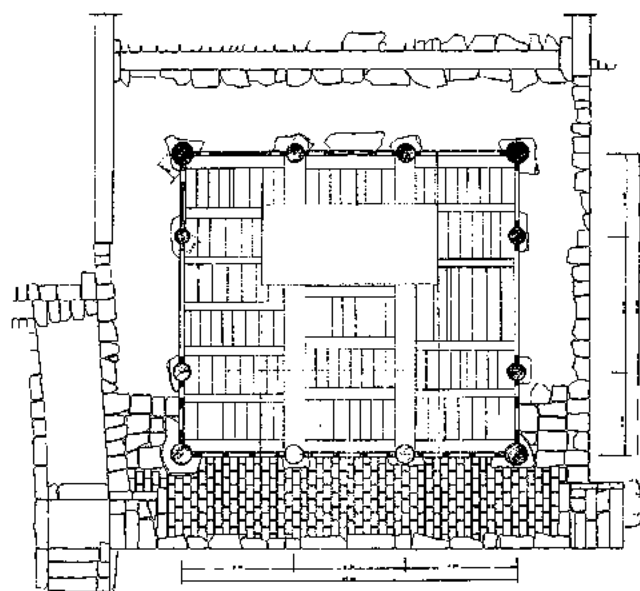
華嚴寺覺皇殿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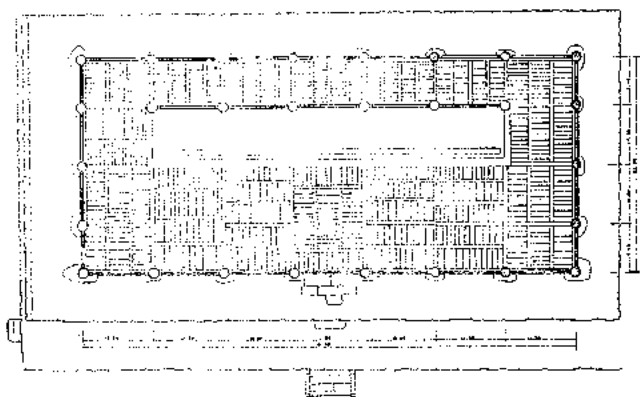
開岩寺大雄殿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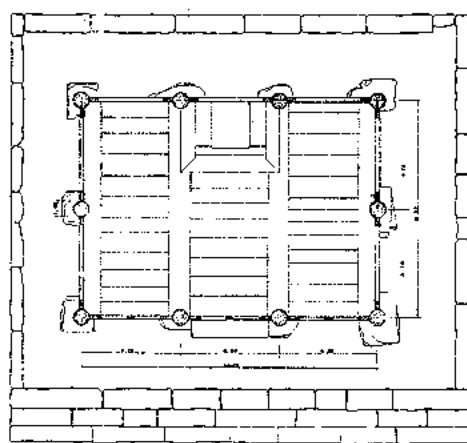
無量寺極楽殿平面図



伝灯寺大雄殿平面図



金山寺大寂光殿平面図



伝灯寺薬師殿平面図

前衛 建築

Toward an "Impure" Architecture

By Franz Schulze

編輯部 제공

최근 美國의 建築家들 사이에는 Robert Venturi의 都市 환경에 관한 包括的이며 非慣習의인 理論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시작되고 있다. Venturi는 現代建築의 단순성, 순수성, 기능주의에 대하여 점차로 커져가는 관심을 배척하며, 그 대신에 그는 建築家들이 20세기 도시들의 천박하고 무질서한 요소들 속에서 발견되는 生命력을 認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Venturi氏의 思想과 建築物들을 검토해 볼 Franz Schulze는 Lake Forest College의 美術 教授이며, Chicago Daily News 紙의 美術評論家이다. 뿐만아니라 그는 여러 신문 잡지에 定期的으로 建築에 대하여 寄稿하고 있으며, 現在 "시카고의 建築家와 지난 30년간의 建築"에 대한 著書を 마무리 짓고 있는 중이다. Franz Schulze는 "Fantastic Images : Chicago Art Since 1945"의 著者이다

지난 10年동안 美國의 建築家들은 주로 美國의 東部 해안지방에 거주하는 前衛 建築家들 사이에서 1960年代 初期에 있어 주요한 傾向들의 대부분을 집대성한 建築上의 急進的 견해에 대하여 高潮되는 關心을 표해 왔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闡明은 前衛 建築家의 한 사람인 필라델피아의 建築家 Robert Venturi氏의 著書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and Learning from Las Vegas 속에 잘 나타나 있다. (Venturi氏의 반려자인 부인 Denise Scott Brown 女史는 그와 함께 건축에 대한 저술과, 건축물을 설계하는 일을 돕고 있기도 하다.)

이제까지는 Venturi氏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展開된 이 理論들은 간단한 또 결정적인 이름을 갖지 못하고 상징적, 聯想的 또는 팝(Pop)건축, 그리고 적응성 있는, 또는 포괄주의자의인 설계, 또 무질서주의, 혹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美術 이라는 이름이 붙어 왔으나, 이 명칭들은 몇몇 공식적인 표시 들이며, 그 반면에 요컨대 이 명칭들은 단지 建築物의 새로운 哲學에 대한 무엇인가 밀착되는 것만을 암시하는 것이며, 이 명칭들 중 어느 하나도 다듬어져 있지 않고 함축적이지 못하였다.

어느 점에서 Venturi氏 자신은 그것을 非直線的(non straight forward) 건축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것을 토의하기 시작할 적당한 場所가 아마도 건축 이외의 어느 곳



Franz Schulze

에 이를테면 繪画에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확실히 Venturi氏의 생각과 설계는, 現代美術이 現代建築에 대하여 보다 現代建築이 現代美術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커다란 빛을 지고 있다는 과거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1966년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라는 책이 출판되었을 때에 팝 아트 (Pop Art)는 그 나름대로의 美學的인 肯定을 이미 개발하였다. 즉 평범한 事物 속에는 眞理가 있다. 우리 時代의 都市生活의 무질서와 표류물 속에는 生命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日常生活의 현상들(수우프 강릉으로부터 마릴린 몬로의 사진에 이르기 까지)이 활발한 매혹의 주위에 중심을 이룬 이 팝 아트는 1950年代의 추상표현주의 속에서 찾아낸 영웅적인 위치와 도덕적으로 부가된 의미의 아이러니컬한 때로는 경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팝 아티스트들에게는 환경은 "순수", 예술가들이 오랫동안 투쟁했거나 지나쳐 버린 바로 그 "自國의인 것" 속에 활력과 흥분을 가지고 있는 듯 하였다. 日常生活의 어떠한 도덕적인 또는 미학적인 판단을 피하면서, 팝 아트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 배울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럼으로써 그 生活의 모든 혼란된 심상을 쫓아내기보다는 오히려 포용하는 하나의 예술로서 응수하였다.

"팝" 아트에서 "팝" 건축으로

繪画와 彫刻을 超越한 실제적인 美로서의 "팝"(Pop)의 함축성을 Robert Venturi氏는 잃지 않았다. 사실상 필자가 여기서 쓰고 있는 바로 그 줄어든 Venturi氏 자신의 現代建築의 實相에 처한 評價에 자주 나타난다. 환경은 자유방임적 상업 주의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또 천박해지며, 다만 정돈되고, 통일되고, 雅緻있는 계획의 도덕상 야심적인 프로 그램에 의해서만이 구해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신념을 가짐으로써, 회화에 있어서 추상의 제안자들의 고매한 견해는 Venturi氏가 정통적인 현대 건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체로 상당한다. Frank Lloyd Wright, Le Corbusier, Mies van der Rohe와 the Bauhaus School

의 사상과 상당히 공통되는 것은 어둡고 무질서한 환경을 청결, 단순하며 순수하고 기능주의에 입각한 건축에 의하여 정화 하려는 유토피아적 욕구이다. 이 목적들을

現代建築運動이 현대 사회에 심은 실제적인 영향과 대조했을 때 Venturi氏의 마음 속에서 커져 나갔던 회의주의는 추상화화에 대한 팝 아티스트들의 反動과는 다른 것이었다. 현대 건축은 세계에 다시 秩序를 부여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세계가 좀더 健全하고 더욱 優雅한 場所가 되도록 돕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Venturi氏는 믿고 있다. 無秩序는 現代都市 環境의 불가피하고 압도적인 事實이다. 건축이 環境에 대하여 가능한 실제적 효과를 가지고 일에 착수한다면, 그것은 現代正統建築이 응용 되어야 할 것 이외에 어떠한 견해와 표준의 몇몇 結合일 것 같다.

Venturi氏의 論評은 現代의 無秩序 問題 解決의 評價 以上の 것에 있고, 사실상 그 問題 自体에 대한 함축성 있는 다른 理解를 포함하는 것이며, 아마도 그 무질서는 새로운 一面을 가질만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상당히 독소가 있으며, 그렇게 전혀 구제되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무질서하다는 것을, 現代理論이 간주하듯이 確信하고 있는가? Venturi氏는 이를 否定한다. 그리고 그는 “복잡성과 모순”은 종종 예술 작품들을 자극적이며 의미 심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附言한다.

Venturi氏는 T·S·엘리올과 Elisabeth 時代의 藝術을 그 속에 복잡성과 애매모호함이 나타난 즉 “Shakespeare의 희곡 중에서...당신은 중요성의 여러 수준을 얻는 것이다”와 같이 비순수 예술이라고 불렀음을 상기한다. 그는 다시 문예 비평가인 Cleanth Brooks를 인용한다. 즉 “만약에 詩人이...경험의 단일성을 희곡화 하여야만 한다면, 그것의 다양성을 칭찬할지라도 그 때에는 그의 파라독스와 모호성의 使用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질 것이다.”

Venturi氏는 現代 建築家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否定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을 타파하기 위한, 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는 試圖에서 그들은 現代의 기능의 복잡성을 무시한 채 현대적 기능의 새로움을 환영한다. 改造者로서의 그들의 역할 속에서 그들은 청교도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물들의 포괄과 그와 동등할 만한 것들 보다 오히려 요소들의 분리와 축출을 옹호한다.

그는 그리고 나서 Michelangelo氏가 설계한 제단으로부터 벨기에의 Bruges에 있는 Town Hall까지를 망라한, 모호성, 不調和, 形式上的 파라독스에 의해서 풍부해지고 활기를 띠게 된 과거의 많은 기념물들을 분석 함으로써 자기의 論點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성공적으로 규칙을 무너뜨린 이들 實例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낸다. 즉 “한 부분의 명백한 비합리성은 그 전체의 결과로서 생기는 합리성에 의하여 정의되어 질 것이거나, 또는 한 부분의 특성은 전체를 위하여 타협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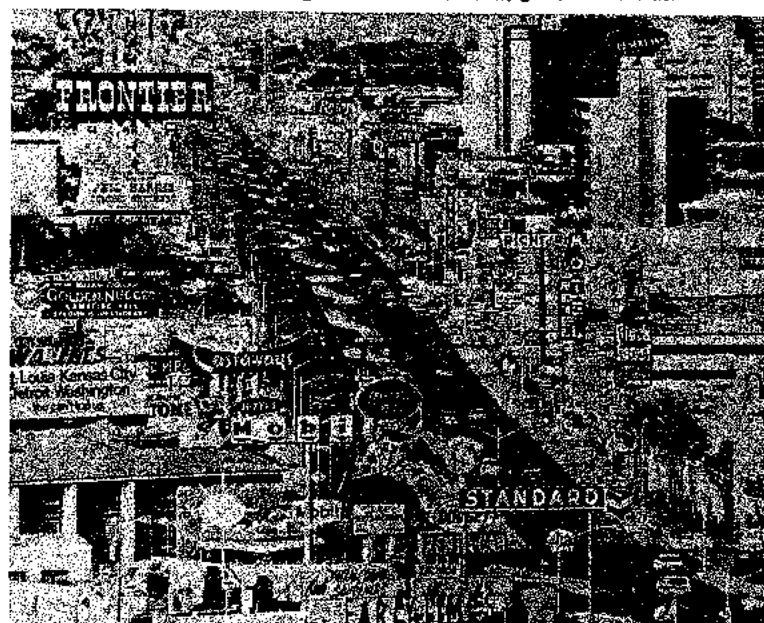
무질서 속에 감춰진 통일성

이 말은 Venturi氏가 1972년에 낸 著書 “Learning From Las Vegas.”에 기술한 것중의 일부이다. 이 책에서

그는 美國 西部 Nevada 주 Las Vegas 거리의 저급하고 네온 싸인이 휘황한 나이트 클럽과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카지노 구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팝 아티스트들과 마찬가지로 “무질서”를 새롭고 냉정한 눈으로 再考하기로 결심하였다. 正統的 現代 취향에 따르면, 이 지역은 건축의 추악성과 재생할 수 없는 都市의 陳腐함의 상징으로 看做된다. Venturi氏는 그가 발견하였던 사실이 스스로 일종의 통일성 속으로 즉 現代 建築에 의하여 唱導된 노선의 단순화된 순수함 보다 더욱 복잡한 그리고 Las Vegas실제의 파라독스와 모호성으로 대체로 유래될 수 있는 生命력을 가진 미묘한 통일성 속으로 용해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사실상 Las Vegas 거리는 비록 복잡다단하기는 하지만 매우 뚜렷하게 그리고 순순히 그 곳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의 종류에 적당하도록 지향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 보다도 먼저 자동차의 풍경이다. 사람들이 빠르게 또는 단속적으로 밤에도 낮 만큼이나 자주 차를 타고 중첩으로 지나치는 주위 환경이다. 그래서 공간은 하나의 유동체 즉 거리를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며 형태에 의해서 토막 토막 나는 것 보다 오히려 “라이트”에 의해 구멍이 뚫어지게 되며, 움직임 속에서 분해된다. 사람들이 그저 걸어서 갈 때면, 그는 그렇게 관습적으로 회끄무레한 내부속을 걸어 간다. 클럽 또는 카지노는 그 속에서 “공간은 인공의 불빛이 그의 경계를 밝히기 보다 오히려 흐리게 하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대낮과 한 밤중의 빛이 꼭 같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다.” 주장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Venturi氏 그 반면에 교통의 패턴은 뚜렷하고 정연하다. 도로의 특징과 또 방향 표시이거나 행인들의 주위를 끌어들이는 극장입구 같은 데의 대형 차판들이거나 간에 마찬가지로 길도 덧붙여 말해야 하는 데, 형식적으로 무명이고 값싸게 건축된 박스임을 통탄할 빌딩들은 광대한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다.

Las Vegas의 거리—복잡하며 활력이 넘치는, 不規則인 자동차의 風景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건축

간단히 말해서 Las Vegas 거리의 건축은 주위 환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 형태보다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공간적이기 보다는 상징적이며 또 비형식적이고, 反英雄的이며, 기념비적이지 않다.

Venturi氏は “여기서 Las Vegas는 건축적 커뮤니케이션의 단지 하나의 현상으로서 分析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가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는 교훈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그의 연구를 마치고 있다. 그가 확립하려고 하였던 것은 Las Vegas가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그 자신을 인스탄트한 필요에 이미 받아 들여진 이론이나 훌륭한 기호나 결박주의를 억제하는 축의 중재없이, 적응하는 건축에 의해서 정리 되었다는 것이다. “무질서”는 무질서한 것 처럼 보이지 않으며, 그것은 자주 생활이 풍부한, 또 활력을 가진 그리고 그 자신의 풍부한 긴밀성을 가진 그 무엇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우리의 변하기 쉽고 유동적이며 무상한 세계를 의미 있게 할 지각있는 건축을 형성할 수 있다.

Venturi氏와 전에 Yale 대학 건축학부 동료였던 Charles W. Moore氏は 우리의 장소에 대한 이해 — 이 지상 위의 특별한 위치 속에서 인간의 그 자신에 대한 이상의 정돈된 확장 — 가 전면적인 電氣의 혁명 때문에 20세기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했다고 썼을 적에, 그로 인해 Venturi氏의 의도를 좀 더 밝혀 주었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들 자신의 장소는 우리의 생활처럼 하나의 인접하는 공간 속에 얽매어 있지 않다. 우리의 질서는 적개심을 품은 외부로부터 감쪽같이 분리되어,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상의 可視的인 걸치레를 자유로이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불연속적인 내부 속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 우리들에게 최상의 것인 세계는 어쨌든 과거 반 세기 동안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즉시로 전기에 의한 접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끽하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장소는 즉 볼 수 없는 전기의 야고로서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20세기에 있어서의 “장소”에 대한 Moore의 이해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은 Volume과 Space의 낱게 고정되고, 정적이며 계층적인 관계에 우선한다. 현대 건축은 형식적으로 정리된 더욱 추상적인 태도를 통해서 보다는, 사상과 표지와 상징과 교통 패턴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시 하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Moore氏에게 따른다고 하겠다. Moore氏와 Venturi氏 두 사람이 유토피아적 구상자들에게서 느꼈던 작성은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자원에 남겨진 사람들이 하는 것의 生命력을 믿는다는 것이었다. Moore氏의 말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생활을 가진 “장소”이다. 여기에 Venturi氏は Bauhaus school의 유명한 슬로건인 “Less is more.”를 뒤집어서 “More is not less”라고 덧붙여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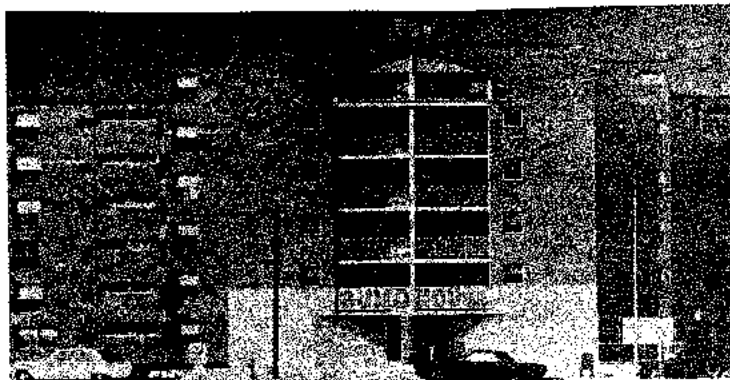
Moore氏와 Venturi氏와 그의 동료들의 이론은 커져가는 양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건축물들이 과연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질문이 야기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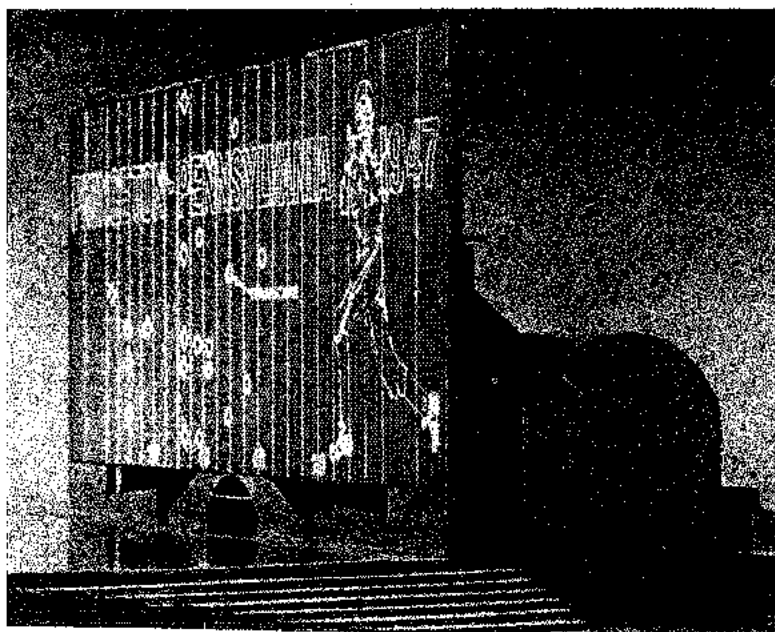
Venturi氏의 건축물

Venturi氏가 실제로 세운 비교적 소수의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Guild House인데, (레이크親友會의 年老者를 위한 집으로 필라델피아의 Spring Garden Street에서 남쪽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첫 눈에 거의 아무런 주의도 끌지 않는다. 이러한 수수함의 이유 중의 일부는 건축가가 작업해야만 했던 적은 예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커다란 이유는 그의 의식적인 企圖의 결과이다. 그는 그 건물을 오히려 단조로운 이웃과 조화 시키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 건물을 평범한 주택 계획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도록 설계하였다. 그 건물은 이웃들 속에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평범한 주택 계획이라는 점을 그는 지적한다. 여기에는 暗隱裡에 아이러니가 솔직함 만큼이나 풍기고 있다. 그러나 Guild House의 꼭대기에 솟아 있는 도금된(적어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텔레비전 안테나의 아이러니는 전적으로 명백하다. Venturi氏에게는 텔레비전 안테나는 노인들의 특히 제한된 오락의 可能性들의 하나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것은 냉소적인 난관을 가지고 노인의 집에 있는 노인들의 일반적인 가련한 상황을 지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비판으로서의 건축의 기능인 것이다. (그 건물의 거주자들이 이 냉소적인 제스처를 칭찬할런지는 그 건축가는 묻지 않았던 것 처럼 보인다.)

그러한 考案은 Venturi氏가 建築에 있어서의 연합의 요소 위에 자리를 놓을 커다란 강조를 예증한다. 그는 건축물로부터 장식물을 제거하는 현대 건축의 경향을 몹시 싫어한다. 즉 건축물, 자신의 바로 그 공간들과 형태들을 건물의 장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건축가의 공식적인 어휘를 무의미하게 하는 데 더하여, 이런 경향은 공간적인 관계는 물론 사상과 가치를 표현하는 건물의 전통적인 힘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Guild House—Venturi氏가 노인들을 위해 설계한 집으로 설계상 신중하면서도 평범하다.





National Football Hall of Fame을 위전달하는 전광판 한 블랜—움직이는 영상들

Venturi氏의 論據는 사실상 그 과정이 거꾸로 되는 것을 즉 사상과 커뮤니케이션은 구조의 실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National Football Hall of Fame을 위한 그의 현실화 되지 않은 제안에서 그는 이 어프로치를 정확하게 취하였다. 여기서 본래의 건물은(집과 기록을 뜻하며 그리고 전시품을 내보이며, 영화를 상영하며, 국립 스포츠 전당의 관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20만 개의 불빛이 움직이는 영상, 낱말, 語句를, 심지어는 축구 경기의 도표까지도 만들어 내도록 전자 공학적으로 짜여진 광대한 게시판에 의하여 작게 보인다. 그 전광판과 그의 빛시지는 건너편의 넓다란 주차장에서도 보이는 데, 단지 그 건물의 부속물들만이 아니라고 하겠으며, 전체 계획의 하나의 완전한 부분이라 하겠다. 사실 그것들은 중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상징들은……오늘날의 광막한 공간들과, 빠른 속도, 복잡한 프로그램, 그리고 아마도 오로지 커다란 자극들에만 반응하는 지쳐버린 정감의 중대하고 일스란만한 연합을 환기시킬 수 있다.”라고 Venturi氏가 말했듯이 말이다.

反建築?

비평가들이 Venturi氏의 이론을 反 건축적이라고 부를 때, 대개는 그것은 강한 비판을 뜻하는 것이다. Venturi氏 자신은 그 말을 단순히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는다. 그는 사실상 “우리 시대는 다른 시대이다. 非英雄的이며 (反英雄이 우리의 영웅이다), 非보편주의자의이며, 反 건축적인 시대이다.” 라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상을,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들을 그가 느끼는 한 멀리까지 기꺼이 주입시켜 왔다.

비평적인 反動은 Venturi氏의 설계보다는 오히려 그의 이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그의 이론들의 완전하고 결정적인 轉移라고 간주될 수 있는 실제 구조를 만들어 내는 데 아주 충분한 예산을 가

지고 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의 옹호자들과 비방자들은 열렬하게 상반되는 대열 속에 정렬하고 있다. Venturi氏의 지지자들중의 대부분은 미국내에서 진보된 이상에 대한 공감이 전통적으로 가장 컸던 동부 해안 지방의 건축계와 연관되어 있다.

Venturi氏가 실로 진정한 前衛를 대표하는 지는, 금세기에 있어서 기술은 건축을 위한 결정적이며 또한 필요한 잠재적인 하나의 도구라는 견해를 Mies van der Rohe와 같이하는 다른 많은 건축가들에 의해서 논쟁이 되겠다. 이들 設計上들은 기술의 최신 도구들의 사용에 대한 그들의 언질에 의해서 바로 그들이 가장 “진보 되었다”고 주장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Venturi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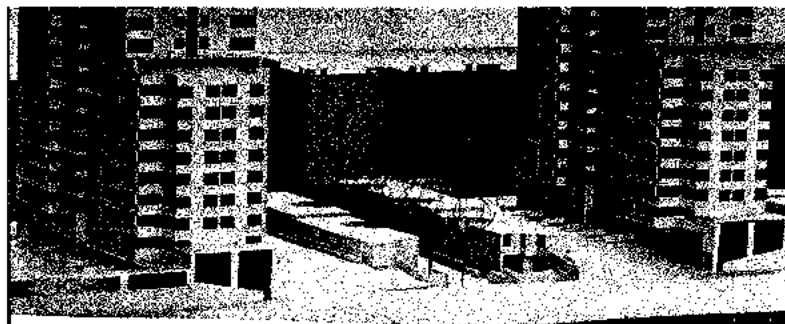
의 理想속에는 기술에 대한 뚜렷한 각성과, 그리고 관습적이고 현대적인 의미 속에서 “계획”과 관련된 큰 각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이 동부 해안지방의 그의 찬양자들이 Venturi氏에 대해 매력을 발견하는 말하자면 진보된 것이라는 것이다. 근래 예술의 독특한 점은 사회적 유토피아주의와 知的 낙관주의를 가진 각성이었으며, 그리고 이것은 여러 藝術을 중흥하는 거의 끊임없는 아이러니의 연속이 원인이었다. 이러한 특성들이 Venturi氏의 이론에도 역시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東部 그룹의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건축상의 문제에 대한 그의 이해 속에서 모더니스트들 보다 더욱 사이 좋은 것 처럼 보이는 것이다.

Yale대학의 교수로서 뛰어난 건축비평가이자 建築史家인 Vincent Scully氏는 Venturi氏의 사고방식에 매혹되어 왔다.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에 대해서 Scully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것은 Le Corbusier의 Towards an Architecture of 1923 이래에, 건축의 발달과정에 대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저술이다. ...Le Corbusier의 著書는 건축 속에서, 단순한 건물들 속에서 그리고 전체 도시 속에서 교상한 순화주의를 요구하였던 반면, Venturi의 저서는 모순들과 도시생활의 경험의 복잡성들을 모든 척도에서 환영하였다.” 그리고 뉴욕 현대 미술관의 건축과장인 Arthur Drexler氏는 Venturi氏가 “수세대에 안에 따라올 가장 오래지닐하고 이치에 들어맞는 건축이론을 내놓았다”고 믿고 있다.

금세기의 역사상 前衛들 중의 대부분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운동이 되어가고 있었음이 확실하고 그러한 운명이 Venturi氏와 그의 견해를 기나릴런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많은 논쟁은 이 점에서 역사상의 후위들과 연관된 전형적인 반동적 변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하나의 예로서 논설자이자 평론가인 Peter Blake氏는 Venturi氏의 이론들이 Venturi氏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새로운 것이라는 견해를 부인 한다.

Blake氏는 심지어 Venturi氏가 설정한 前提들 중의 몇몇에 대하여 특히 정통 모더니스트 건축은 순수하고, 단순한 질서에 얽매어 있다는 것에 의문을 품는다.



變質한 Housing Project—Venturi氏는 대중에게 친근한 형태들을 지향하여 설계하였다.

금세기의 지도적인 건축가들 중에서 단지 Mies氏만이 “순수한 질서에 대한 딱딱한 꿈”을 꾸었던 것에 대하여 정말로 비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피상적인 평가일 것이다. 즉 “보편적인 공간”에 대한 Mies氏의 소개념은 예견할 수 없는 변화들과, 모순들을 포함한다.

Venturi의 비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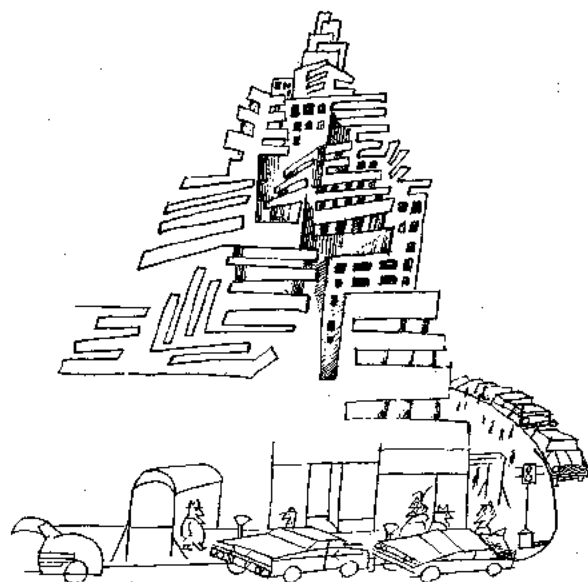
그러나 Venturi氏에 대한 반대측의 대부분은 그의 獨創性의 문제에는 言及되지 않고 있다. 많은 비평가들이 Venturi氏의 사상을, 사색하는 데에 매력을 발견하는 반면, 그들은 실제적인 산물이나 혹은 심지어 그의 이론들의 철학적인 함축성조차도 찬양하지 않는다. 실명 批評家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Venturi氏의 각성에 공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마도 논쟁을 벌일 것이며, 그리고 Venturi氏의 표현상의 아이러니의 결과로서 생기는 표정에 공명한다손 치더라도, 형태의 世俗化와 재료의 영화화라는 두가지 요소를 도입하거나 또는 용인하는 건축적 歪曲을 칭찬하기는 힘들 것이다. 더군다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낡은 유토피아적인 질서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낡은 혹은 새로운 무질서는 빈약하고 쉼이 없는 교환처럼 보인다. Venturi氏의 “反建築”의 개념은 아마도 매력적인 사상일지도 모르며, 그리고 근래의 회화와 조각에 있어서의 “反形態”, “反美術”의 경향들과 매혹적으로 상응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Venturi氏의 비평가들은 그러한 유추는 중요한 차이점을 흐리게 한다고 말한다. 즉 건축이 公利主義의 수단으로 남아 있으므로 현시대에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이론적인 公理도 경탄할 만한 매우 知的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회화와 조각은 이 자기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形態로서 그것을 감수하는 것은 회화를 문학으로 바꾸어 보려고 하였던, 그리고 그 형태를 과정 속에서 결말지었던 19世紀의 寫實화가의 고안을 반복하는 것이다. (寫實화가 역시 그들의 작품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를 양양하였다.)

그래서 모더니스트가 아닌 Venturi氏 자신에 대한 비난은 야만주의는 물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건축의 빈곤의 조짐인 것이다. 이에 대한 반격은 역시 또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Venturi氏의 “유토피아적 질서”의 배척과 그의 “사람들의 활동에 적응하는”에 대한 그의 의지가 그들이 은밀한 귀족적이라는 대중주의자의 사상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內包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중주

의자의 사상에는 날카롭게 궤변적인 아이러니와 냉소적인 불가사의와 그의 사상을 관통하는 “매너리스트”의 왜곡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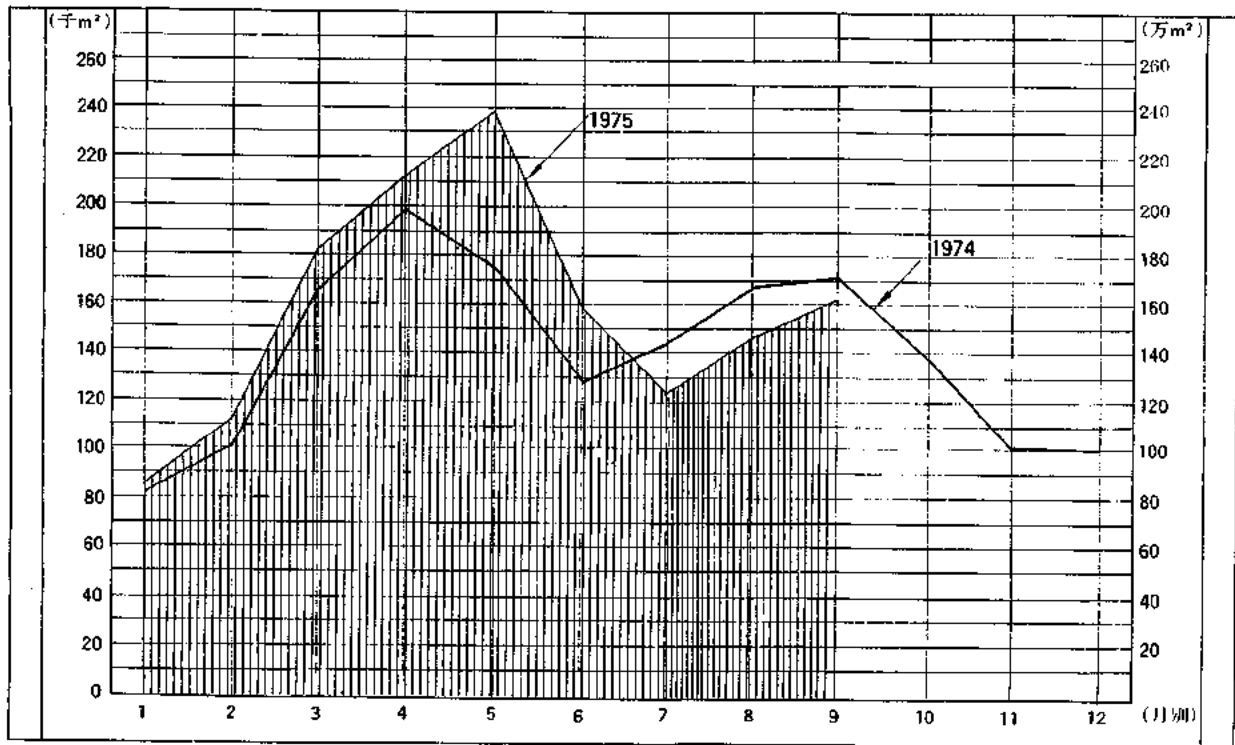
Venturi氏의 支持者들과 反對者들 사이에 놓인 간격은 그가 注目을 끄는 方式으로 부터 뿐만 아니라 그가 無視되는 方式으로 부터도 區別될 수 있다. 새로운 전통이 Mies van der Rohe氏의 덕택이며 그리고 International Style이 적어도 십년이상 활개치고 있는 시카고에서는 Venturi氏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다. 시카고는 그 都市 자신 기성 건축제를 가질 만큼 건축상 탁월한 곳이다. Venturi氏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 少數의 建築家들 중에서 Venturi氏의 이론에 대한 意見은 대체적으로 유리된 無關心으로 부터 曰可曰否할 資格조차 없는 적개심에 까지 그 범위가 이르고 있다. 그들은 추상적 型을 위한 특이한 건물들을 포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도시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Venturi氏의 의견을 배척한다. 그 대신에 그들은 시카고의 중심부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는 도시의 복합체 중 하나 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통적 모더니스트들”로 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해의 날카로운 분열은 미국 건축계의 부분적 편협성 보다는 오히려 미국 건축계의 건강의 표시일런지 모른다. 確實히 오늘날 美國의 建築第一主義에는 현저한 多樣性이 있다. Robert Venturi氏의 持論의 根本的인 중요성이 이 시간에도 아직 논쟁 속에 남는다면, 汎國家的인 多樣性에 대한 그의 커다란 기여는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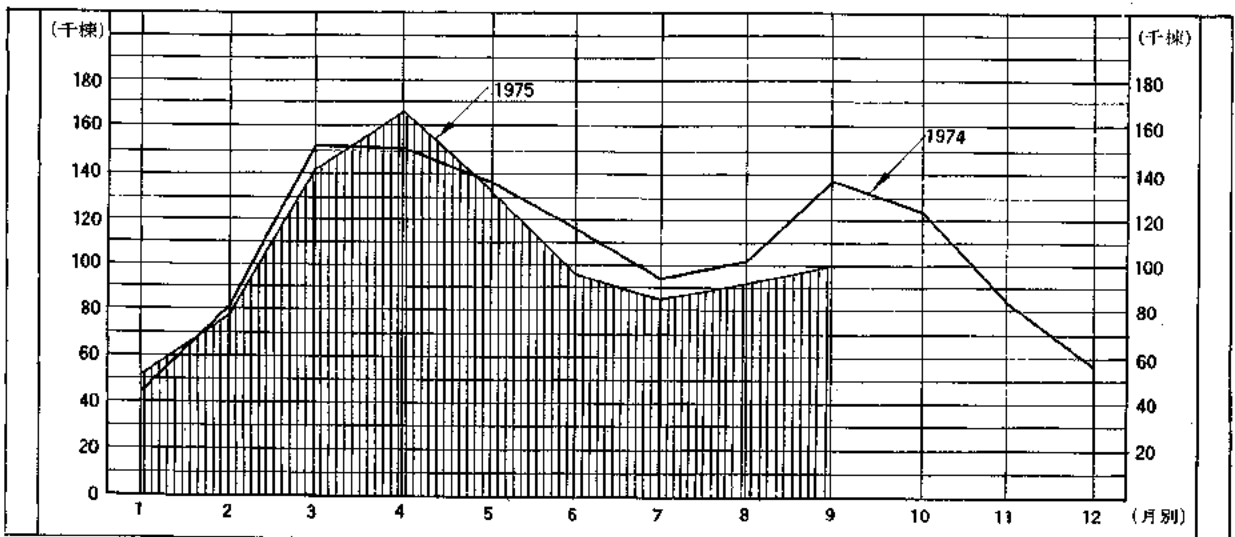


全国建築許可統計 (1975. 8.9月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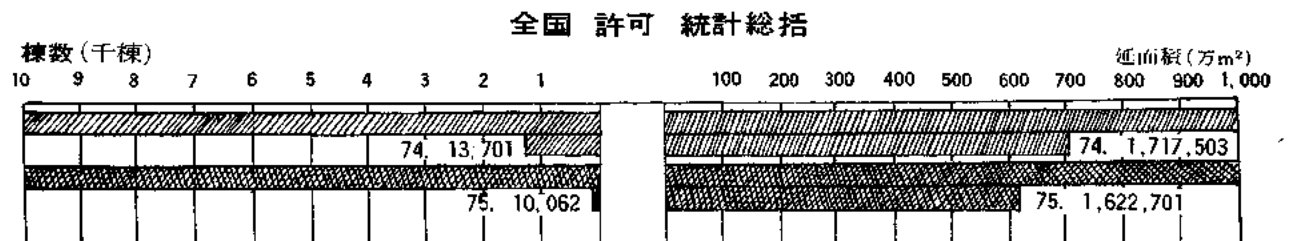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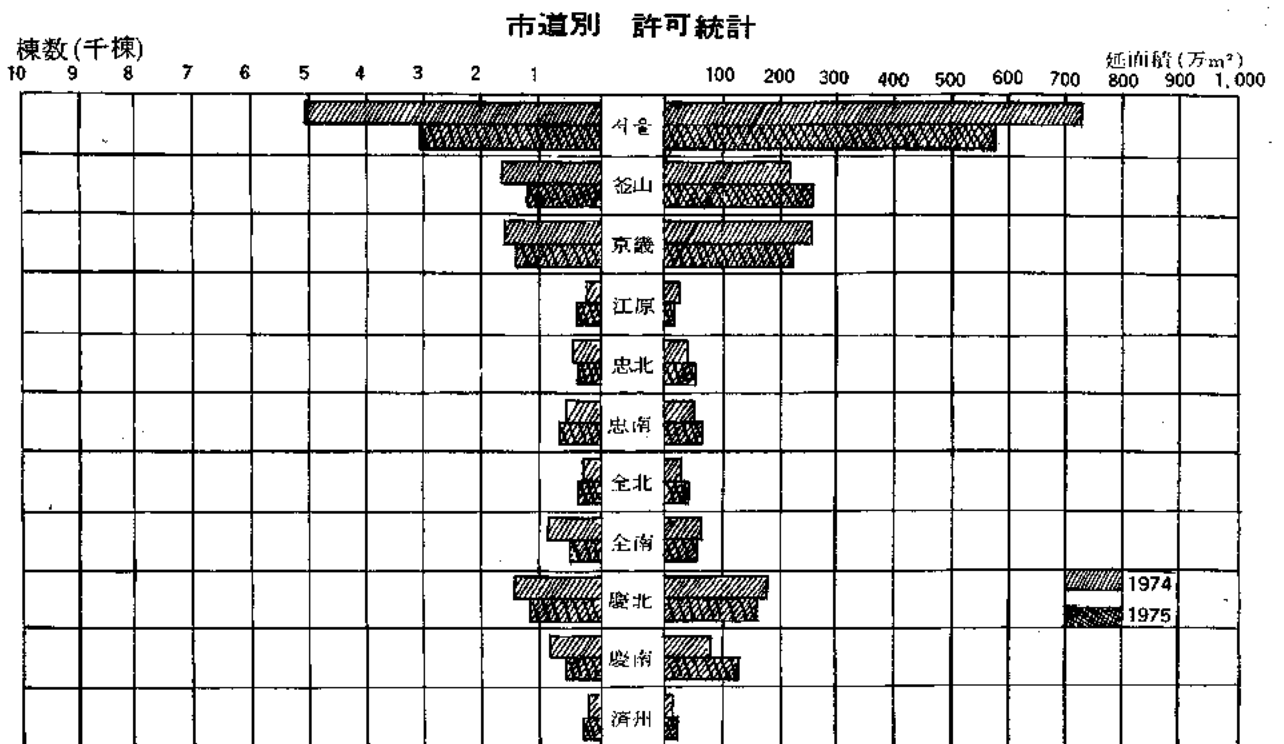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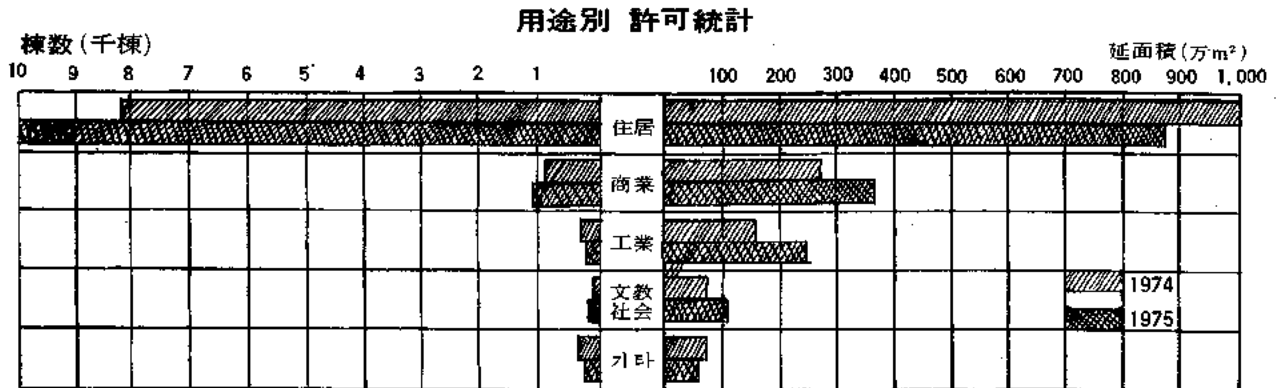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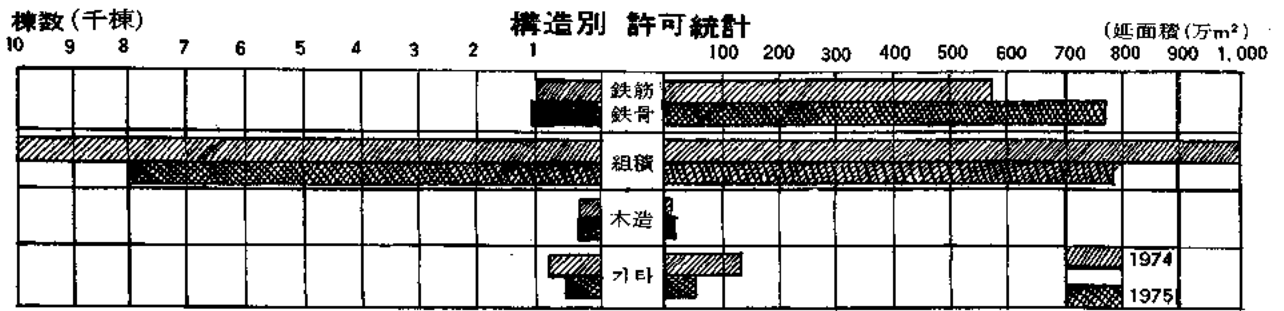
前年対比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8.9月分



月別建築許可(棟数)統計 8.9月分



9 月 分



工業団地 및 輸出自由地域内の工場等 建築에 関한 規則

工業団地管理庁

工業団地内の工場等 建築에 関한 施行要領이 75年 7月23日字로 配지될과 同時に 同日字로 同要領에 대치되는 工業団地 및 輸出自由地域内の工場等 建築에 関한 規則 이 商工部令 第446号로 制定 施行中에 있으므로 同 規則을 게제하오니 會員의 業務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編輯者: 註>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의한 공업단지(이하“공업단지”라 한다) 및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이하“수출자유지역”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공장·건물 기타 공작물(이하“공장등”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업단지관리청장등의 권한) 공업단지 및 수출자유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법에 의한 시장·군수의 권한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수출자유지역 설치법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공업단지 관리청장이, 수출자유지역에 있어서는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이 행사한다.

제 3 조 (공사착수) 공장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건폐율) ① 공장 등 건축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하“건폐율”이라 한다)은 10분의 3 이상 10분의 6 이하로 한다. 다만,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공장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 기업체(이하“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초년도의 공장 등의 건폐율을 10분의 3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대지의 공지의 대부분을 화물적치장·재생산용 폐품집하장·콘테이너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특수업종의 입주기업체 등에 있어서는 공장 등의 건폐율을 10분의 3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공장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 등은 그 공장 등의 최초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연차별 계획에 의한 증축예정 공장 등의 배치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지의 공지의 대부분을 화물적치장·재생산용 폐품집하장·콘테이너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특수업종의 입주기업체 등은 그 공장등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지의 공지의 사용계획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계획은 3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 5 조 (기숙사의 건축장소) 입주기업체 등이 그 종업원의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관리청장(수출자유지역에 있어서는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 지정하는 구역에 건축하여야 한다.

제 6 조 (환경미화) 공업단지관리청장은 공업단지 또는 수출자유지역내의 환경미화를 위하여 입주 기업체 등에 대하여 식재·화단의 설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가설 건축물) ① 입주 기업체 등이 공업단지 또는 수출자유지역에서 건축법 제47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공업단지 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목적
2. 건축면적
3. 건축구조

② 공업단지 관리청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17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1항의 가설 건축물의 존속 기간을 정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建築法施行規則中改正令

◎건설부령제160호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1975년 9월23일

건 설 부 장 관 인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3호를 제6호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 석축용 돌의 뒷질이 및 뒤편 돌부분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계기하는 기준 이상일 것.

가. 석축용 돌의 뒷질이

(단위: 센티미터)

구분 \ 석축높이	1미터이상 1.5미터까지	3미터 까지	5미터 까지
멧 쌓 기	25	35	35
잘 쌓 기	25	30	35

나. 석축의 뒤편돌부분의 두께

(단위: 센티미터)

구분 \ 석축높이	1미터이상 1.5미터까지	3미터 까지	5미터 까지
성토 상부두께	20	20	20
하부두께	30	45	60

절토 상하부 두께 35

4.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으로 조성된 대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에 건축물 외벽면에서 석축 연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표에 계기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기초 아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층수 1 층 2 층 3층이상
 뛰어아할 거리 1.5미터 2미터 3미터

5. 석축으로부터 2미터이내에 배수관을 배설

하고자할 때에는 주철관·강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버림콘크리트 바닥위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그 이음부분에 누수방지를 위한 물탈시공을 하므로써 시·장·군수가 누수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으로 오지토관을 사용할 수 있다.

7.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연단에서 2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의 부분에는 지표에 불투수층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지상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시켜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에 구조상 자장이 없도록 할 것.
8. 석축(출진이 없는 멧쌓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콘크리트 옹벽에는 1평방미터당 1개소이상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이면에 있는 물이 잘 배수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은 197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建築物着工統計調査 施行規則

◎건설부령제161호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5년 9월 23일

건설부장관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중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 "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 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 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조사의 구분) ① 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 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 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 보정조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조(조사기간) ① 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제6조(착공신고) ①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

를 착공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 착공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제출할 수 있다.

1. 건축허가대상건축물; 당해 건축허가기관
2. 건축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 당해 신고서 접수기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건축물; 읍·면장

②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 2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갈음한다.

제7조(조사사항)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건축물 착공통계조사

- 가. 건축주
- 나. 건축위치
- 다. 지역·지구
- 라. 건축물 용도
- 마.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바. 층 수
- 사. 건축물 구조
- 아. 공사종별
- 자. 공사기간
- 차. 공사비 예정액
- 카. 허가유무

2. 주택착공통계조사

- 가. 주택의 종류
- 나. 주택의 형태
- 다. 규모
- 라. 주택의 호수
- 마. 주택의 이용구분
- 바. 공사자금 조달방법

3. 보정조사

가. 보정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건축물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사항. 이 경우에 "공사비예정액"을 "공사실시액"으로 한다.

나.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조사방법) ①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

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 6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착공신고서와 건축주가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확인한 후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9조 (신고서의 제출) ①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 8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1부와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 총괄표를 다음달 10일까지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송부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총괄표와 시·도별 착공신고서 총괄표를 익월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0조 (보정조사) ①보정조사는 착공조사결과와 보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 1회 건설부장관이 임명한 조사원이 현지를 확인 조사한다.
②건축주·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조사원의 질문에 철저히 응답하여야 한다.

③보정조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조 (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제 12조 (착공신고서 용지의 청구 및 배부) ①도지사는 이년도에 필요한 착공신고서 용지를 시·구·군별로 구분 산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청구받은 착공신고서용지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착공신고서 용지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접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3조 (신고서 및 결과표의 보존) 건설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와 총괄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 소비절약 표어

에너지는 国力이다. 아껴써서 愛國하자.
기름으로 만든 전기. 한등꺼서 애국하자.

쓰고나면 再生없다. 에너지를 節約하자.

에너지를 아껴써서 외화지출 막아내자.
너도나도 걷기운동, 절약되고 건강준다.

訂 正

지난 9月号 P63 서울시 綜合廳舍 建立計劃 設計 出品 作品中 准燦秀作 (高麗大學校 建築設計室 제공)의 入賃者 姓名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金哲姓을 金哲性으로
李炳鎬를 李鍾鎬로
誤植되었기 訂正합니다.

協會記事

創立10周年紀念 會員作品 및 學術論文 審査

10月 7·8 日과 14日 本協會 會議室에서

本協會 創立 10周年紀念 會員作品 審査가 10月 7. 8 日과 14日 3日間 本協會 會議室에서 實施되었다. 応募作品數 作品部門에 42點, 論文部門 33點 中에서 入選作品 및 入選者는 다음과 같다.

〈會員作品部門〉

- 大 賞 國 立 劇 場 李喜泰 (李喜泰建築研究所)
 協會賞 노량진교회 金正湜 (正林建築)
 優秀作 大邱市民運動場 尹泰植 (대구합동건축)
 住 宅 金孝一 (경남 원건축연구소)
 入選作 大邱MBC서울타워 張宗律 (진우사건축연구소)
 " 대구靑少年會館 柳文大 (대구합동건축)
 " 서울神學大學 李好璵 (삼원사건축설계사무소)
 " 휴 개 실 金石崙 (김석운건축설계사무소)
 " 송전대·학생관 金寬豐 (김관중건축연구소)
 " 出版文化會館 洪淳寅 (대우建築研究所)
 " 住 宅 俞景哲 (3.6 建築研究所)
 " 住 宅 洪哲洙 (한국건축문화연구소)
 " 住 宅 金錫徹 (건축설계사무소아키반)
 " 住 宅 李鍾寬 (한국건축기술연구소)

〈論文部門〉

協會賞 韓國의 營造尺度 尹 張 璽
 (서울대학교 工大 教授)

1) 作品審査委員 (가. 나. 다 順)

- 姜 明 求 (中央大學校 教授)
 金 壽 根 (國民大學 教授)
 宋 旼 求 (宋旼求建築研究所 代表)
 劉 希 俊 (漢陽大學校 教授)
 李 丞 雨 (本協會理事 綜合建築設計事務所 代表)

2) 論文審査委員

- 李 興 秀 (本協會 理事
 新一建築研究所 代表)
 尹 道 根 (弘益大學校 教授)
 李 文 輔 (東國大學校 教授)
 李 廷 德 (高麗大學校 教授)
 李 丞 雨 (綜合建築設計事務所 代表)



• 支部長 會議 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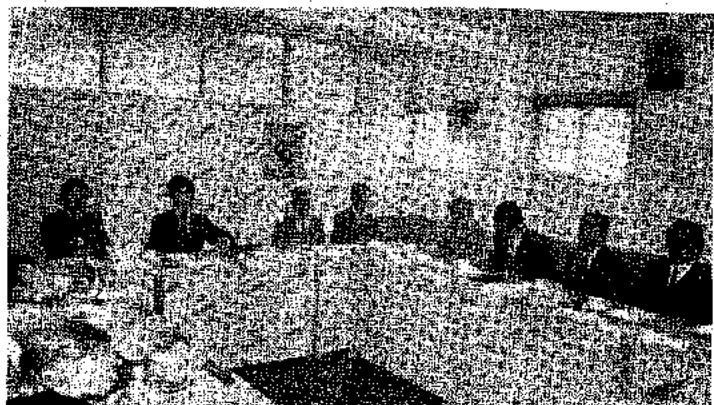
全國市道支部長 會議開催

'75. 10. 15. 午後 1時 本會 會議室에서

本協會에서는 지난 10月 15日 午後 1時 本會 會議室에서 第6回 全國市道支部長 會議을 開催했다. 이날 主要案件은 '76年度 本協會 事業計劃審議와 '76年度 一般會計 予算案審議 '76年度 特別會計 予算案 審議 등이었다.



• 同 支部長 會議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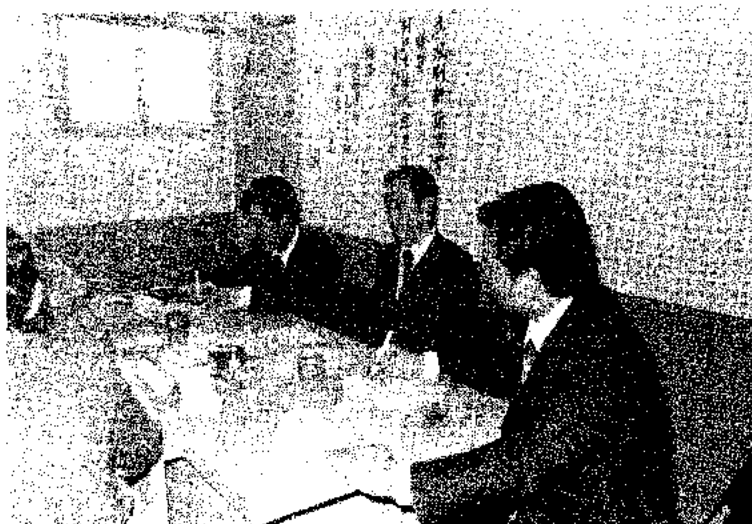
全国支部事務局長 會議 및 庶政刷新 講習會 開催

'75. 10. 8. (水) 11時 本會 會議室에서

本協會에서는 지난 10月8日(水) 上午 11時부터 全国
支部 事務局長 會議 및 对民業務民弊是正에 關한 庶政刷
新 講習會를 同時에 開催했다. 이날의 講師는 李圭福 總
務理事와 盧炳健 事務處長이 担当했다.



• 同 事務局長會議 光景 및 庶政刷新 講習會 光景



• 離任人事審 하시는 前任 韓昌鎭會長



• 離任人事審 하시는 前任 康晉參 監事

新旧會長 事務引受引繼

11. 5. 11:00 本協會 會議室에서

지난 11月 5日 上午11時 本會 會議室에서 前任 韓昌鎭
會長과 李圭福 新任會長과의 事務引受 引繼를 新旧任員
과 서울市支部長 等 參席裡에 舉行되었다.

이날 前任 韓昌鎭會長은 이번 第8代 會長으로 當選된
李圭福 新任會長과 新任任員과 留任 任員 에게 더욱 閉
合된 힘을 과시하여 앞으로 協會의 發展에 큰 努力을
더 해 줄 것을 當부하면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인수 引繼를 끝마쳤다.



• 引受引繼會에 參인을 하는 新旧會長과 新旧任員

서울特別市支部 編

分所對抗 支部長旗 爭脱 親善축구大会 1975. 10. 24. 漢陽大 축구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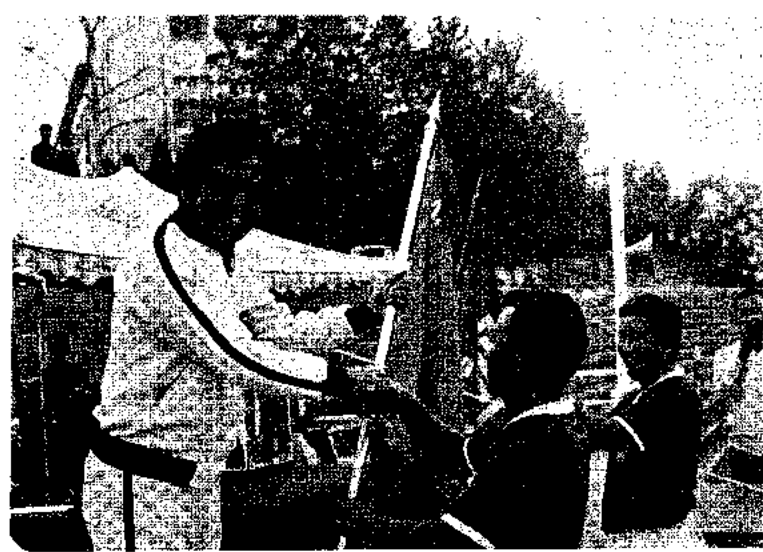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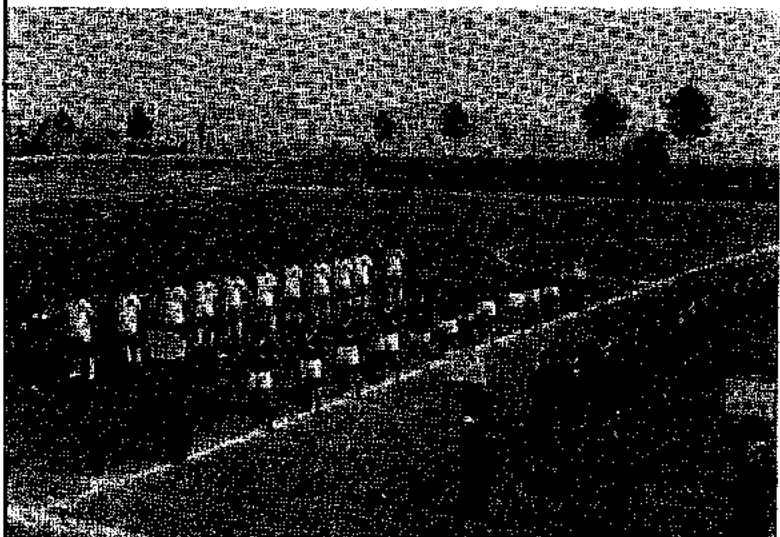
同支部에서는 協會 創立 10週年을 맞이하여 各分所 間의 會員親睦을 더욱 돈독히 하며, 分所別 団合된 會員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서울特別市支部長旗 爭탈 축구 大会를 漢陽大學校 축구장에서 開催했다.

이날 市内 4個 分所 對抗 競技에서 東部分所가 영예의 優勝을 차지했으며 準優勝은 江南分所 3等은 職員 팀 응원상에는 北部分所가 차지했다.

• 大会 人事를 하는 金萬盛支部長



• 同 各分所 代表 선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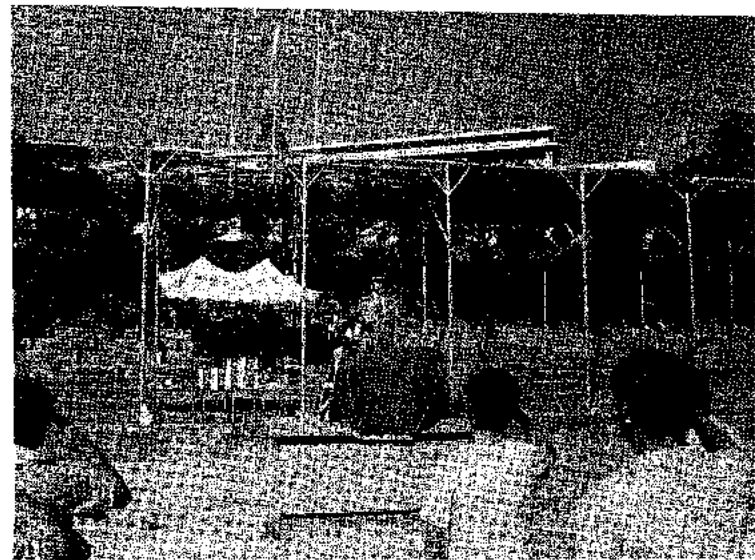
• 同 우승기를 하사하는 金萬盛支部長

東部建築士 聯合會 第1回 親善 축구大会

1975. 10. 18. 한양여자중학교 운동장에서

서울特別市支部 東部分所 主催로 지난 1975. 10. 18. 城東區廳 管内 建築士 會員팀과 建築職 公務員 팀 江南區廳 管内 建築士 會員팀과 建築職 公務員 팀과의 第1回 親善축구 競技를 開催했다.

• 인사 말씀을 하는 城東區廳長



• 試蹴을 하는 韓昌鎭 會長



會員動靜

서울特別市支部

新入會員

姓 名	名 稱	所 在 地	전화번호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曹 史 鉉	신 안 건 축	강남구 천호동 397-144	(56) 3656	(2) 1523	(2) 422	75. 10. 13
朴 正 哲	동보건축박정철기술연구소	동대문구 신설동 101-7	(94) 5802 (93) 4181	(2) 831	(2) 423	10. 18
서 규 철	서 영 건 축	영등포구 양평동 3-79	(62) 1010	(2) 1703	(2) 416	9. 3
정 구 은	다다건축의장연구소	중구 명동 2가 2-1	(76) 0451	(2) 1718	(2) 417	9. 5
박 태 식	대 환 건 축	관악구 봉천동 439-4	(68) 1157	(2) 918	(2) 413	9. 10

転入會員(京畿支部에서)

민 영 준	배 평 건 축	성동구 학동 산16-90	(57) 2606	(1) 844	(1) 678	9. 17

再開業會員

유 재 현	동 성 건 축	종로 2가 39	(75) 0584	(2) 221	(2) 420	9. 27

事務所移転

유 기 조	법 진 건 축	서대문구 용암동 98-65	(38) 6551	(2) 881	(2) 209	75. 9. 1
이 영 만	영 만 건 축	자양동 193-10	(56) 4897	(2) 1554	(2) 323	"
조 남 수	육일건설기공	홍인동 112	(54) 8270	(1) 224	(1) 179	"
신 형 균	성일건축연구소	을지로 4가 310-68	(27) 0078	(2) 128	(2) 165	"
민 병 운	대한건설기공(주)	성북구 수유동 191-32	(99) 0736	(1) 57	(1) 286	"
엄 준 세	동양 전 개 공	성북 2동 4	(92) 2478	(1) 1401	(1) 573	9. 2
유 원 동	정화건축연구소	자양동 193-10	(56) 4897	(2) 1543	(2) 335	9. 3
이 석 재	원 건 축	영등포구 화곡동 441-7		(2) 1537	(2) 319	9. 4
신 형 법	경진건축문제연구소	" 등촌동 398-16	(63) 5903	(1) 54	(1) 12	9. 15
김 한 근	델타건축연구소	신문로 2가 89-2	(74) 4371	(1) 958	(1) 382	9. 17
김 광 일	정광건축연구소	신설동 102-6	(92) 8262	(2) 1667	(2) 378	9. 22
이 용 하	신구건축구조연구소	종로구 청진동 295	(74) 9591	(1) 733	(1) 311	9. 25
심 정 행	동도건축심정행	성동구 구의동 254-2	(55) 5031	(1) 1136	(1) 613	"
사 윤 창	청 화 건 축	서대문구 서소문동 14-2	(28) 2900	(1) 435	(1) 71	"
오 동 석	신조건축연구소	종로구 내자동 1-1	(73) 2522	(1) 360	(1) 83	9. 30

電話番号変更

강 주 열	대 립 건 축 사	수하동 30	(76) 7944	(1) 588	(1) 309	
황 일 인	건원사건축연구소	종로구 낙원동 284-6	(75) 0512	(1) 1027	(1) 600	
정 덕 안	대 방 건 축	을지로 1가 194	(22) 3249	(1) 995	(1) 398	
洪 淳 寅	대우건축연구소	종로구 경운동 96-8	(73) 5007	(1) 1051	(1) 634	
김 영 석	극동종합건축연구소	중구 수표동 11-1	(29) 1415	(1) 531	(1) 497	
한 광 수	진양종합기술	중구 을지로 2가 9-1	(76) 6255	(1) 67	(1) 316	
이 도 승	유 신 건 축	중구 충무로 1가 24-14	(76) 3943	(1) 219	(1) 180	
임 상 익	이 건 사	종로구 서린동 100-1	(74) 3684	(1) 19	(1) 31	

釜山直轄市支部

事務所移転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 No.	登録 No.	年月日
吳 千 福	창미건축연구소	부산진구 문현동 458-10	(6) 4237	(2) 1173	(2) 226	9. 5
金 未 亥	신성건축연구소	부산진구 부전동 264-8	(3) 5904	(1) 102	(1) 188	9. 26
金 政 寬	비조건축연구소	중구 부평동 1가15	(2) 4385	(2)	(2)	9. 29

京畿道支部

資格更新(2級에서 1級으로)

鄭 會 昇	국동건축설계연구소	인천시 동구 송림동 105	(2) 3739	(1) 1464	(1) 44	75. 10.
-------	-----------	----------------	----------	----------	--------	---------

業務停止 解除

安 一 男	중앙건축사무소	인천시 중구 신평동 46	(인천) (2) 0550	(2) 1462	(2) 36	75. 9. 15

全羅南道支部

事務所移転

崔 相 彩	최상채건축사무소	순천시 장천동45-32	3291	(1) 340	(1) 11	75. 10. 10
金 仁 模	김인모건축사무소	" "	4430	(2) 184	(2) 12	"
甲 在 益	성주건축설계사무소	" "	2840	(2) 183	(2) 11	"
姜 寅 秀	미림건축연구소	" "	4430	(2) 621	(2) 32	"
李 健 種	홍진 건축설계사무소	" "	3851	(2) 276	(2) 30	"
鄭 南 朝	호남건축연구소	" "	3049	(2) 1021	(2) 1	"
鄭 健 柱	성하건축설계사무소	광산군 송정읍 명동 829-16	350	(2) 620	(2) 1	"
金 相 駿	라인건축연구소	광주시 동구 계림동 505-558	(4) 056	(2) 1690	(광주) (2) 28	9. 15
順 天 分 所		순천시 장천동 45-32	4430			75. 10. 13

新入會員

林 鍾 基	국도건축연구소	나주군 나주읍 중앙동83	2249	(2) 1691	(나주) (2) 1	9. 22
-------	---------	---------------	------	----------	---------------	-------

慶尚北道支部

新入會員

尹 哲 俊	대진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 봉인동 1가 277-2	(5) 7052	(2) 1060	(2) 95	10. 8
金 榮 泰	김영태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 봉인동 4가 251	(5) 1262	(2) 1739	(2) 94	10. 8

慶尚南道支部

新入會員

鄭 圭 鉄	산화건축설계사무소	거창군 거창읍하동61-10	550	(2) 155	(2) 75~1	75. 10.
-------	-----------	----------------	-----	---------	----------	---------

月間協會動靜

第2回 支部事務局長 會議

10月8日(水) 11:00

本會 會議室

出席任員: 總務理事 李圭福

出席事務局長: 서울 高 鎮 鶴

釜山 潘 德 鎮

京畿 朴 贊 英

江原 金 昌 南

忠北 表 仲 浩

忠南 金 永 名

全北 姜 元 昌

全南 金 鏞 津

慶北 金 洪 業

慶南 盧 章 鉉

濟州 梁 泰 浩

議 案: ① 협회창립 기념식
(指示事項)에 관한 건.

② 총회에 관한 건.

③ 예산 편성 지원
에 관한 건.

④ 기타사항.

第9回 編纂委員會

10月13日(月) 16:00

本會 會議室

出席委員:

委員 長: 李 丞 雨

委員 員: 金 仁 錫

" 金 昌 瑞

" 馬 春 景

" 愼 國 範

" 俞 景 哲

" 尹 道 根

" 李 文 輔

" 李 廷 德

" 韓 鏞 燮

議 案: ① 前月号 合評.
② 10月号 편집계획
안 토의.
③ 기타사항.

第3回 企劃委員會

10月14日(火) 13:00

本會 會議室

出席委員

委員 長: 朴 成 圭

委員 員: 金 萬 盛 鄭 孝 煥

鄭 銀 溶 崔 光 鉉

金 鍾 敏 韓 珖 洙

蔡 奎 鎬

李 根 庠

尹 容 和

曹 龜 鉉

金 斗 燮

金 鎮 成

朴 來 運

尹 太 鉉

李 奉 魯

議 案: ① '76年度 사업계획
심의의 건.
② 기타사항.

第6回 市道支部長 會議

10月15日(水) 13:00

本會 會議室

出席任員: 會 長 韓 昌 鎮

總務理事 李 圭 福

理 事 李 丞 雨

理 事 朴 成 圭

理 事 李 興 秀

理 事 成 一 永

監 事 尹 希 俊

監 事 康 晉 參

出席支部長: 서울 金 萬 盛
釜山 金 圭 泰
京畿 鄭 銀 溶
江原 趙 奎 植
忠北 鄭 鎮 億
忠南 金 鍾 敏
全北 崔 錫 珪
全南 蔡 奎 鎬
慶北 李 根 庠
慶南 尹 商 鳳
濟州 康 奇 汀

議 案: ① '76年度 사업계획
심의의 건.
② 기타사항.

第20回 (정기) 理事会

10月16日(木) 13:00

本會 會議室

出席任員: 會 長 韓 昌 鎮

總務理事 李 圭 福

理 事 李 丞 雨

理 事 朴 成 圭

理 事 李 興 秀

理 事 成 一 永

參席任員: 監 事 尹 希 俊
康 晉 參

서울市支部長 金 萬 盛
議 案: ① 정관 개정안 승인
의 건.
②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③ 기술연구위원회 규
정안 승인의 건.
④ 창립10주년 기념식
순 및 행사일정 결
정의 건.

⑤ 제10회 정기 총회안건 및 회순
결정의 건.
⑥ 보수기준 결정의 건.
⑦ 협회상 수상자 결정의 건.
⑧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대상자
결정의 건.
⑨ 해외시찰단 파견 연기의 건.
⑩ 기타사항.

第21回 (임시) 理事会

10月29日(水) 16:00

本會 會議室

出席任員: 會 長 韓 昌 鎮

總務理事 李 圭 福

理 事 朴 成 圭

理 事 李 興 秀

理 事 成 一 永

參席任員: 監 事 尹 希 俊
康 晉 參

議 案 ① 정관 개정안 승인
의 건.
② 윤리위원회 결정사
항 수락의 건.
③ 기타사항.

祝

大韓建築士協會創立10周年

1975. 10. 23



崔泰涉 한국유리 社長에게 감사패를贈呈하는 韓昌鎭 會長

◎ 韓國유리 工業株式會社	代 表	崔 泰 涉
◎ 金剛스레트 工業株式會社	"	鄭 聖 九
◎ 韓國스레트 工業株式會社	"	姜 敏 求
◎ 극동셀 石油株式會社	"	송 진 환
◎ 三和蛭石 工業株式會社	"	尹 錫 濟
◎ 유 티 카 商 事	"	俞 秋 山
◎ 永 一 홀 딩 도 아 商 社	"	金 重 石
◎ 三進본타일 株式會社	"	李 宗 勲

※ 本協會 創立 10周年 紀念 行事를 빛내 주신 上記 業체에 對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 編輯後記 ◆

◆…10月 23일은 本協會創立 10周年紀念日이었다.

団体年輪으로도 成長期에 접어든 協會의 지난 10年間の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紀念式, 産業視察, 祝賀宴, 會員作品展示會「오늘 그리고 建築」이라는 紀念冊字 發刊」등, 우리 나름대로는 오밀조밀한 行事를 베풀었고, 800余會員님들과 建設部次官님 등 많은 貴賓들이 紀念式場을 메워 우리의 成長을 祝賀해 주시고, 앞날을 祝福해 주셨다. 감사할 따름이다.

그래서 이번 10月號는 發行 날짜를 늦추어 가면서까지 紀念行事의 이모저모를「렌즈」에 담아 收錄했고, 아울러 創立以來의 協會의 걸어온 길을 写真特輯으로 엮어 보았다.

全國 會員님들과 歷代 任員님들 그리고 각 支部任員님들의 피땀어린 努力의 結晶体인 本協會의 片貌나마 다시 한번 紹介 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資料未備로 엉성한 特輯이 되어 일굴이 뜨거워질 뿐이다.

◆…國家技術資格法 施行令 제정과정에서 派生된 問題點의 解消, 建築士法 改正建議 報酬料率의 引上 認可申請, 所得標準率의 適正化建議등 協會事業에 새로운 轉期를 마련하는 등 協會 發展에 찬란한 次元높은 터전을 마련하신 韓昌鎭 第7代 會長님이 任期滿了로 退任하셨고, 역시 主要事業추진에 先頭에 나서 크나큰 功績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特別 編纂委員長으로서 會誌「建築士」의 發展에 心血을 傾注하신 李丞雨理事님과, 協會運營이 正軌를 달리도록 채찍질 해 주시고 特別 庶政刷新 업무추진에 큰 자취를 남기신 康晉參監事님도 任期를 끝내셨다. 세분 在任時 제대로 補弼해 드리지 못한 罪責感이 앞선다.

◆…第10回 定期總會에서 우리 協會는 새 指導者를 모셨다. 서울 支部長, 本部總務理事등 協會 要職을 두루 歷任하시어 協會 運營에 精通하실뿐 아니라, 會員님들의 가려운 점, 피로운 점등을 皮膚로 느끼시는 李圭福會長님을 모셨다. 協會의 傳統을 繼承 發展시키고, 會員님들과 密着하여 苦樂을 같이 하며, 會員님들로 부터는 信賴받는 協會를 社會的으로는 公信力 높은 協會를 이룩하겠다는 李圭福會長님은 그의 所信을 政治的·外交的 次元에서 行動으로 實踐化 함으로서 協會發展에 礎石이 되시겠다고 다짐하셨다. 또한 協會 創設當時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 協會를 키워오신 金鎭成, 金正澈 두 분이 理事로, 그리고 野에 계시면서도 協會일이라면 언제나 발벗고 先頭에 나서신 朴來運會員님이 監事로 就任하였다. 李圭福 會長님을 頂點으로 한 새 任員陣의 出帆에 즈음한 各界의 喝采를 들으면서, 誠實한 補弼을 다짐할 따름이다.

◆…協會創立 10周年 紀念 會員作品 中 入選作만 이번 호에 紹介되었다. 이 중 몇個의 作品은 會誌에 모두 紹介된 것이었으므로 紙面 할애를 못했다. 양해를 바란다.

아울러 選外作品은 會誌의 紙面이 허락하는 대로 會員作品으로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會員作品은 뛰니뛰니 해도 우리들의(建築士 誌) 심볼임엔 틀림없다. 계속 珠玉 같은 作品을 기대해 본다.